
2018년 연구사업 보고서

2018. 12

2018년 연구사업 보고서

연구 1.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5
연구 2. 형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형제 놀이활동 사례연구	27
연구 3.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47
연구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67
연구 5.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87
연구 6.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년차 사업정리 및 사례집	97
연구 7.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향 모색	149
연구 8.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평판지수 연구	165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사례지원팀 사회복지사
고 은 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관련제도
2.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개념 및 준거틀

III. 연구방법

1. 연구개요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2. 제언 및 한계

부록

1. 자립생활 사정도구
2. 자립생활 진단지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70년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탈시설화 운동과 1990년대 이후 장애패러다임의 전환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들의 잠재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생활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간 발달장애인들을 추적조사한 연구들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만족스럽게 적응했음은 물론 시설재입소나 교도소 수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올해 9월,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가 더욱 확충된다. 또한 개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양천구의 장애인 수는 17,232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306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인원수는 2012~현재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7년 기준) 현재 본관 사례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은 총 270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 인원수는 총 48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2017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40명중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은 22%를 차지했다. 향후 자립생활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55.8% 절반이상이 자립생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현재 자립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성인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망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발달장애인이나 성인 장애인을 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자치구별로 장애인 복지관이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서울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추진방안 2013 서울연구원)

이에 사례지원팀에서는 자립을 희망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욕구를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정도구를 활용하여 자립을 위한 사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서비스 및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제도

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문재인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올해 9월 12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제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 표와 같다.

생애주기	주요내용 및 과제
영유아기	1. 발달장애 조기 진단 및 보육 교육서비스 강화 (1) 발달장애 조기 진단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확대(1,000명→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2)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통합유치원(1개→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1131학급) 2.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1)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 발달장애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 제공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 마련, 부모 매뉴얼과 함께 유관기관 배포) (2)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3.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강화 (1)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 청소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신설(2019년 4,000 → 2022년 2만 2,000명) (2)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한다.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325학급 → 197교, 1만1,575학급) 4.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역량 강화지원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을 강화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2014년 7개소 → 2019년 13개소) (2)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한다. - 자녀진로상담 및 코칭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역량강화 (3) 교육 복지·고용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1.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❶

<p>청장년기</p>	<p>5. 주간활동(커뮤니티케어)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2019년 1,500명→2022년 1만 7,000명) (2)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복지를 지원한다. - 자립생활 임대주택 추진 (3)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6.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2) 발달장애인에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2018년 2,500명 → 2019년 5,000명) (3)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 인식을 개선한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2018년 1,200명 → 2018년 3,000명)</p>
<p>중노년기</p>	<p>7.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8.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 (1)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2)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으로 안정적 소득 관리를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p>
<p>전주기</p>	<p>9.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개설한다.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8개소)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한다. 10.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강화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2)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을 강화한다. (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명 → 2만명)</p>

<표 II-1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달장애인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안에 생활했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원개발 및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의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체계가 마련 될 것임을 의미한다.

나.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사업(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이다. 장애인이 코디네이터 등의 지원을 받으며 7년간 자립생활을 준비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2009년 12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3곳을 시험 운영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0년 5월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현재 서울시 내 자립생활주택 65곳을 두고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주택마련 지원 등을 제공한다. 현재 자립생활주택 65곳 중 11곳에 중증 발달장애인이 입주했다.

8년간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장애인은 총 223명이다. 자립에 성공한 77명을 포함해 113명이 퇴거했다. 110명은 현재 이용 중이다.(뉴스1코리아 2017.11.29. 기사발췌)



<표1-2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전달체계>

2. 발달장애인 자립개념 및 요인

(1) 자립생활 개념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에 소개되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재활모형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결정에 기초한 삶을 지향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장애인들이 가져야할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3명의 학자가 ‘자립’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이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아무런 지원 없이 모든 일을 장애인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핵심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권선진, 2007)

자립이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를 통한 능동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김진우, 2010;Brisenden 1989)

지역사회의 자원기반으로 일상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채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삶이다.(김동기,2017)

위의 내용을 통해 자립생활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립생활이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주체성을 갖고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체계를 선택 및 통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립생활 준거틀

①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까지 복지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개인별지원계획회의 수립,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계좌의 관리,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② 자립생활 준거틀에 관한 선행연구

Harvey, Moxley, Gate 욕구영역 근거하여 권중돈(2007)은 자립생활 준거틀을 소득보장, 주거, 고용, 사회네트워크, 정신건강(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 일상생활훈련, 권익옹호 등으로 분류하였다.

성민복지관 평생과정설계를 통해 소득재정, 직업,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류, 결혼출산으로 자립생활을 분류하였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건강하게 지내기(일상·건강), 돈관리하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이성친구 사귀기, 나를 보호하기, 직업갖기, 여가활동하기로 총 7가지로 분류하였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을 보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준거틀에서 ‘주거’가 포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총 8가지로 분류하였다.

영역	주요내용
건강하게 지내기 (self-care)	집안정리저돈, 빨래, 쓰레기 배출, 음식, 건강식사, 치아관리, 몸관리, 단정한 옷, 멋내기, 매일 운동, 잠잘자기, 병원약국이용, 약먹기, 생활용품 수리, 술담배조절
관리하기 (management money)	계산시 사용, 수입지출 관리, 먹거리, 생활용품구입, 은행 이용, 생활요금 관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circle of support)	기본적 의사소통, 자신의 장애 이해 시키기, 친구 사귀기, 여러대상과의 관계(이웃집, 친척, 활동보조인, 공무원), 종교활동, 우체국 이용, SNS이용, 외출, 도움요청하기
이성친구 사귀기 (date, marriage, sex)	이성친구에게 의사표현, 데이트, 결혼설득, 성생활, 아이양육
나를 보호하기 (advocacy)	내가 가진 권리이해, 차별대처, 놀림, 무시, 장난 대처, 복지혜택 수급, 위급상황 대처, 사기예방대응
직업갖기 (working)	내가하고 싶은 일 찾기, 취업에 필요한 능력 갖추기, 취업정보, 면접, 직업유지, 직장 인간관계
여가활동하기 (recreation)	여가활동 정보, 컴퓨터, 모바일게임, 문화여가시설이용, 여행
주거 (housing)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공간(집) 지원 필요

<표II-2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준거틀>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가. 실무자 인터뷰

1) 기관방문

(1) 기관선정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시내 3기관을 선정하였다. 3기관 모두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연구 및 서비스를 다음 표와 같이 제공하고 있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관명	선정내용	비고
충현복지관	2016년부터 성인발달장애인 독립주거모형개발사업을 통해 독립인큐베이팅사업과 자립생활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독립인큐베이팅사업: 6년~7년까지 원룸형태의 인큐베이팅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이 입주하여 실질적인 독립을 준비하는 홈으로 독립계획 수립, 독립역량강화, 지원서비스 제공과 주택마련을 위한 협동조합 구축, 사회지원주택과 부모교육이 병행되는 사업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연구를 실시함. -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2016) -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 계획(2016)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 내 발달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을 실시함. - 자립생활주택(탈시설 발달장애인) 운영	

<표Ⅲ-1해당기관 선정내용 >

(2) 진행일정

- 1차 일정 : 10.19.(금) 14:00~16:00, 충현복지관
- 2차 일정 : 10.23.(화) 10:00~12:0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3차 일정 : 유선연락 실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진행방법

- 기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정도구를 통한 자립생활계획 및 자립지원을 위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인터뷰 실시하였다.

나. 사정도구 적용

(1) 사정도구

① 사정도구 출처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2016년도에 ‘발달장

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이 제작하였다.

- 이를 기반으로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 계획 연습장'이 제작되어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연습장을 공유하였다.

② 사정도구 선정이유

- 국내외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계획 및 지원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자립생활 계획과 지원의 과정, 매뉴얼 전체틀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생활 분야의 준거틀, 자립생활 계획과 지원의 개념, 실천의 원칙, 참여자별 역할 등을 통해 매뉴얼의 세부적 구성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 매뉴얼 개발의 근거와 배경, 내용에 대한 정리를 위해 발달장애인복지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과정 중 하나인 그룹홈 입소와 체험자 14명에 대해 자립생활 프로그램 참여와 경험,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 사정도구 적용

본관 사례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팀 내 논의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다음 표와 같이 선정하였다. 선정된 참여자는 본 복지관에 내방하여 담당자와 함께 사정도구를 통해 자립생활 진단을 실시하였다.

참석자	나이	참여대상자의 특징
A(김)	32세	- 1인 독거, 지적장애3급. 기초생활수급가정 - 사례지원대상자
B(강)	21세	- 4인 가족(모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3급, 기초생활수급가정 - 본 복지관 직업훈련대상
C(임)	19세	- 3인 가족, 지적간질장애 2급, 차상위 가정 -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전환기교육 참여 중) - 집중사례대상자

<표III-2 참여대상자의 특징 >

Ⅳ. 분석결과 및 제언

1. 연구결과

1) 지역기관 인터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본 복지관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2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1개 기관의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담당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관명 : 충현복지관	
질문내용	답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절차 및 과정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정도구	- '독립주거역량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정하고 있음. 현재 기관에서 독립주거역량체크리스트를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있음.
자립생활 계획시 중요한 요인	- 당사자가 자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함. - 자립생활 시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와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함.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편이어서 미리 자립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중장년층에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음. 발달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교육을 통한 정보안개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탐색하고 연계 - 생애주기별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표Ⅳ-1 충현복지관 인터뷰내용 >

기관명 :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질문내용	답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절차 및 과정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정도구	- 발달장애인 당사자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매뉴얼 (2016년 발행) -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계획 연습장(2016년 발행)
자립생활 계획시 중요한 요인	- 자립생활계획시, 부모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찾는과정이 가장 중요함.(상담을 할 때 부모와 함께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계획 수립의 한계	- 계획을 수립할 때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발달장애인 부모의 경우,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발달장애자녀의 자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부족한 편임. 이에 자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함.

<표Ⅳ-2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인터뷰내용 >

기관명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문내용	답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절차 및 과정 -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정도구	- 자립을 위한 별도의 사정도구가 부재하며 발달장애인 욕구를 사정하기 위해 그림을 통해 사정을 실시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여가문화프로그램 및 동료상담 실시하고 있음. -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표IV-3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터뷰내용 >

위와 같이 2개 기관을 방문 및 1개 기관의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4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현재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인 자녀의 자립을 준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자립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녀가 자립을 했을 경우 분리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도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계획 수립 시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과 함께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립생활계획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우선시 하되, 당사자의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이용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생애주기별로 자립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립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으며 생애주기별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양천구 내 지역사회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나,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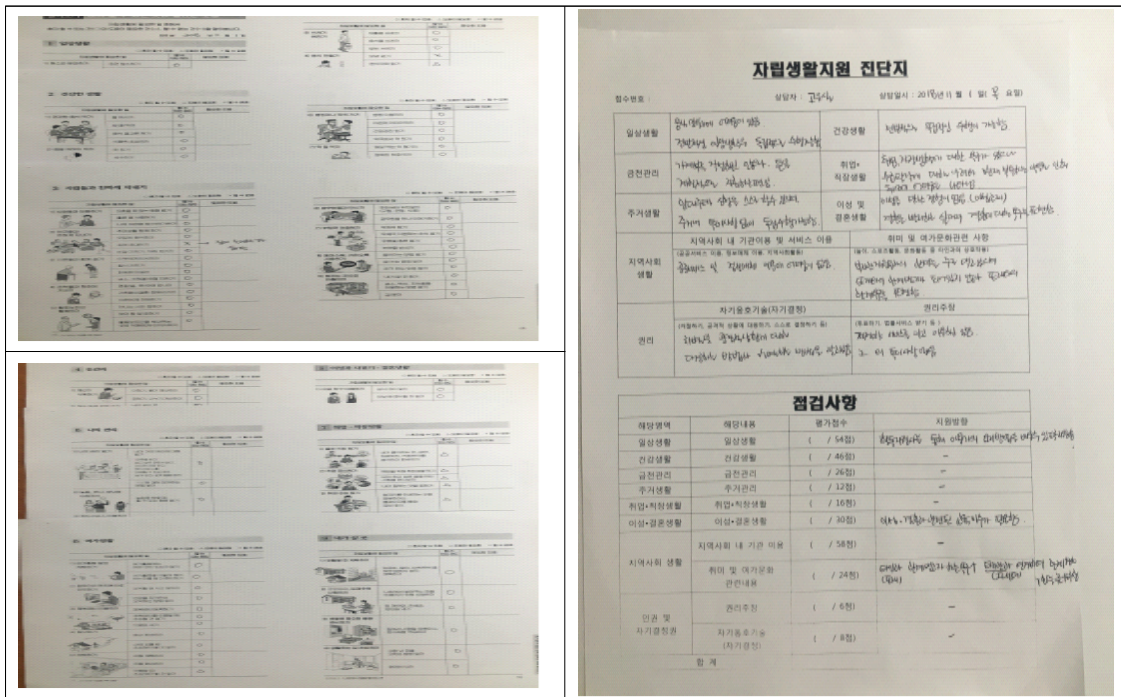
2) 사정도구 적용결과

사례대상자 중 3명의 발달장애인을 선정하여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정도구를 통해 사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2명의 사례대상자(A, B)를 사정하였고, 팀원 1명이 1명(C)의 사례대상자를 사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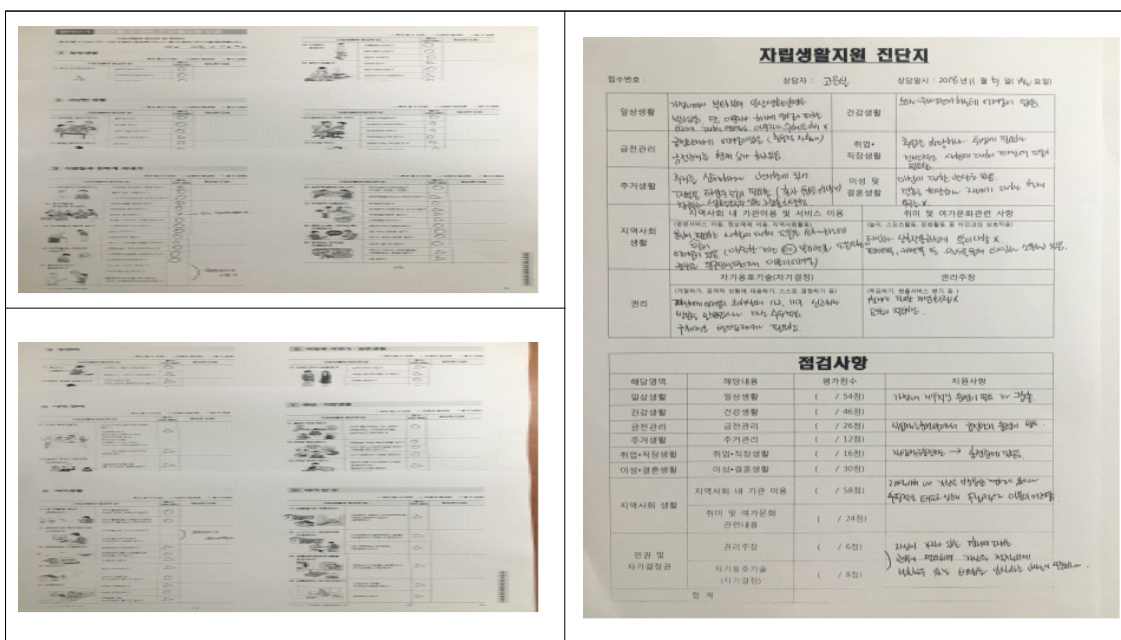
사정도구를 통해 이용자의 현재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파악하여 담당자가 사정도구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생활지원 진단지를 다음 표와 같이 작성하였다.

1.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



<표IV-3 A의 사정도구 및 자립생활진단지>

A의 사정도구를 통해 A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현재 취업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A와 오랜 시간 관계를 하였고,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자립을 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사정도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었다.



<표IV-4 B의 사정도구 및 자립생활진단지>

B의 사정도구를 통해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타인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B가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일상생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항을 알수 있었다. 체크된 사항을 통해 B가 지역사회 내 기관을 이용할 때 수동적인 성향이 나타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	편소, 음식조리, 복싱기 등 취생적인 부활이 조율이 필요함	간간생활	실용적 예반, 범죄지원은 취생관리에 취학정중 보정
안전관리	다문화는 일상생활-생활도 후회 관련성이 있어 취생은 가능성이나 안전담부에 주담함	취업·직업생활	취업·직업, 주담에 필요한 결함이 취학정중 보이며 개인관계에 기생정중 보임
주거생활	주거지에 대한 이해, 정보라미 많이 부족함	이성 및 결혼생활	다문화에 대한, 성에 대한 대담과 부족하여 교역서 필요정중 보임
지역사회 생활	지역사회 내 기관이용 및 서비스 이용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 복지, 지역단체) 관련성이, 부활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낮으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함	위탁 및 대가문화관련 사항	위탁 및 대가문화관련 사항 문화·여가활동이 있어 이해도의 부족함은 보이며 자신용 이해 차는에 이거정중 보임
관리	자기유용기술(자기결정)	관리주담	관리주담

점검영역	점검내용	평가점수	지원사항
일상생활	일상생활	(/ 34점)	
안전관리	안전관리	(/ 46점)	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주거생활	주거생활	(/ 26점)	주거생활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취업·직업생활	취업·직업생활	(/ 12점)	취업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이성·결혼생활	이성·결혼생활	(/ 16점)	다문화에 대한, 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성·결혼생활	이성·결혼생활	(/ 30점)	성에 대한 교육 필요
지역사회 생활	지역사회 내 기관 이용	(/ 58점)	
	위탁 및 대가문화 관련내용	(/ 24점)	문화·여가에 대한 견보 안내
관리 및 자기결정권	관리주담	(/ 6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자기유용 기술 (자기결정)	(/ 8점)	
합 계			

<표IV-5 C의 사정도구 및 자립생활진단지>

C의 사정도구를 통해 '누군가 저에게 알려주면 할수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나타냈으며,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금전관리에 있어 이전 계획보다 다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C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집중사례대상자로 성인기 준비를 위한 사례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개입을 시작하였다. C 사례를 통해 사정도구 이용 전에 사례계획서와 사정도구 이용 후 작성한 사례계획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모색 ❶

<사정도구 이용 전 사례관리계획서>			
장기목표기간	2018. 09. 03. - 2019. 09. 02.	단기목표기간	2018. 09. 03. - 2019. 03. 04.
장기 목표			
진로탐색을 통한 성인기 준비 및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통한 지역사회 내 자립			
단기 목표 및 계획			
목표	세부계획(구체적 행동전략과 연결)		
다양한 진로 탐색하기	직업훈련을 통한 진로 탐색		
	성인기 발달장애인 이용프로그램 안내		
스스로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유지	정기적인 약물복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		
	위생관련 상담 진행		
경제관념 확립 및 저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금전관리방법에 대한 상담 진행		
	저축 및 주택청약 관련 방법 안내		
↓			
<사정도구 이용 후 사례관리 계획서>			
장기목표기간	2018. 09. 03. - 2019. 09. 02.	단기목표기간	2018. 09. 03. - 2019. 03. 04.
장기 목표			
진로탐색을 통한 성인기 준비 및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통한 지역사회 내 자립			
단기 목표 및 계획			
목표	세부계획(구체적 행동전략과 연결)	지원방법	
다양한 진로 탐색하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정보 탐색	직업지원팀 연계	
	성인기 발달장애인 이용프로그램 안내	본관 및 타기관 프로그램 연계	
스스로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유지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위생관리 및 약물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1회 유선 연락하여 이용자를 체크하도록 함.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안내		
	정해진 시간에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		
경제관념 확립 및 독립적인 금전관리	가계부 작성을 통한 경제관념 확립	휴먼시터를 통해 금전관리 교육실시	
	독립적인 금전관리를 위한 은행업무 이용방법 안내		

<표IV-6 C의 사례관리계획서>

상담을 통해 자립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자 또한 자신에 대해 표현함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직접 작성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사정하는데 필요한 영역을 체크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자신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의 주체성을 더욱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제언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을 위해 문헌조사와 현재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2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사정도구를 적용하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계획 수립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에 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기관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가 발달장애자녀의 자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답변이 있었다. 발달장애부모가 노년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중장년이 된 발달장애자녀를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늦은 시기에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자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높여 부모 사후의 발달장애 자녀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둘째, 본 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문재인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더 이상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책임을 지고자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또한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원이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생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셋째,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용절차마련이 필요하다. 사례지원팀에서는 사정도구를 통해 이용자를 사정하여 자립 시 도움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사례지원팀에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되, 그 외에 필요한 영역에 대해 본 복지관 해당 팀에서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다각도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자녀 혹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희망해서 복지관에 내방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절차를 마련하여 본 복지관이 자립의 준비를 부모 및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복지관 종사자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과 함께 그에 따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 및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교육 및 기관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자립을 위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지원팀에서 지역사회 내 자립을 준비하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자립을 위한 전반적(9개의 자립생활영역)인 계획을 수립 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전문가의 견해와 실무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사정 도구를 직접 적용해 봄으로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자립생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정도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본 기관을 오랫동안 이용한 저소득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모집단의 구성이 지역사회 내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계획수립을 위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사례지원팀과 성인발달장애인이 각 영역에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부서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지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채성현, 강태인, 김미영, 권영지, 박형빈, 2017)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2016)

내가 만드는 자립생활 계획 연습장(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2016)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16)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태 욕구조사(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서울시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태와 정책 추진방안(2013.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부록 1. 사정도구


알아보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필요한 도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것(△),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봅니다.

연도: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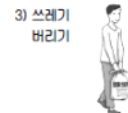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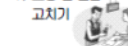
1 일상생활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1) 청소와 정리하기 	집안 청소하기	
	이부자리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옷 정리하기	
	탁자, 서랍장 정리하기	
	싱크대 정리하기	
	냉장고 정리하기	
	설거지하기	
2) 빨래하기 	세탁기 사용하기	
	손빨래하기	
	세탁소 이용하기	

24 ... 내일 아침 7시에 학교 갈 예정입니다.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3)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4) 음식 만들기 	양념 알기	
	음식재료 알기	
	요리기구 사용하기	
	밥솥 사용하기	
5) 단정하게 옷 입기 	옷 고르기	
	깨끗하게 옷 입기	
	겉옷·장례식 때 옷 입기	
6) 멋 내기 	머리 정돈하기	
	손톱과 발톱 관리하기	
	화장하기	
	액세서리 사용하기	
7) 고정 난 문건 고치기 	라디오나 핸드폰이 고정 난을 때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기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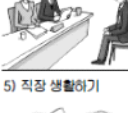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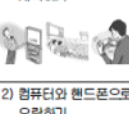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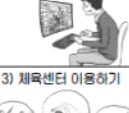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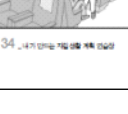
2 건강한 생활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1) 건강한 음식 먹기 	물 마시기	
	밥 잘 먹기	
	음식 골고루 먹기	
	식중독 조심하기	
2) 몸을 깨끗이 하기 	손 씻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3) 건강한 이 관리하기 	양치질하기	
	칫솔, 치약 고르기	
	치과 가기	
4) 매일 운동하기 	적절한 운동시간 알기	
	운동하는 방법 알기	
5) 잘 잘 자기 	잠에 도움 되는 것 알기 (이불은 스르러칠, 이시간엔 불로 시켜하기, 따뜻한 실내 온도 등)	
	방해가 되는 것 알기 (자기 전 알람을 끄거나 술 마시지 않기, 핸드폰 / TV 보지 않기 등)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6) 병원이나 약국 가기 	병원 이용하기	
	아픈데 이야기하기	
	건강검진 받기	
	약국에서 약 짓기	
7) 약 잘 먹기 	매일 먹는 약 챙기기	
	정해진 만큼 먹기	
	약 보관하기	
8) 술과 담배 조심하기 	술 양을 조절하기	
	담배를 피울 때 주의할 점 알기	

6 나의 권리		7 취업·직장생활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1) 나의 권리 알기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 알기 (교육을 받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아프면 치료 받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잊고, 쉽게 도움 권리) 차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알기		1) 좋은 직장 찾기 	내가 좋아하는 것, 급여, 직면복지, 직장위치를 생각하고 준비하기	
2) 놀림, 무시, 장난에 대처하기 	놀림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알기		2) 취업 준비하기 	취업을 위해 취미생활 하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정하기	
3)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장기요양 확인, 인터넷요양 확인, 지하철도요금 확인,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기		3) 취업 정보 찾기 	일자리를 안내하는 곳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찾기	
4) 피해 상황 대처하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기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신고하기 성희롱과 성폭력 대처방법 알기		4) 면접하기 	면접 준비하기 면접장에서 해야 할 일 알기	
5) 직장 생활하기 			직장에서 할 일과 예절, 노력해야 할 것 알기		
32 나의 권리 개념 이해		33 차별·다르게 대하는 것			
8 여가생활		9 내가 살 곳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 혼자 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함 × 할 수 없음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자립생활에 필요한 일	할 수 있는 정도	필요한 도움
1) 여가활동 알고 계획하기 	여가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여가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하기		1) 생활할 집 계획하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중 어떤 집에서 살지 계획하기	
2)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오락하기 	오락할 때 시간 정하기 건강을 지키면서 오락하는 방법 알기		2) 공공임대, 임대주택 신청하기 	나라에서 빌려주는 집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기 집 계약금, 전세금, 임대료 내기	
3) 체육센터 이용하기 	체육센터 등록하기 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조심할 것 알기 이용료 내기		3) 생활에 필요한 물품 준비하기 	집에서 사용할 장롱이나 전자제품 구입하기	
4) 등산하기 	등산 준비하기 산에 오를 때 조심해야 할 것 알기		4) 생활하는 집 관리하기 	고장 난 곳을 고치는 방법 알기 관리비 내기	
5) 여행하기 	여행 계획하기 여행 준비하기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알기		공공임대 : 나라에서 집을 빌리는 것		
34 나의 권리 개념 이해		35			

형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형제 놀이활동 사례연구

기능향상지원팀
최 수 연 놀이치료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II. 이론적 배경

1. 형제 상호작용의 중요성
2.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상호작용 특성
3.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III. 연구내용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IV. 분석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형제 상호작용 행동 관찰 기록지
2. 형제관계척도 질문지
3. 비장애 형제 태도 평정 척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형제는 아동끼리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아동과 부모가 주고받는 영향과는 다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가족집단 내에는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관계 등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제관계는 부모-자녀관계보다 더 지속적이며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서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지지 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형제가 상호작용 하는 양이 증가되면서 형제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연수, 2000).

형제관계는 동생의 출생과 함께 시작하고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끝이 나는, 비교적 오래 지속되며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Stoneman & Brody, 1993). 이는 동반자, 조력자 또는 정서적 지지자의 근원이 되며 특히 손위형제는 보호자, 교사 또는 부모의 부재를 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형제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적 발달의 핵심이 된다(Furman & Buhrmester, 1985).

그러나 가족 구성원에 장애 아동이 속해 있다면 본인에게 할당되어야 할 가족의 관심이나 배려가 장애아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에서 채워져야 할 관심이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동시에 가족에게 장애아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 의무, 양보를 강요받게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은주, 1992). 또한 특히 비 장애 형제는 장애 형제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은 형제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애형제와 비 장애 형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방소영, 2008). 이러한 형제간의 초기 감정은 후의 상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초기에 형성된 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형성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 시키고, 아동들이 호의적이고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제들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형제간 갈등이 감소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며 장애형제를 대하는 비장애형제의 사회적인 태도(수용적 태도, 거부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본 연구는 형제 놀이 활동이 장애, 비장애 형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함이며,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성까지 정리해보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형제 간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는 어떠한가?

1-1.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증가시키는가?

1-2.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감소시키는가?

1-3. 처치 후에도 형제의 상호작용 변화를 유지시키는가?

둘째,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형제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에서의 형제관계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 형제의 태도 평정 척도(Schaeffer Sibling Behavior Rating Scale; SSBRS)에서의 모가 관찰한 형제관계 변화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형제 상호작용의 중요성

형제관계는 동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어 형제 중 한 명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인 동시에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이다(Stoneman & Brody, 1993). 형제관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형제관계란 형제간에 접촉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관계(Cicirelli, 1982)이며,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반응과 상호교환의 과정이 포함된 사회적 교환이다. 또한 형제관계란 어릴 적부터 형성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며(Abramovitch et al., 1986), 형제간의 상호작용은 한 형제의 자극과 다른 형제의 반응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의 행위가 다른 형제의 신념, 지식, 태도, 감정 등의 견지에서 지각되어 이것이 특정한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를 심리적인 상호 의존성이라고 한다. 또한 형제관계는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지식 · 지각 · 태도 · 신념 · 감정 등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신체적,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한 상호작용이다(Cicirelli, 1995). 이러한 형제 상호작용은 형제간의 명백한 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주관적, 인지적, 정서적 관계를 의미할 수 있으며, 공간적 혹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지속된다.

특히 아동기의 형제관계는 형제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가족 내의 자원을 공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기보다 형제관계가 매우 강하게 맺어 있으며, 우정과 정서적지지, 양육과 위임, 원조와 봉사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김상희,1992).

초기 아동기에는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맥락을 제공받으며(Stoneman& Brody, 1993), 형제 상호작용은 주요 사회적·정서적 유대관계의 하나로서 아동의 동료애, 도움,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 된다(Parke& Buriel,1998).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형제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리자와 피 관리자, 교사와 학생,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과 같은 보충적인 역할을 경험하며, 이를 통하여 서로의 인지적 혹은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킨다(Dunn & Kendrick,1981).

유아들은 형제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사회적 이해 기술을 또래관계로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데(Parke& Buriel,1998), 이러한 형제의 보충적 역할은 아동 자신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경험뿐만 아니라 형제의 특별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제공한다. 즉, 아동은 형제간 힘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불평등한 경험을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더 넓은 범위의 행동에 반응하고 학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제간 상호작용은 아동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형제 상호작용에서 형제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형제간 갈등의 해결과정은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상호작용 특성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서의 형제관계 역시 일반적인 형제관계의 중요성과 비슷하게 적용되나 출생 순위, 성별, 나이, 장애유무, 능력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비장애 형제는 장애아동에게 교사 및 보호자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김다혜, 2013), 놀이 친구 및 학습 친구로서 장애아동의 언어, 운동기술 및 사회 기술 등을 기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정선, 2011; 부경희, 이성규, 2013).

또한 장애아동으로 인해 비장애 형제는 일반적인 형제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외에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사이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비장애형제는 장애아동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보이는 등 성숙의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동정심과 민감성을 나타내며, 높은 이타주의와 독립심을 보인다. 또한 자아의식 및 사회적 능력도 증진되며, 통찰력과 인내심을 지니고, 직업적 기회를 더욱 다양하게 가질 수 있으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는다(이승희, 1998; 백혜주, 2008; 최정선, 2011).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아동과 과잉 동일시하게 되고, 장애아동으로 인해 당황함을 경험하기도 하며, 장애아동의 문제가 자신의 탓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부모의 차별대우와 타인의 시선에 의해 수치심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상실감과 분노, 과중되는 책임감 및 성취에 대한압력을 느낀다.

또한 그들은 장애아동으로 인해 친구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 하며 장애아동의 장애문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이승희, 1998; 백혜주, 2008; 김다혜, 2013).

이처럼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장애아동의 형제관계가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임지희, 2010). 그렇지만 비장애형제가 겪는 경험은 일반형제 관계에서 겪는 경험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기에,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에게도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서로가 보다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의사소통을 적절히 사용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다.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주로 서로를 알고 신뢰하기 위한 자기 노출,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신뢰 형성 등의 활동과 의사소통의 기술, 상호 수용과 지지, 갈등 해결 등을 학습하여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재창, 1995).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해 인정하고,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기술 및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익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곽순명, 2000).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다음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재창, 1995).

첫째 영역은 서로를 알고 신뢰하기 위한 자기 노출, 자기 인식, 자기 수용, 그리고 신뢰 등의 활동이다. 이는 서로가 가까워지려면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방성은 자신의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에 달려 있다.

둘째 영역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며,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소통에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영역은 상호 수용과 지지를 다루게 된다. 상대방이 도움을 청할 때 최선의 반응은 무엇이며, 상대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관심을 표명해야 하는지, 또한 상대방이 궁지에 몰렸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여기에서 다루어진다.

마지막 영역은 상호간의 갈등과 문제 해결인데, 두 사람이 가깝고 서로 배려를 해도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다.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갈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오히려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증진시키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해

인정하고, 온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하며,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기술 및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익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곽순명,2000).

그러나 아동들에게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관계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매개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놀이이며, Leitenberg등(1977)의 연구에서도 아이들을 협동적으로 놀이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형제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소라, 2001에서 재인용). 놀이는 아동의 감정, 생각, 의견, 욕구 등을 표현하기에 가장 안전한 의사소통 형식이며, 놀이가 긍정적인 관계의 성립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놀이의 역할은 성취보다는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즐거운 상호작용의 본질과 관련된다(송영혜,1997). 놀이는 신체를 발달시키며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억압된 정서적 긴장을 방출시켜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 또한 놀이는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창의력을 촉진시켜 주며 자기통찰력을 발달시킨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배우게 하고, 놀이를 통해 적절한 성 역할 행동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람직한 성격특성을 발달시켜 준다(김미애, 류경화, 1997).이러한 놀이를 이용한 치료를 통해 아동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응적인 전략을 배우며, 이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방법을 더 적응적으로 접근하게 만든다(송영혜,1997).

이와 같이 놀이에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아동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박영준(2003)의 연구에서도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아동의 자기 노출과 공감 능력 및 전반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사회성 지위 및 집단 응집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곽순명,2000).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2017년~ 2018년 형제 놀이활동 이용자로 대상자별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

대상 아동	연령	성별	진단명	상호 작용 특성
A	7세	남	지적	- 형을 약 올림. - 형의 장난에 빠치거나 울어버리며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숙하게 대처함.
a	8세	남	비장애	- 동생에게 지시적, 명령적 어투 사용 - 동생의 장난을 처음에는 참으나 나중에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함.
B	6세	남	자폐	- 누나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 누나가 하는 것을 잘 뺏음.
b	7세	여	비장애	- 동생에게 지시적, 명령적 어투 사용 - 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함.
C	6세	남	자폐	-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함. - 형이 하는 것을 잘 뺏음.
c	7세	남	비장애	- 동생의 장난에 빠지거나 울어버리는 등 미숙하게 대처함. - 동생이 하는 것을 잘 뺏음.
D	5세	남	미등록 (다운증후군)	- 언어적 표현이 어려워 행동이 먼저 일어남 - 형이 하는 것에 관심은 많으나 발달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남.
d	8세	남	비장애	- 동생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 자신이 다 도와주려고 함. - 동생에게 위협한 것이 많다고 생각함.

※ A, a, B, b의 연령은 2017년 이용당시 연령.

2. 연구도구

1) 상호작용 관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Dunn과 Kendrick(1981)이 사용한 형제간 행동관찰 하위 범주를 참고로 박진희(2004)가 항목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 관찰 척도는 크게 형제간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과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찰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과 같다.

<표2> 형제 상호작용 관찰 내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영역	항목	조작적 정의
형제간 상호작용	형제에게 물건 주기/보여주기	자발적이거나 또는 요청에 따라 형제에게 장난감을 주거나 공유한다.
	긍정적인 언어	놀이를 금지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아닌 형제와 긍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웃기/미소	형제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거나 웃는다.
	애정적인 접촉	긍정적인 의도로 껴안기, 손을 잡기 등의 신체적인접촉을 한다.
	도와주기	형제가 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놀이를 돕는다.
	위로하기	형제가 슬퍼할 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위로한다.
	접근하기	공격적인 의도 없이 형제나 형제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0.5m 이내로 형제에게 접근한다.
	모방하기	형제의 놀이 및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한다.
	신체적 놀이에참여하기	형제와 함께 몸을 뒹굴거나 신체를 접촉한 상태로 놀이한다.
	게임에 참여하기	형제와 함께 보드게임이나 카드 등의 게임을 한다.
부정적 행동	방해하기	· 다른 형제의 놀이나 언어적인 제안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 다른 형제가 만든 장난감을 부순다.
	부정적인 접촉	형제를 향해 때리기, 꼬집기, 밀기, 찌르기, 장난감던지기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빼앗기	장난감으로 약 올리거나 형제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거나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다.
	부정적인 언어	다른 형제와 말다툼하거나 욕설하기, 형제의 행동에 항의하는 등의 부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2) 형제관계척도(SiblingRelationshipQuestionnaire;SRQ)

형제관계 척도(Sibl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SRQ)는 Furman과 Buhrmeser(1985)가 제작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송현정(1998)이 수정한 22 문항을 사용하였다.

SRQ의 4개 요인은 온정/친밀성,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그리고 경쟁의식(편애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제관계 척도는 5점 척도로서, 자신의 형제관계에서 문항이 진술된 내용들이 얼마나 자주 또는 많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많이 한다’를 5점, ‘많이 하는 편이다’를 4점, ‘조금 한다’또는 ‘조금 있다’를 3점, ‘별로 많이 안 한다’또는 ‘별로 많지 않다’를 2점, 그리고 ‘거의 안 한다’또는 ‘거의 없다’를 1점으로 채점한다. 단, ‘형제에게 보살핌을 받음’과 ‘형제에게 지배를 받음’에 관련된 세 문항(3,8,11)은 반대 방향으로 점수화 된다. 또한 어머니

의 차별행동 편애가 ‘거의 언제나 나’에 주어지면 5점, ‘형제보다 나’는 4점, ‘둘이 같다’는 3점, ‘나보다는 형제’는 2점, ‘거의 언제나 형제’이면 1점으로 채점되어 형제 편애보다는 자기 편애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SRQ의 4개 요인은 온정/친밀성, 갈등, 상대적 지위/권력, 그리고 경쟁의식(편애지각)이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온정/친밀감 요인

온정/친밀감은 친사회성, 애정, 동반, 유사성, 친밀성 등의 하위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갈등 요인

갈등 요인은 적대, 논쟁, 경쟁 행위 등의 하위 개념들을 포함한다.

(3) 상대적 지위/권력

상대적 지위/권력에는 형제를 돌봄과 형제에게 보살핌을 받음, 그리고 형제를 지배함과 형제의 지배를 받음의 네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4) 경쟁의식

경쟁의식은 실제로는 부모의 애정에 대한 경쟁의식으로서, 형제 중 한 명에 대한 부모의 편애지각을 의미한다.

3) 비장애 형제의 태도 평정 척도(Schaeffer Sibling Behavior Rating Scale, SSBRS)

수용적 태도, 거부적 태도 2가지 하위 영역에서 태도를 평가하며 각 영역마다 12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육자가 사전-사후 평가한다(Mchales, et al., 1986. 재인용).

3. 연구절차

본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은 1년(2017년 1월~12월, 2018년 1월~12월)으로, 대상자 모집이후 개별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여 주2회 50분으로 진행하였으며 연2회 외부활동을 진행하였다. 초기평가와 부모상담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2~3월)에 시행하였으며, 종결(11~12월)시점에 맞추어 종결평가를 진행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도에 대해 측정해 보았다. 2017년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 종결 후에도 변화된 부분의 유지성에 관련하여 사후 지도 상담을 진행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형제간의 상호작용

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형제들의 상호작용 변화를 행동관찰과 형제관계 척도(SRQ) 및 비장애 형제의 태도 평정 척도(SSBRS)를 이용하여 사전·사후에 비교 분석하였다.

1. 직접 관찰 장면에서의 형제간 상호작용

형제 상호작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활동시간동안 체크하는 상호작용관찰 척도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1)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

<표3> SRQ 긍정적 상호작용 행동빈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A	a	B	b	C	c	D	d
사전	17	11	7	8	12	9	10	19
사후	37	38	35	33	38	36	11	40

2)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

<표4> SRQ 부정적 상호작용 행동빈도 사전- 사후 검사 결과

	A	a	B	b	C	c	D	d
사전	23	24	33	35	23	21	10	21
사후	3	2	5	2	5	9	9	1

2. 형제관계 척도(SRQ)에서의 형제관계

형제관계 인식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 아동이 직접 평가하는 형제 관계 척도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표5> SRQ의 점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문항내용(총점)		A	a	B	b	C	c	D	d
온정/ 친밀감 (40)	사전	24	27	15	16	36	32	13	28
	사후	27	30	17	24	39	33	14	32
갈등 (25)	사전	19	21	23	20	17	18	12	17
	사후	16	19	22	19	10	13	11	16

3. 비장애 형제의 태도 평정 척도(SSBRS)에서의 형제관계

모가 인식하고 있는 형제관계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모가 직접 체크하는 비장애 형제태도 평정 척도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1) 수용적 태도

<표6> SSBRS 수용적 태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a	b	c	d
사전	15	10	13	11
사후	31	27	34	29

2) 거부적 태도

<표7> SSBRS 거부적 태도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a	b	c	d
사전	25	19	20	17
사후	8	6	9	9

본 연구 대상 아동들은 형제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는 아동으로, 형제간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보여 중요한 가정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모에 의해지속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었다. 이는 형제간 갈등이 가족이 맞부딪치게 되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라는 연구결과(Clifford,1959;Kelly& Main,1979)와 일치하였다. 또한 형제 중에는 형제간 부정적 상호작용 유형을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용하여 또래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었는데, 이는 부정적인 형제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구(Dunn,1988;McCoyetal., 1994; Lackwoodetal., 2001)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연구자는 아동의 형제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형제의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되며(Cicirelli,1995), 인간관계의 갈등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나 효과적인 인간관계 기술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는 연구(Pondy,1977)에 따라 네 쌍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형제에게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의 순서에 따라 자유놀이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과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의 변화, 형제관계 척도, 비장애 형제 평정 척도에 의한 변화 순으로 논의하겠다.

첫째, 자유놀이 상황에서 형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 작용의 변화는 형제의 놀이를 활동 시 형제 상호작용 관찰 내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만을 고집하거나 형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실수를 하거나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크게 화를

내거나 가벼운 욕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말을 대부분 무시하고 자신의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요구한 놀이를 수용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불리할 경우 장난감을 흘트려버리며 방해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중반으로 갈수록 보드 게임을 선택하여 놀이를 하였는데, 서로의 놀이를 수용하는 행동이 나타났으며,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게임에 질 경우 감정이 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놀이를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중반으로 갈수록 놀이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나타났으며, 상대방의 실수에 웃음으로 수용해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두 프로그램이 실시된 초기부터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함께 하는 작업을 통해 형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김미영,2000;박영준,2003), 의사소통 향상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곽순명(2000)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의사소통 기법 훈련이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현숙(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 스스로가 보고한 형제관계 척도에서 나타난 형제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네 형제 모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온정/친밀성 요인의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증가하였으며, 갈등 요인 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형제 D의 경우 갈등 요인 점수에서 다른 두 형제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발달적인 문제의 영향으로 보였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네 형제 모두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다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장애형제 행동 태도 척도에서 나타난 형제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활동 실시 전 장애아동의 충동성이나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해서 비장애 아동은 거부적 태도를 보였으나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수용적으로 태도가 증가하고 거부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은 형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형제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형제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해, 네 형제 모두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감소하였다.
- 둘째, 형제관계 척도를 통해 나타난 형제관계의 변화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온정/친밀감 요인 점수가 증가 하였으며, 갈등 요인 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비장애 형제의 태도 평정 척도를 통해서 장애아에 대한 모가 느끼는 비장애형제의 태도에서 수용적 태도는 증가하고 거부적 태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네 형제로 제한되어 있어 치료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수의 형제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 본 연구는 형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기질, 부모의 기질, 아동의 양육 환경 등의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종결이후 형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향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또래 대상과의 공감 활동을 통하여 비장애형제의 심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순명 (2000).놀이중심의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은정 (1996).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 청소년의 인성 특성. 미간행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현주 (2003).형제구조어머니의 형제 대우 및 또래 유능성과 형제 상호작용의 관계.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희 (1987).아동심리학. 서울:박영사.
- 김미애,류경화 (1997).놀이지도. 서울:동문사.
- 김미영 (2000).의사소통훈련이 중학생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삼현 (1998).의사소통기법훈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희 (1992).가족안에서 겪게 되는 경험의 차이와 형제관계. 공주대 논문집,30,369-383.
- 김유경 (1992).TA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아 (1997).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미간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라 (2001).형제갈등의 해결과정과 어머니의 역할. 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희 (2005). 놀이 중심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형제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준 (2003).놀이중심과 동화-연극중심 의사소통훈련이 아동의 대인 관계 및 교회생활태도에 미치는 효과.미간행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경 (1991).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자아실현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자 (1998).발달심리학.서울:학지사.
- 송영혜 (1997).놀이치료 원리.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 송현정 (1998).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아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경 (2002).구조화된 놀이치료 기법.서울:모니카 아동가족지원 연구소.
- 유영주 (1998).신가족관계학.서울:교문사.
- 이용암 (1994).의사소통기법 훈련이 대인불안 학생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운주 (1999).형제간 갈등에 대한 어머니의 해결전략과 신념에 관한 연구. 미간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숙 (2002).의사소통기법 훈련이 중학생의 대인갈등 대처 방식에 미치는효과. 미간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조 (1998).유아의 형제자매 구성과 자존감과의 관계.미간행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록 1. 형제 상호작용 행동 관찰 기록지

이름 :	관찰날짜:																			전체시간:			
상호작용 행동 : 긍정적 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0	
물건주기/ 보여주기																							
언어적																							
웃기/미소																							
애정적인 접촉																							
도와주기																							
위로하기																							
접근해서 앉기																							
모방하기																							
신체적 놀이참여																							
게임참여																							
상호작용 행동 : 부정적 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0	
방해하기																							
부정적인 접촉																							
빼앗기																							
부정적인 언어																							

부록 2. 형제관계척도(SRQ) 질문지

☺다음을 잘 읽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 1.나이가 몇 살입니까? 세
- 2.성별은? ①남 자 ②여 자
- 3.여러분의 가족에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몇 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이상

☺나의 형제관계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를 하세요.☺

(형제가 셋 이상일 경우 한 사람만을 생각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 1.평소에 어머니께서 더 잘 대해 주시는 것은 나인가, 나의 형제인가?
①대부분 형제 ②나보다는 형제 ③둘이 같다 ④형제보다는 나 ⑤대부분 나
- 2.내가 나의 형제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3.나의 형제가 나에게 할 일을 지시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4.나의 형제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신경을 써주나?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5.나와 형제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함께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6.나와 형제는 서로 화내고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7.나와 나의 형제는 모든 일을 서로에게 얼마나 이야기하나?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8.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나 돕고 의지하나?
①거의 없다 ②별로 많지 않다 ③조금 있다 ④많은 편이다 ⑤아주 많다
- 9.어머니께서 평소에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나의 형제인가, 나인가?
①대부분 형제 ②나보다는 형제 ③둘이 같다 ④형제보다는 나 ⑤대부분 나

10. 형제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1.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형제가 가르쳐 주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2. 나와 형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3. 나와 형제는 서로에게 얼마나 비겁하고 심술궂게 행동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4. 나와 형제는 비밀이나 속마음을 얼마나 서로에게 털어놓는가?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5. 평소에 어머니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나의 형제인가, 나인가?
① 대부분 형제 ② 나보다는 형제 ③ 둘이 같다 ④ 형제보다는 나 ⑤ 대부분 나
16. 나의 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7. 내가 형제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8. 형제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19. 나와 나의 형제는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정을 느끼고 있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20. 시간이 있을 때면 나와 형제는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21. 나와 형제는 서로 괜히 트집잡고 잔소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
① 거의 없다 ② 별로 많지 않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은 편이다 ⑤ 아주 많다
22. 나와 형제는 서로 얼마나 말다툼을 많이 하나?
① 거의 안 한다 ② 별로 안 한다 ③ 조금 한다 ④ 많이 한다 ⑤ 아주 많이 한다

부록 3. 비장애 형제 태도 평정 척도 질문지

아래의 질문은 평소 장애형제를 대하는 비장애아동의 태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행동의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oo” 칸에 장애아동 이름을 넣어주세요.

문항	항상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OO이를 기쁘게 하려고 무엇인가 한다.					
2. OO이를 귀찮게 하거나 짜증나게 괴롭힌다.					
3. OO이를 위해 기꺼이 심부름하고 호의를 베푼다.					
4. OO가능하면 OO이를 돕는다.					
5. OO이에게 화를 낸다.					
6. OO이의 문제보다 좋은 점을 더 많이 본다.					
7. OO이가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에 질투한다.					
8. OO이가 화를 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9. OO이와 함께 놀거나 농담할 때 장애(혹은 나이차)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					
10. 재미있는 것을 OO이에게 보여주거나 말한다.					
11. 가능하면 OO이를 피하려 한다.					
12.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OO이를 도와준다.					
13. OO이를 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					
14. OO이와 사소한 일로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논쟁을 벌인다.					
15. OO이가 진전을 보이면 기뻐한다.					
16. OO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한다.					
17. OO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불평을 한다.					
18. OO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19. 사람들 앞에서 OO이와 함께 있는 것에 당황한다.					
20. OO이와 함께 있어야만 할 때 기분 나쁜 표정을 하거나 토라진다.					
21. OO의 장점보다는 문제점이나 장애를 더 많이 지적한다.					
22. OO을 부끄러워한다.					
23. OO이를 참여시키는 계획을 세운다.					
24. 새로운 기술을 OO이에게 가르친다.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가족지원팀 미술
박 수 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자존감에 대한 이해
2. 정서발달 과 미술심리
치료의 대한 이해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문제 및 가설
2. 연령층의 따른 연구 대상선정
3. 그림검사 및 문장완성검사
4. 활동 결과물 수집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 부록 1. 문장완성검사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매체는 교육과 치료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장애 아동과 부적응아동을 중심으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예술적 접목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는 미술매체가 지니는 장점 즉 아동에게 흥미를 제공하면서 심리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미술치료의 목표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지하여 창의적이고 심리적인(Lowenfeld 1982; Kramer 19931); Malchiodi, 1997; Rubin 1972)2) 활동과 교육적인 접근으로 장애인을 돕는다. 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정서발달 등의 행동에 대한 자발적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부적응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되기 쉽다. 부적응이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 반항이나 도피, 혹은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주위 환경이나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김나영 · 이승희, 2001).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문제행동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미술심리 치료는 정서적 해방감을 주고 자신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이부연, 2000).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른 미술심리 치료가 되는 영역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 연령층에 대한 미술치료는 다양한 이론을 필요로 한다. 아동은 변화하는 성장기에 있고, 청소년은 사춘기에 따른 심리적 변화와, 갈등 및 학교생활에서 의 문제점 등이 있으며, 성인은 일과 책임, 사회에 적응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가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사회 정서적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정서에서의 변화, 성격에서의 변화를 포함한다. 어머니의 접촉에 대한 반응으로서 영아의 미소, 놀이 친구에 대한 어린 남아의 공격적인 행위, 여아의 자기주장 발달이 모두 정서적 발달을 반영한다. 이렇듯 아동의 발달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술치료에 있어서는 아동의 발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술은 창의적인 활동으로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이부연, 2000)4) 치료적 교육과 특수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교육과 예술적 심리치료에 적용되고 있다(Lowenfeld, 1957). Ulman(2001)은 미술치료는 장애인 재활 그리고 심리치료에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으로 받아지는 감정들이 아닌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식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미술심리치료를 받는 대상자 3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각 연령층의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변화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필요한 치료가 되도록 그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존감에 대한 이해

가. 자존감에 대한 이해

자존감 강화를 위한 미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존감의 개념을 알아 보고 자존감의 발달과 중요성, 자존감과 미술교육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 자존감의 개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로운 존재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며 이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자존감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한 로젠버그(Rosenberg,1965)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정수경,2010,p.13).

즉 자존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로 나타낸다(이선심,2004 pp.30~31).이처럼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자아 효능감이라고 한다.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 집중하고 끈기있게 노력하여 성공의 경험을 해내고 그 결과 긍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형성하게 된다.

자아상이란 자신의 존재,능력 또는 역할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견해이다. 프로이트(Freud)는 때때로 자아(ego)와 자아상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자아는 주로 현실을 파악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적인 면을 의미하는 반면에, 자아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자아와 구별된다. 인간중심의 상담 치료를 발달시킨 심리학자 로저스(Rogers)는 자아상을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 즉 현실자아(realself)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즉 이상적 자아 (idealself)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한개인 안에 있는 현실자아와 이상자아의 차이는 불안을 유발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일치할수록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EBS 아이의 사생활 제작팀,2009,pp.341~342).

미국 하버드 대학 교육학자 조세핀 김은 “자존감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 가는데 꼭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념의 집합이다.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자기가치와 자신감이다. 그것이 바로 자조감이다”라고 하였다. 자기가치란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며 자신감은 자기 가치를 토대로 나는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자존감을 발현시키거나 상승시킨다(EBS 아이의 사생활제작팀,2009,pp.346~347).

따라서 자존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누적 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정서발달 과 미술심리 치료의 대한이해

가. 정서발달의 개념

정서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지속 상태로서 생리적 변화나 심리상태 그리고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태도까지 포함된다(이명은,2005).최미경(2004)은 정서란 감정의 흥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외적 자극이나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정서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행동에기저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아동의 원만한 일상생활과 적응을 위해서는 지적능력과 지적활동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하는데 이러한 지적능력과 지적활동에 정서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수연(2006)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아동의 경우 지적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닌 아동은 지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정서는 과거 자신이 지니고 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느낌과 감정을 타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글이나 그림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 전달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먼저 아동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내면적으로 정서불안, 우울, 고립 등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는 행동장애나 품행장애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메이어 & 살보비(Mayer& Salovey,1990)은 그의 연구에서 정서지능 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이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문용린(1996)은 정서지능에 대한 메이어 & 살보비(Mayer & Salovey, 1990)의 모형을 바탕으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 능력, 정서활용 능력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였다.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 능력, 감정이입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1>은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구성요소 모형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문용린(1996)의 정서지능 구성요소 모형

정서지능영역	내 용
정서인식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
정서표현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감정이입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정서조절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정서활용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

출처:김시원(2015)

박규미(2010)는 그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교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조절을 못해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고립되어 또래와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이나 또래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보이는 아동의 정서지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아동기 성장에 주요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서는 아동기에 빠르게 분화·발달한다. 이러한 시기에 다양한 생활경험과 자극을 통해 정서를 발달시키는 것은 아동의 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과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이해하여 거기에 알맞은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서 발달은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아동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서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가. 연구문제

1. 미술심리치료는 기법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활동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인가?
2. 미술심리치료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폭넓은 시야 및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 연구가설

1. 미술심리치료는 기법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활동이 정서발달에 유의미하게 향상 될 것이다.
2. 미술심리치료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폭넓은 시야 및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 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다

2. 연령층의 따른 연구 대상선정

가. 연구대상

대상자	연령	진단명	특징
아 동 (A 김00)	7세	미등록	*가족관계:부,모 *뇌와 장기의 성장이 미숙 (또래 아이들 보다 키가 작음) *자존심이 강한 편이나, 자존감이 낮아 자신에 대한 주변 평가를 인식하여 신체적 활동을 요하는 경우 강한 회피가 나타남. *미세소근육 활동이 미약하여, 낮은 자존감 치유를 위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 (B 오00)	18세	지적장애 3급	*가족관계:부,모,언니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 복용. *SNS를 통해 외부 낯선 사람들(이성)과의 만남이 있었음.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음. (모는 성적인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함) *심리 및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다각도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성 인 (C 김00)	41세	지적장애 2급	*가족관계:배우자,아들 *배우자 지적장애 *아들과 갈등이 있으며,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않음. *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힘들어함. *자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함. *가족들과 갈등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함.(아들이 잘되길 원하심)

나. 연구방법

- 1)연구장소 : 미술활동실
- 2)연구기간 : 2018년 3월 - 2018년 9월
주1회 50분수업 20회진행

3.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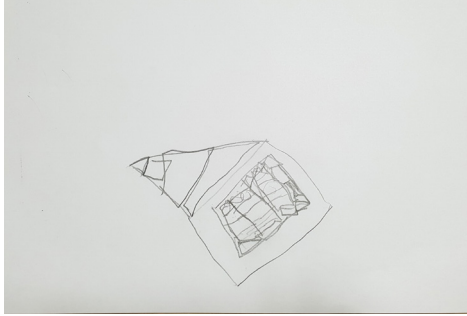
3) 활동프로그램

회기	활동명	활동목표	사용매체
1	사전 HTP그림검사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음열기	A4용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2	사전 문장완성검사	문장을 통한 긍정적 사고의 표현표출	A4용지, 연필, 지우개
3	만다라 채색화	다양한 색감을 통한 자기 감정의 표현	만다라그림 용지 색연필, 크레파스
4	물고기 가족화	가족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 및 가족의 역동성을 알아보고 심리적 갈등을 파악	A4용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5	나를 표현하기	자기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A4용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6	감정차트 및 감사 표현화	다양한 감정의 인식을 통한 표현화 상황이해를 통해 적절한 감정표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검정도화지, 크레파스 색연필
7	나만의 탈 채색활동	내담자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내면의 자신을 이해하고 직면	탈, 물감, 스티커, 크 레파스, 색연필
8	소중한것들 표현하기	나한테서 소중한 것들의 대한 표현하면서 회상하기	화지, 싸인펜, 연필 크레파스
9	라인 찰흙 표현화	촉감, 탐색을 통한 입체적 표현화	라인찰흙, 검정도화지
10	사탕목걸이 만들기	타인의 대한 긍정적 생각 및 선물 통한 따뜻한 마음 이해하기	사탕,사탕비닐,리본끈
11	자유채색 표현화	색채를 통한 나의 감정 표현화	화지, 크레파스, 물감
12	동화책 표현화	글과, 그림을 통한 나만의 동화책 표현화	화지, 크레파스, 물감 동화책 참고
13	좋은 것, 싫은 것	내 감정을 이해하기 내가 싫고 좋음을 통해 정서적 표현화	화지, 싸인펜 색연필
14	합동작품 거미판 꾸미기	합동작품을 통한 타인의 대한 긍정적 이해하기	물감, 스폰지, 캔버스
15	먹물 그림화	먹물 그림을 통해 번지는 효과 및 자신의 무의식 탐색	먹물, 캔버스
16	실 그림화	추상적인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정서적 표현	물감, 화지, 실
17	만다라 채색화	색깔을 통한 내 감정 이해 및 스트레스 감소	만다라그림 용지 색연필, 크레파스
18	사후 HTP그림검사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타인들과 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음열기	A4용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크레파스
19	사후 문장완성검사	문장을 통한 긍정적 사고의 표현표출	A4용지, 연필, 지우개
20	마무리활동 및 자기감정 소감 나누기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의 대해 생각해 보고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관계 및 나를 통한 자존감을 향상	다과, 이야기 나누기

3. 그림검사 및 문장완성검사

가.그림검사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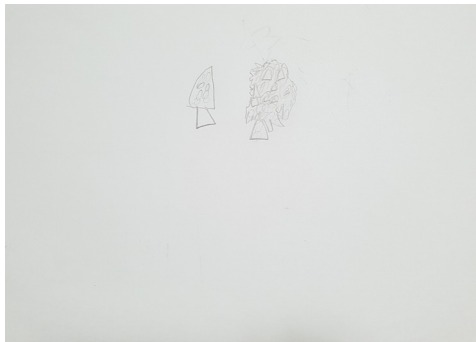


아 동(A 김00) 집-사전검사



아 동(A 김00) 집-사후검사

-위 그림과 같이 집-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는 집 지붕이 불안정하게 표현이 되었으며 창문은 많이 표현하면서 집하나만 표현함, 이 그림에서 날씨는 흐리다고 표현하며 큰집이라고 표현함,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함. 사후 집 그림 검사에서는 다양한 집 크기를 그리면서 지붕에 하트, 별, 꽃그림을 그려주면서 표현하며 이 그림에서 날씨는 바람은 불지만 따뜻한 날씨라고 표현함, 점차 그림이 섬세해지면서 표현하는 부분도 넓어짐



아 동 (김00) 나무-사전검사



아 동 (A 김00) 나무-사후검사

-위 그림과 같이 나무-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는 소극적으로 표현하며 하늘 부근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붕 떠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함, 사후에는 화지에 꽉 채우면서 표현하며 다양한 나무 형태들로 그림을 그리면서 재미있게 표현함, 자기가 그린 그림을 만족해하며 다양한 모양을 그리면서 진행함. 사전 비해 사후 그림에 완성도 있게 표현함,

3.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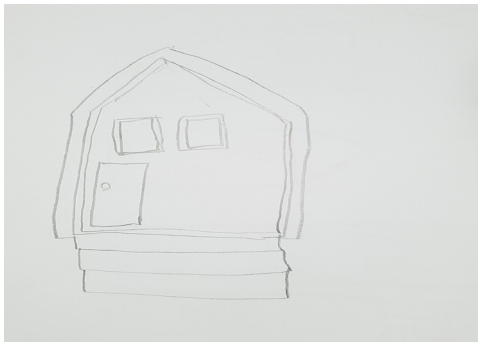
아 동(A 김00) 사람-사전검사



아 동(A 김00) 사람-사후검사

- 위 그림과 같이 사람-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그림을 작게 좌측으로 표현하며 사후에서는 하트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표정을 밝게 그림을 표현하면서 진행함. 사전보다 형태가 점차 커지면서 이야기 있는 그림으로 표현함.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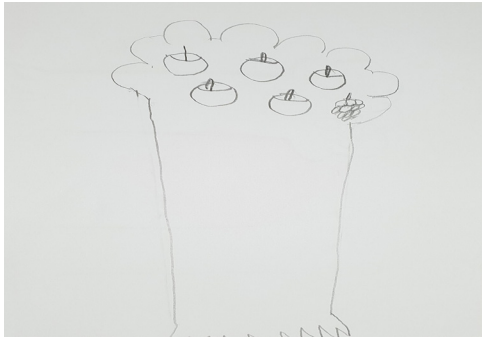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집-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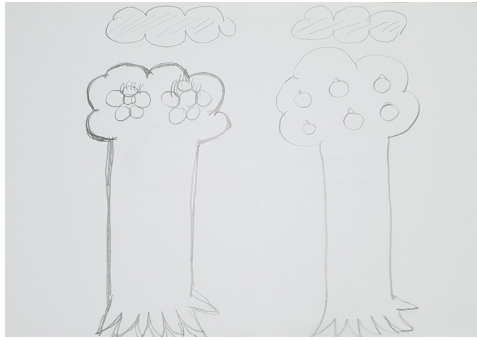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집-사전검사

- 위 그림과 같이 집-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는 계단이 있는 큰집을 표현하며 나름대로 오각형 정원의 집을 표현하면서 진행함. 사후에는 날씨까지 표현해주면서 아파트 모양의 여러 집을 그리면서 도시에 있는 집을 자유롭게 표현함. 크기도 다양하며 화지에 재미있게 표현함,



청소년(B 오00) 나무-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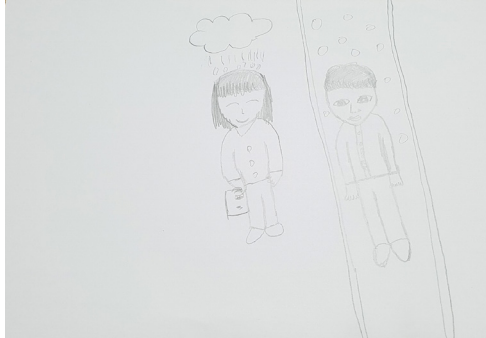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나무-사전검사

-위 그림과 같이 나무-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는 나무 하나그리면서 과일 나무로 표현하며 중간에 듬직하게 그려주면서 표현함, 사후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를 그리면서 표현하며 날씨도 그림을 그리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진행함. 나무 하나는 채림이 나무 또 다른 나무는 친구 나무라면서 표현함. 이때 친구 누구냐고 묻자 엄마나무라고 수정함. 점차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하며 고민, 걱정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극적인 성격으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점차 그림은 밝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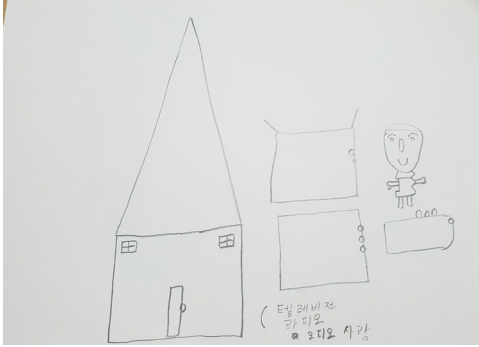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사람-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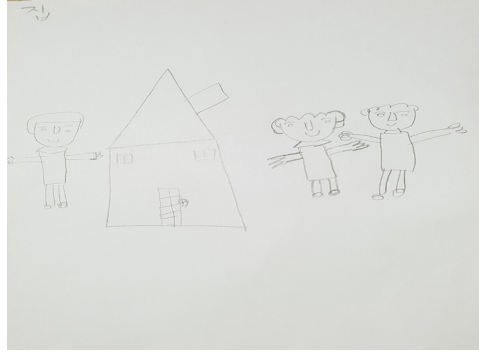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사람-사전검사

-위 그림과 같이 사람-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는 여자 친구 한명만 중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며 사후에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면서 친구라고 표현함. 사전, 사후 비교해보면 사후그림 검사에서는 주로 날씨를 표현해주면서 무언가 섬세하게 표현함, 또한 이성 친구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성의 대한 부분은 좋아하며 그림에서는 자꾸 무언가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남.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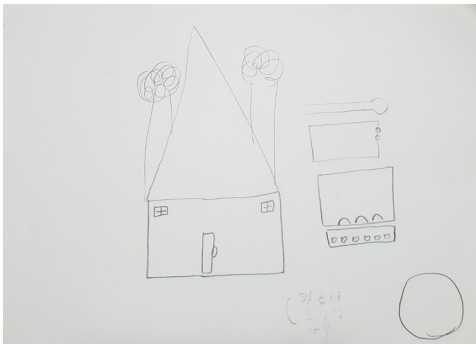


성 인(C 김00) 집-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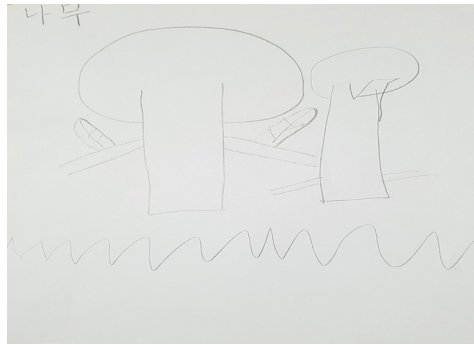


성 인(C 김00) 집-사후검사

-위 그림과 같이 집-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그림검사에서는 집을 크게 그리고 집안에 물건들을 글씨로 표현하며 진행함. 또한 사람도 자기 모습만 나타났고 사후에는 온가족이 표현이 되면서 그림의 대한 완성도 및 섬세하게 표현 하려고 함, 사후 그림에서 가족들이 집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표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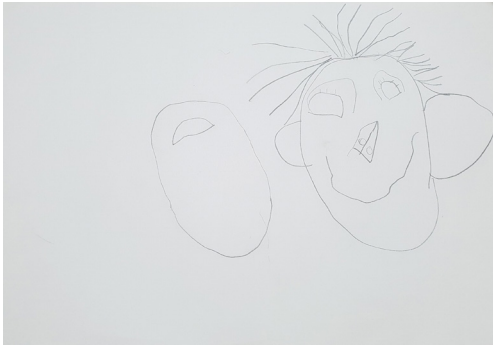


성 인(C 김00) 나무-사전검사



성 인(C 김00) 나무-사후검사

-위 그림과 같이 나무-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그림검사에서는 집하고 나무 그림을 연결하여 그림을 표현하며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 정리가 안됐지만 사후에서는 그림 정리가 되면서 큰 나무, 작은 나무 그리고 풀도 그리면서 자연의 대한 그림을 담으면서 표현함, 사후 그림에서 어떤 나무라고 묻자 낙엽이 많은 나무라고 표현하며 튼튼한 나무라고 함. 사전 사후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안정되게 변화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음,



성 인(C 김00) 사람-사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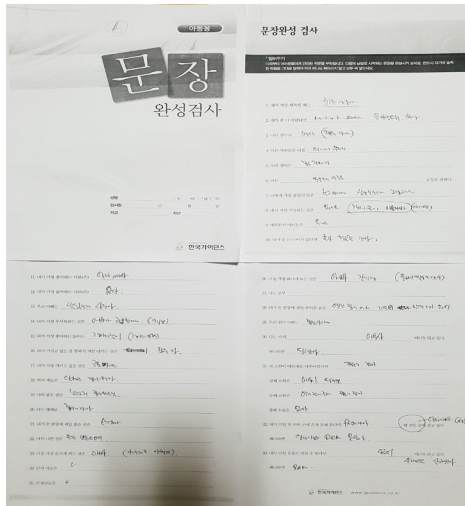


성 인(C 김00) 사람-사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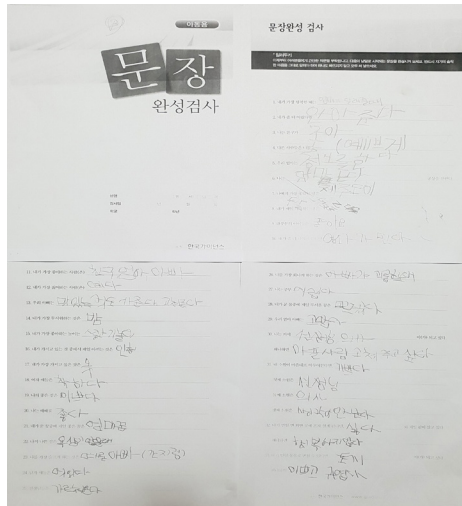
- 위 그림과 같이 사람-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그림검사에서는 얼굴만 그리면서 특징적 있게 표현하며 머리카락의 강조하면서 표현함. 사후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표현하며 행복이라는 멘트가 적혀있는 풍선 그림을 그려주면서 나름대로 현재의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바라는 글을 적으면서 표현함. 또한 그림의 대한 부분에 자신없어 했지만 사전 사후 그림 검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자신 있게 표현하려고 하며 자신감이 많아짐. 그림의 대한 내용 설명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정의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음.

가. 문장완성검사

<<아동>>



아 동(A 김00) 문장완성검사-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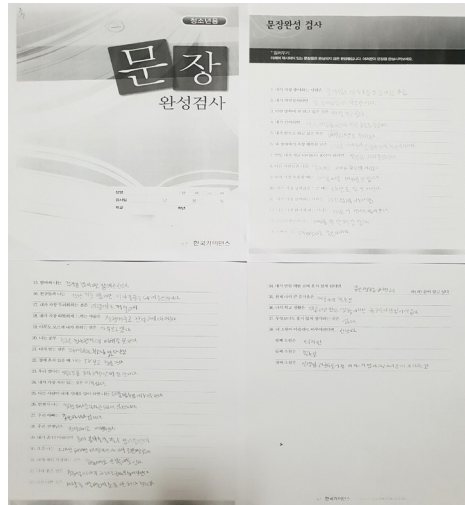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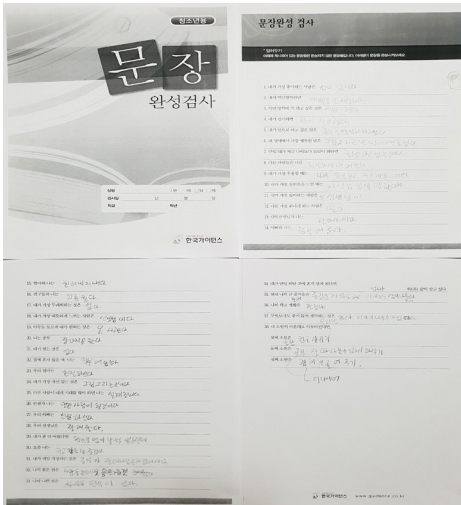


아 동(A 김00) 문장완성검사-사후

- 위 문장완성 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의 비해 사후에 집중있게 대답하면서 문장완성도 점차 길게 표현됨. 또한 내용이 점차 있었으며 섬세해짐. 문장완성검사에서 남자애들은? 선생님들은? 완성하는 부분에 나린이는 사전에 모르겠다라고 표현하며 사후에는 각 대답을, 멋있다,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사실적인 대답을 표현하며 진행함. 거의 사전 사후 문장검사는 대답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다.

3. 미술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①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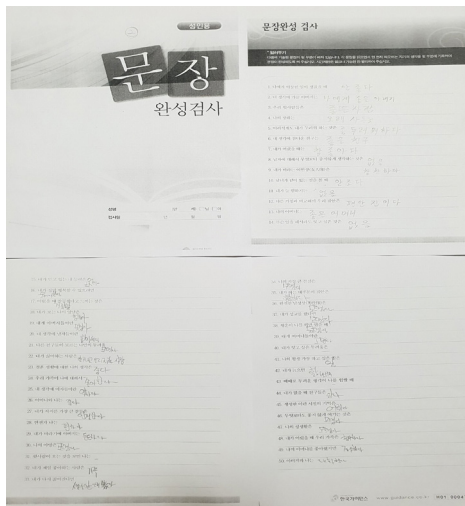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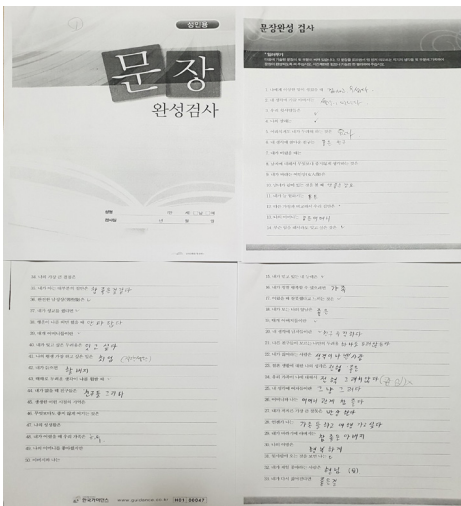


청소년(B 오00) 문장완성검사-사전

청소년(B 오00) 문장완성검사-사후

- 위 문장완성 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의 비해 사후에 신중하게 대답을 하며 몇가지 완성 검사에서는 대답이 중복되게 표현하기도 함. 이번방학에 하고 싶은 거 묻는 과정에서 여행가고 싶다고 사전사후 공통점으로 표현되며 단어 선택에서 비슷하게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함, 사전 사후 대답이 바뀐 경우도 있으며 사전에 학교가는 부분에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후 문장완성 검사에서 요즘나는? 문장에 학교가게 즐겁다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함.

<<성인>>



성인(C 김00) 문장완성검사-사전

성인(C 김00) 문장완성검사-사후

- 위 문장완성 검사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의 비해 문장 완성을 많이 하려고 했으며 거의 사전과 중복 되게 완성을 하며 특히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생각을 하며 표현하는 부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 함. 도움을 청해 사후는 문장 완성을 완성했지만 나름 뿌듯해하며 뭔가 해냈다는 기분에 미소를 띄우면서 표현함. 거의 단답형 문장 완성 대답이 많았음,

4. 활동 결과물 수집 1

			
성 인(C 김00) 물감짜서 색채 표현화	아 동(A 김00) 물감짜서 색채 표현화	청소년(B 오00) 물감짜서 색채 표현화	성 인(C 김00) 내가 좋아하는 단어
			
청소년(B 오00) 탈 표현화	성 인(C 김00) 탈 표현화	아 동(A 김00) 탈 표현화	성 인(C 김00) 병풍만들기
			
청소년(B 오00) 나(자신) 표현화	성 인(C 김00) 나(자신) 표현화	아 동(A 김00) 나(자신) 표현화	청소년(B 오00) 모자이크
			
아 동(A 김00) 감사의 날	청소년(B 오00) 텔갈코마니	아 동(A 김00) 사탕목걸이 만들기	성 인(C 김00) 만다라 채색화

활동 결과물 수집 2

<p>청소년(B 오00) 내감정 이해하기</p>	<p>아 동(A 김00) 물고기 가족화</p>	<p>아 동(A 김00) 만다라 채색화</p>	<p>성 인(C 김00)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p>
<p>청소년(B 오00) 색채심리 나의 감정</p>	<p>아 동(A 김00) 나비 채색화</p>	<p>아 동(A 김00) 모빌 만들기</p>	<p>청소년(B 오00) 꽃의 대한 변화</p>
<p>아 동(A 김00) 나만의 꽃병 꾸미기</p>	<p>아 동(A 김00) 물고기화</p>	<p>청소년(B 오00) 우리가족 무지개</p>	<p>성 인(C 김00) 동화책 한장면</p>
<p>아 동(A 김00) 동화책 한장면</p>	<p>아 동(A 김00) 거미관 꾸미기-합동작</p>	<p>청소년(B 오00) 문장완성검사 모습</p>	<p>청소년(B 오00) 감사의 날</p>

활동 결과물 수집 3

			
성 인(C 김00) 바다 표현화	아 동(A 김00) 구름타고 떠나요	아 동(A 김00) 먹물화	성 인(C 김00) 내감정의 변화
			
성 인(C 김00) 지금 현재의 모습	성 인(C 김00) 소시오 그램	성 인(C 김00) 꽃 표현화 색채심리	아 동(A 김00) 손가락 감정 표현화
			
청소년(B 오00) 마무리시간- 인물화	성 인(C 김00) 선 표현화	청소년(B 오00) 소시오 그램 색채심리	아 동(A 김00) 나만의 꽃 채색
			
아 동(A 김00) 물고기 가족화	청소년(B 오00) 꽃 이야기-타인의 대한 긍정적	청소년(B 오00) 넓은 판에 표현화 -감정변화	청소년(B 오00) 실그림-추상화

IV.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연구는 본관에서 진행되는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아동, 청소년, 성인 3명 대상자들로 각 연령층의 기법을 활용한 자존감 향상 활동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2018년도 3월부터 9월까지 20회기 회기별 50분 진행되었으며 계획되는 연구 목차에 맞춰서 진행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그림검사, 문장완성검사, 프로그램 시간에 진행되는 결과물로 변화에 따른 결과를 알 수가 있었다, 큰 변화에 따른 결과 보다는 사전 사후 그림 검사 하면서 보편적으로 그림들이 풍성해지거나 섬세해지고 감정의 변화가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문장완성검사에서도 사전의 비해 문장들이 부드러워 지거나 완성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변화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 회기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도 재미있게 진행했으며 다양한 활동 속에 자기 감정을 표현 표출을 하고 색 사용도 밝아지면서 할 수 있다 라는 의미 속에 자존감 향상은 좋아졌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술심리치료는 기법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활동이 정서발달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2. 미술심리치료 다양한 기법을 활용 하여 폭넓은 시야 및 일상의 즐거움을 통해 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V. 결과 및 제언

자아 존중감, 자기표현력, 관계의 향상 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나’와 ‘타인’과 관련한 미술활동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보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다면 위에 언급한 세가지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으로 심리적 접근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내면적 감정들로 변화보다는 활동의 대한 자신감, 자존감 향상들로 중점을 두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주고 반복 연습을 통해 기능을 올려서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남선아(2016년) [초등학교 ‘관심군’ 아동의 정서 발달을 위한 미술활동 지도 방안연구]
- 이현희(2013년) [자존감 향상과 관계형성 강화를 위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김인자(2012년) [발달신경심리학적 분석에 의한 미술치료 연구]
- 한국청소년예술연구소 편저(2016년)
[특수 아동·청소년 미술심리치료 사례분석], 컬처스토리
- 최외선, 김갑숙, 최선남, 이민옥(2006)
[미술치료기법], (주)학지사
- 김동연, 공마리아, 최외선(2002년)
[HTP 와 KHTP 심리진단법], (도서출판)동아문화사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직업지원팀 사회복지사
신 사 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2.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의의

III. 연구방법

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및 최근
구인·구직 취업 동향 분석

IV. 논의 및 제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직업이란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증가 이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인이 되면 누구나 직업을 갖고자 노력한다.

성인기 발달장애인들도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취업전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017년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장애인구는 2,446,080명으로 경증장애인은 1,682,279명(68.7%), 중증장애인은 747,084명(31.3%)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경제활동 인구로 취업한 경증장애인은 709,367명(42.1%), 중증장애인은 151,391명(18.4%)에 불과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22.9%, 자폐성장애는 22.0%으로 타장애 영역과 비교하여(지체장애 45.9%, 시각장애 43.1%, 청각장애 33.4%, 언어장애 30.7%)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주로 사회초년생인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15세에서 30세 사이의 발달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 수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 순위를 비교하였을 때 지적장애는 고용 상위 10번째, 자폐성 장애인은 상위 11번째로 하위 수준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인 동시에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통칭되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현실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상당수가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미취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장애인고용공단, 201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전환 및 취업의 성공적 요인들을 밝히고자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우선 박승희 외(2012)는 개인적인 역량 외에도 학교, 학교 외 기관, 가족이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학교가 신변처리기술 연습, 직장 내의 예절교육, 직업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환 준비기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학교 외 기관은 특수교육 시스템을 벗어난 이후의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의 성품, 분위기가 발달장애인의 전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으며 사회적으로는 전환 관련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취업에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전인수(2013)의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근로자의 직업 성공요인으로 취업 입문 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자아상, 취업 의지, 직업

능력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는 국가정책 관련기관의 노력 및 특수학교 직업교육 활성화가, 그리고 특수교사와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영선과 김환희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 기관간에 협력하여 실습기관을 연계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고용의 문제점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시설의 편의 개선에 그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취업을 통해 고용을 획득하고 그 고용 유지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 취업은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송지연, 2018)

위의 내용에서 보듯 기존의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사회 제도, 제한적인 취업 기회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장애자녀의 전반적인 삶에 관여하는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자녀의 취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취업으로 연계되는지와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의 취업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취업연계를 하기 위한 업체 발굴이나 고용유지, 새로운 직업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을 얻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 기관이나 사회제도 등 외부적 환경 이외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정 안에서 성인기장애자녀의 취업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복지관에서 향후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취업연계를 할 경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장애인들의 구인·구직 취업 동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성인기 자녀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3.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본인의 의사나 물리적, 제도적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호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영향인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개요

장애인에 있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애인 경제활동 통계는 장애인 고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①

용정책 대상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기본통계이고,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이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따라 장애인 경제활동조사를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수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조사목적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한다.

다. 조사대상

2017년 5월 15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라. 조사내용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별로 속성 파악

<표1>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구 분	주요 조사항목
A. 인적사항	성별, 생년월일, 학력, 졸업여부, 결혼상태
B. 장애정보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C. 경제활동상태 판별	일하였음 여부,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지난 4주 내 구직여부
D. 취업자	취업시간, 추가취업 또는 전직 희망 여부, 향후 일할 의사 등
E. 실업자	지난 주 취업가능성 여부, 과거 취업경험 유무 및 이직시기, 희망 고용 형태 등
F. 비경제활동인구	지난 주 취업희망 여부 및 취업가능성 여부, 향후 일할 의사 등
G. 고용서비스 욕구	취업(또는 유지)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즉시 참여가능성 및 추가 지원사항 등
H. 가구정보	가구주, 총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마.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바.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 2017. 5. 14(일) ~ 2017. 5. 20(토) 7일간

본 조사기간 : 2017. 5. 22(월) ~ 2017. 7. 9(일) 7주간

사. 조사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주관

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의 의의

가. 장애인의 정확한 정책대상 규모 파악 가능

장애인 대상으로 경제활동 분야만을 특화하여 실시된 조사로는 국내 유일

- 장애인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이외에 비정규직근로자, 불완전취업자, 구직단념자 등 주요 장애인 정책대상의 규모 파악이 가능.

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준수

다. 선진화된 검증방법을 통한 데이터의 질적 제고

Ⅲ. 연구의 방법

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및 최근 구인·구직 취업 동향 분석

가.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총괄

○ 2017년 5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460,080명이며, 이 중 38.7%가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취업자는 898,475명으로 고용률은 36.5%, 실업자는 54,533명으로 실업률은 5.7%p

○ 장애인 경활률,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약 1.5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대비 장애인 경활률은 0.2%p, 고용률은 0.4%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0.8%p 하락함.

- 2016년 대비 전체 인구의 경활률은 0.3%p, 고용률은 0.3%p 상승, 실업률은 0.1%p 하락함.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표 2>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p)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 인구	2015년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9	34.8
	2016년	2,441,166	941,051	880,090	60,961	1,500,115	38.5	6.5	36.1
	2017년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증 감	18,914	11,957	18,385	-6,428	6,957	0.2	-0.8	0.4
전체 인구	2015년	42,975,000	27,211,000	26,189,000	1,022,000	15,764,000	63.3	3.8	60.9
	2016년	43,387,000	27,455,000	26,450,000	1,005,000	15,932,000	63.3	3.7	61.0
	2017년	43,735,000	27,828,000	26,824,000	1,003,000	15,907,000	63.6	3.6	61.3
	증 감	348,000	373,000	374,000	-2,000	-25,000	0.3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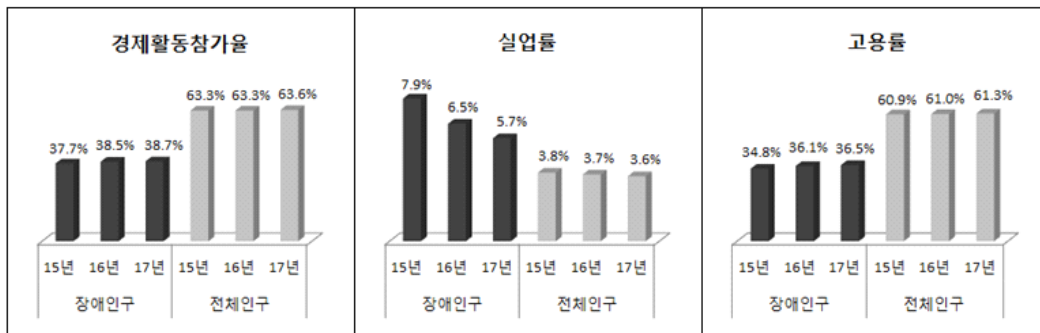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증감은 '16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간년도 5월 참조)

[그림 1] 장애인, 전체 인구 경제활동상태 비교(15세 이상 인구)



○ 같은 기간 15~64세 장애인에 대해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하면, 경제활동참가율 52.2%, 고용률 49.2%, 실업률 5.8%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1.6%p, 고용률은 1.0%p, 실업률은 0.9%p 하락하였음.

○ 2017년 15세 이상의 경우 전체 인구나 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는 24.8%p 인 반면, 15~64세의 경우 그 격차는 17.8%p 임.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나 장애인의 격차는 15세 이상에서 24.9%p인 반면, 15~64세는 17.4%p로 나타남.

○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 안면장애 52.8%, 간장애 47.2%, 지체장애 45.9%, 시각장애 43.1%, 청각장애 33.4%, 언어장애 30.7% 순으로 높고,

- 정신장애 10.8%, 뇌병변장애 11.6%, 뇌전증장애 17.9%, 호흡기장애 20.3%, 자폐성장애 22.0%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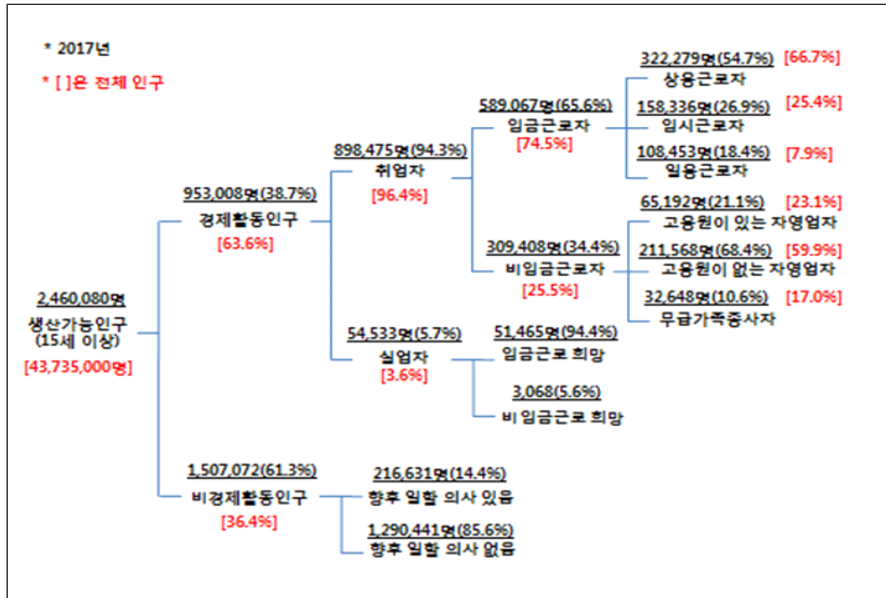
(단위 : 명, %)

장애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상대표준오차 (CV)
지체장애	1,264,650	579,975	654,309	45.9	0.030
뇌병변장애	241,323	28,011	211,535	11.6	0.085
시각장애	250,986	108,055	134,253	43.1	0.036
청각장애	268,591	89,608	174,128	33.4	0.047
언어장애	17,375	5,342	11,712	30.7	0.088
지적장애	172,872	39,625	129,743	22.9	0.074
자폐성장애	14,121	3,106	10,836	22.0	0.099
정신장애	100,038	10,825	86,482	10.8	0.135
신장장애	78,528	18,373	59,038	23.4	0.064
심장장애	5,290	1,430	3,804	27.0	0.140
호흡기장애	11,790	2,399	9,362	20.3	0.119
간장애	10,699	5,045	5,490	47.2	0.082
안면장애	2,643	1,396	1,200	52.8	0.098
장루·요루장애	14,334	4,062	9,879	28.3	0.090
뇌전증장애	6,840	1,223	5,302	17.9	0.175
전 체	2,460,080	898,475	1,507,073	36.5	0.022

- 장애인 취업자의 65.6%는 임금근로자, 34.4%는 비임금근로자로 구성됨.
 -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 54.7%, 임시 26.9%, 일용 18.4%로 나뉘지며, 비임금 근로자는 1인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21.1%, 혼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68.4%,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0.6%로 구성됨.
 - 장애인 취업자는 전체 인구 취업자에 의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크며,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나타남.
-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대다수인 94.4%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음.
-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14.4%가 향후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고 있음.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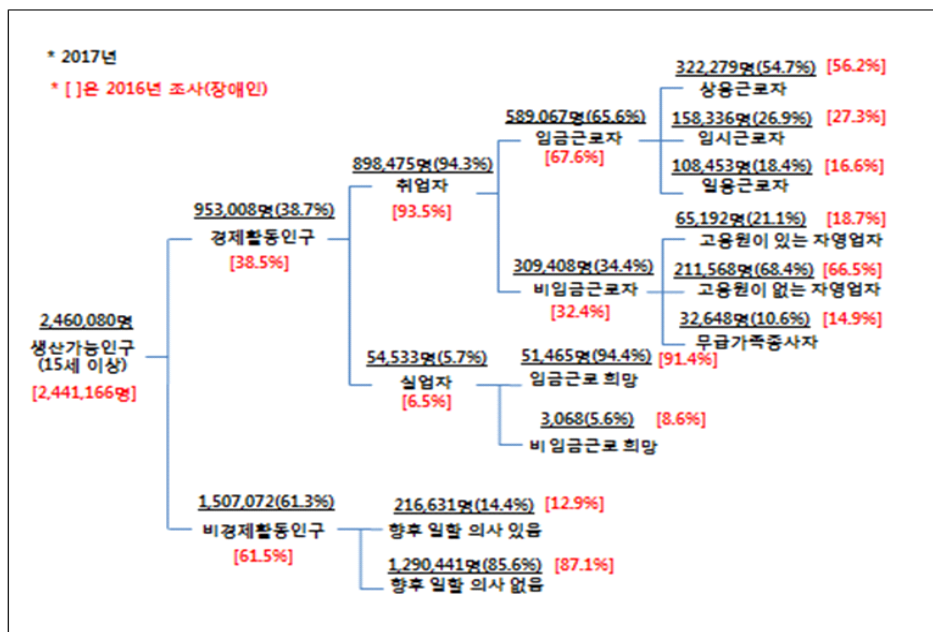
[그림 3]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7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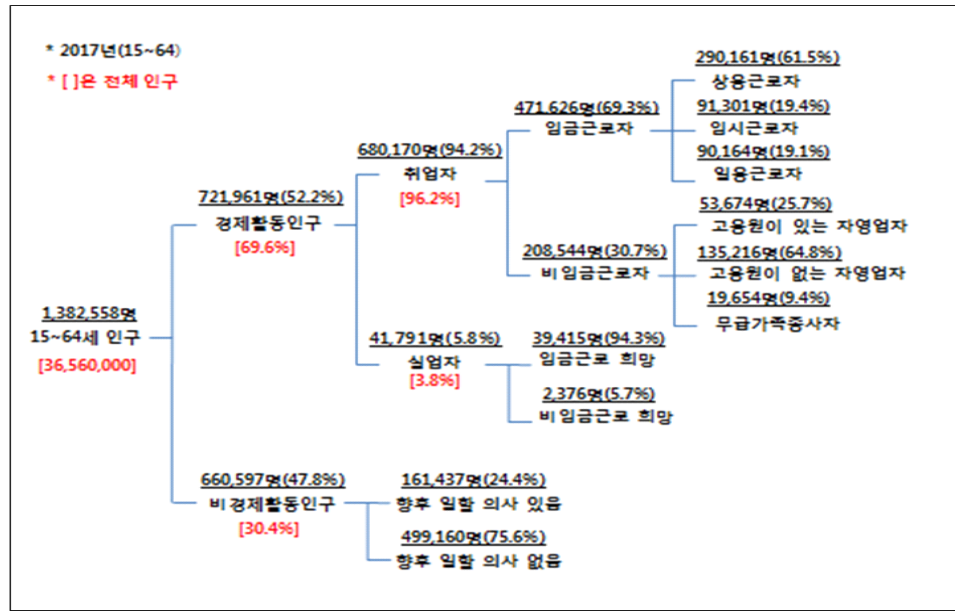
○ 2016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함.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함.
- 실업자 중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율이 증가함.

[그림 4]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6년 조사 비교)



[그림 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64세 인구, 2017년 5월 기준, 전체 인구 비교)



나. 2018년 2/4분기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2018년도 2/4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 및 구직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는 증가함. 구인수¹⁾는 20,495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3% 감소하였고, 구직자수도 12,936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9%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는 8,197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연도별 2/4분기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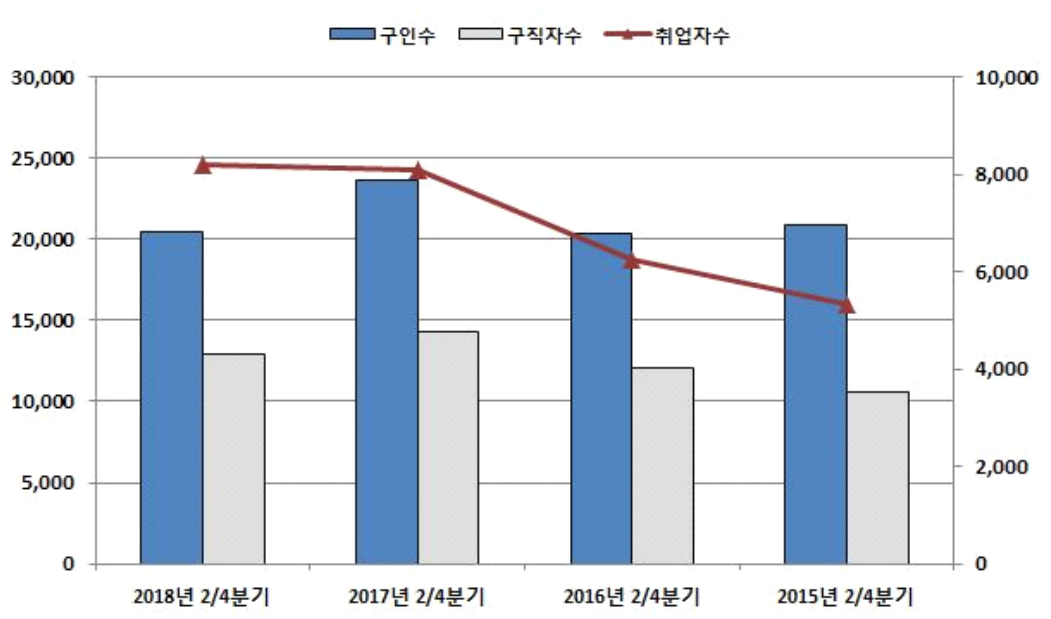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2016년도 2/4분기	2015년도 2/4분기
구인수	20,495	23,643	20,398	20,886
구직자수	12,936	14,351	12,036	10,588
취업자수	8,197	8,099	6,249	5,320

[그림 1.1] 연도별 2/4분기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추이

1)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이 연계됨에 따라 워크넷 구인등록 사업장 중 장애여부에 관계 없이 구인하는 사업장의 정보가 집계에 포함됨. 따라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수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1) 구인·구직 및 취업 특성 동향

- 2018년 2/4분기 성별 구직자수 현황을 보면, 남성 8,596명(66.5%), 여성 4,340명(33.5%)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수는 남성 5,318명(64.9%), 여성 2,879명(35.1%)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남성(11.7%), 여성(5.9%) 모두 감소하였으며, 취업자수는 남성 0.3% 감소하였고 여성 4.2% 증가함
- 장애정도별 구직자수 현황을 보면 중증 6,361명(49.2%), 경증 6,575명(50.8%)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수는 중증 4,299명(52.4%), 경증 3,898명(47.6%)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중증 9.3%, 경증 10.3% 감소했으며, 취업자수는 중증 0.5% 감소하였고 경증 3.1% 증가함
- 연령별 구직자수는 20대가 3,289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450명(18.9%), 30대 2,338명(18.1%), 40대 2,292명(17.7%), 60~64세 1,200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취업자수는 20대 2,096명(25.6%), 30대 1,359명(16.6%), 50대 1,334명(16.3%), 40대 1,237명(15.1%), 65세 이상 841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음. 특히, 65세 이상이 31.6%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5~19세 28.4%, 30대 13.2%, 40대 10.7%, 50대 8.4%, 60~64세가 2.4% 등의 순으로 감소함
 -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수는 60~64세가 21.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65세 이상 7.8%, 50대 4.1%, 20대 0.7% 순으로 나타났음
- 학력별 구직자수는 고등졸업 7,006명(54.2%), 대학졸업 이상 3,387명(26.2%), 중학

졸업 1,661명(12.8%), 초등졸업 이하 882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수는 고등졸업 4,629명(56.5%), 대학졸업 이상 1,823명(22.2%), 중학졸업 1,117명(13.6%), 초등졸업 이하 622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초등졸업 이하 22.6%, 중학졸업 19.7%, 대학졸업 이상 9.2%, 고등졸업 5.5%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수는 대학졸업 이상이 8.9%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초등졸업 이하 2.1%, 고등졸업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임금별 구인수는 150~199만원이 13,979명(68.2%)로 가장 많았으며, 200~249만원 2,714명(13.2%), 250만원 이상 2,053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구직자수는 150~199만원이 9,656명(74.6%)로 가장 많았으며, 200~249만원 1,207명(9.3%), 100~149만원 880명(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취업자수는 150~199만원이 4,271명(52.1%), 50~99만원 1,260명(15.4%), 100~149만원 600명(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는 150~199만원이 64.8%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00~149만원은 91.0%, 50만원 미만은 54.3%, 200~249만원은 9.1%, 50~99만원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구직자수는 150~199만원 130.0%, 200~249만원 9.9%, 250만원 이상 7.6% 증가했으며, 100~149만원 88.7%, 50~99만원 42.4%, 50만원 미만 3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수는 150~199만원 173.8%, 200~249만원 57.9%, 50만원 미만 20.1% 증가했으며, 100~149만원 80.4%, 250만원 이상 22.2%, 50~99만원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주요 특성별 구인·구직 및 취업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구인수			구직자수			취업자수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소계		20,495	23,643	-13.3	12,936	14,351	-9.9	8,197	8,099	1.2
성 별	남				8,596	9,740	-11.7	5,318	5,335	-0.3
	여				4,340	4,611	-5.9	2,879	2,764	4.2
장 애 정 도	중증				6,361	7,017	-9.3	4,299	4,319	-0.5
	경증				6,575	7,334	-10.3	3,898	3,780	3.1
별 년 연	14세 이하				0	1	-100.0	0	0	-
	15~19세				675	943	-28.4	570	650	-12.3
	20대				3,289	3,230	1.8	2,096	2,081	0.7
	30대				2,338	2,695	-13.2	1,359	1,378	-1.4
	40대				2,292	2,567	-10.7	1,237	1,305	-5.2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50대				2,450	2,674	-8.4	1,334	1,281	4.1
	60~64세				1,200	1,230	-2.4	760	624	21.8
	65세 이상				692	1,011	-31.6	841	780	7.8
별도 면역 학	초등졸업 이하				882	1,140	-22.6	622	609	2.1
	중학졸업				1,661	2,069	-19.7	1,117	1,234	-9.5
	고등졸업				7,006	7,411	-5.5	4,629	4,582	1.0
	대학졸업 이상				3,387	3,730	-9.2	1,823	1,674	8.9
	미분류				0	1	-100.0	6	0	-
별도 면역 인	50만원 미만	16	35	-54.3	67	107	-37.4	161	134	20.1
	50~99만원	858	919	-6.6	118	205	-42.4	1,260	1,271	-0.9
	100~149만원	875	9,770	-91.0	880	7,813	-88.7	600	3,055	-80.4
	150~199만원	13,979	8,484	64.8	9,656	4,198	130.0	4,271	1,560	173.8
	200~249만원	2,714	2,985	-9.1	1,207	1,098	9.9	398	252	57.9
	250만원 이상	2,053	1,450	41.6	740	688	7.6	98	126	-22.2
	미분류	0	0	-	268	242	10.7	1,409	1,701	-17.2

주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연령별 등 구인인원은 제시하지 않음

2) 임금별 구직자수의 임금은 희망임금임

(2) 장애유형별 구직 및 취업 동향

- 2018년 2/4분기 장애유형별 구직자수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가 4,688명(3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2,977명(23.0%), 청각장애 1,325명(10.2%), 시각장애 1,093명(8.4%), 뇌병변장애 1,015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간장애 27.1%, 상이등급 15.7%, 장루요루장애 12.0% 증가를 제외한 전 장애유형에서 감소를 나타냄

〈표 2.1〉 장애유형별 구직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구직자수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지체장애	4,688	5,374	-12.8
뇌병변장애	1,015	1,239	-18.1
시각장애	1,093	1,189	-8.1
청각장애	1,325	1,385	-4.3
언어장애	160	175	-8.6
지적장애	2,977	3,043	-2.2
정신장애	775	935	-17.1

자폐성장애	250	270	-7.4
신장장애	295	371	-20.5
심장장애	26	43	-39.5
호흡기장애	24	25	-4.0
간장애	61	48	27.1
안면장애	30	39	-23.1
장루요루장애	28	25	12.0
뇌전증장애	103	110	-6.4
상이등급	81	70	15.7
미분류	5	10	-50.0
계	12,936	14,351	-9.9

- 2018년 2/4분기 장애유형별 취업자수는 지체장애가 2,823명(3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적장애 2,169명(26.5%), 청각장애 818명(10.0%), 시각장애 805명(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간장애(128.6%), 심장장애(41.2%), 장루요루장애(26.7%) 등이 증가한 반면, 신장장애(16.2%), 호흡기장애(12.5%) 등에서 감소가 나타남
- 장애유형별 취업률은 심장장애(92.3%), 시각장애(73.7%), 지적장애(72.9%), 자폐성장애(7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을 보면 호흡기장애(5.7%p), 청각장애 및 상이등급(2.7%p) 만 감소한 반면, 심장장애 52.8%p, 간장애 23.3%p 순으로 전반적인 증가가 나타남

〈표 2.2〉 장애유형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취업자수			취업률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지체장애	2,823	2,791	1.1	60.2	51.9	8.3
뇌병변장애	545	549	-0.7	53.7	44.3	9.4
시각장애	805	760	5.9	73.7	63.9	9.8
청각장애	818	892	-8.3	61.7	64.4	-2.7
언어장애	85	83	2.4	53.1	47.4	5.7
지적장애	2,169	2,096	3.5	72.9	68.9	4.0
정신장애	441	438	0.7	56.9	46.8	10.1
자폐성장애	182	176	3.4	72.8	65.2	7.6
신장장애	129	154	-16.2	43.7	41.5	2.2
심장장애	24	17	41.2	92.3	39.5	52.8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호흡기장애	14	16	-12.5	58.3	64.0	-5.7
간장애	32	14	128.6	52.5	29.2	23.3
안면장애	15	14	7.1	50.0	35.9	14.1
장루요루장애	19	15	26.7	67.9	60.0	7.9
뇌전증장애	34	30	13.3	33.0	27.3	5.7
상이등급	58	52	11.5	71.6	74.3	-2.7
미분류	4	2	100.0	80.0	20.0	60.0
계	8,197	8,099	1.2	63.4	56.4	7.0

주 :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3) 장애등급별 구직 및 취업 동향

- 2018년 2/4분기 장애등급별 구직자수를 보면 3급 장애가 4,104명(3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급 장애 2,527명(19.5%), 6급 장애 2,497명(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1급 장애(18.1%), 3급 장애(10.1%), 4급 장애 및 6급 장애(9.9%) 등 상이등급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에서 감소를 나타냄
- 장애등급별 취업자수는 3급 장애 2,623명(32.0%), 2급 장애 1,669명(20.4%), 6급 장애 1,549명(18.9%), 5급 장애 1,068명(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을 보면 상이등급(11.5%), 6급 장애(8.9%), 3급 장애(4.3%), 5급 장애(2.8%)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감소함
- 장애등급별 취업률은 1급 장애(85.4%), 상이등급(71.6%), 2급 장애(6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6급 장애(10.7%p), 3급 장애(8.8%p), 1급 장애(6.6%p), 5급 장애(6.4%p), 4급 장애(4.3%p) 등 거의 모든 등급에서 증가를 나타냄

〈표 2.3〉 장애등급별 구직·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p)

구 분	구직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1급	540	659	-18.1	461	519	-11.2	85.4	78.8	6.6
2급	2,527	2,776	-9.0	1,669	1,764	-5.4	66.0	63.5	2.5
3급	4,104	4,566	-10.1	2,623	2,514	4.3	63.9	55.1	8.8
4급	1,372	1,523	-9.9	765	785	-2.5	55.8	51.5	4.3
5급	1,807	1,973	-8.4	1,068	1,039	2.8	59.1	52.7	6.4
6급	2,497	2,772	-9.9	1,549	1,423	8.9	62.0	51.3	10.7
상이등급	81	70	15.7	58	52	11.5	71.6	74.3	-2.7
미분류	8	12	-33.3	4	3	33.3	50.0	25.0	25.0

계	12,936	14,351	-9.9	8,197	8,099	1.2	63.4	56.4	7.0
---	--------	--------	------	-------	-------	-----	------	------	-----

주: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4)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 동향

-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구직자수 현황을 보면 지적장애가 2,975명(4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 795명(12.5%), 정신장애 773명(12.2%), 청각장애 633명(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언어장애 40.0% 증가를 제외한 전 유형이 감소를 나타냄

〈표 2.4〉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구직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구직자수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지체장애	795	978	-18.7
뇌병변장애	467	564	-17.2
시각장애	203	219	-7.3
청각장애	633	669	-5.4
언어장애	14	10	40.0
지적장애	2,975	3,042	-2.2
정신장애	773	932	-17.1
자폐성장애	250	269	-7.1
신장장애	173	219	-21.0
심장장애	21	32	-34.4
호흡기장애	22	25	-12.0
간장애	1	5	-80.0
안면장애	4	13	-69.2
장루요루장애	1	0	-
뇌전증장애	23	32	-28.1
상이등급	6	8	-25.0
미분류	0	0	-
계	6,361	7,017	-9.3

- 2018년 2/4분기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자수는 지적장애가 2,169명(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 475명(11.0%), 정신장애 441명(10.3%), 청각장애 400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안면장애(133.3%), 심장장애(50.0%), 상이등급(40.0%), 언어장애(28.6%) 등은 증가한 반면, 뇌전증장애(37.5%), 신장장애(21.3%)는 감소하였음
-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률은 간장애(200.0%), 안면장애(175.0%), 상이등급(116.7%), 시각장애(11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성인장애인의 취업 현황 및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지원팀의 지원방향 ㉠

- 전년 동분기 대비 장애유형별 취업률 증감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정신장애(15.6%p), 언어장애(5.7%p) 등은 감소를 나타냄

〈표 2.5〉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취업자수			취업률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지체장애	475	503	-5.6	59.7	51.4	8.3
뇌병변장애	257	258	-0.4	55.0	45.7	9.3
시각장애	236	245	-3.7	116.3	111.9	4.4
청각장애	400	458	-12.7	63.2	68.5	-5.3
언어장애	9	7	28.6	64.3	70.0	-5.7
지적장애	2,169	2,096	3.5	72.9	68.9	4.0
정신장애	441	437	0.9	57.1	46.9	10.2
자폐성장애	182	176	3.4	72.8	65.4	7.4
신장장애	74	94	-21.3	42.8	42.9	-0.1
심장장애	21	14	50.0	100.0	43.8	56.2
호흡기장애	13	15	-13.3	59.1	60.0	-0.9
간장애	2	0	-	200.0	0	200.0
안면장애	7	3	133.3	175.0	23.1	151.9
장루요루장애	0	0	-	0	0	0
뇌전증장애	5	8	-37.5	21.7	25.0	-3.3
상이등급	7	5	40.0	116.7	62.5	54.2
미분류	1	0	-	0	0	0
계	4,299	4,319	-0.5	67.6	61.6	6.0

주 :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 2018년 2/4분기 한국표준직업분류별 구인수는 단순노무 종사자 7,319명(35.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368명(21.3%), 사무종사자 4,056명(19.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792명(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2/4분기 한국표준직업분류별 구직수는 단순노무 종사자 5,471명(42.3%), 사무종사자 2,580명(19.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1명(11.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07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2/4분기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구인배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직(6.5),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6.4), 여행·숙박 서비스직(5.6) 등에서 구직자수보다 구인수가 더 많게 나타남
- 전년 동분기 대비 직종별 구인배수 증감을 보면 여행·숙박 서비스직(3.7) 등에서 증가하였

- 고, 인문·사회과학 연구직(5.0) 등에서 감소하였음
- 2018년 2/4분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종별 취업자수는 단순노무 종사자 3,625명(44.2%), 사무종사자 1,271명(15.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8명(6.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6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2/4분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취업률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8.3%), 단순노무 종사자(66.3%), 판매종사자(62.1%), 사무종사자(49.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8-2〉 직종별 취업자수 및 취업률 현황

(단위 : 명, %, %p)

구분	취업자수			취업률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2018년도 2/4분기	2017년도 2/4분기	증감
관리자	89	68	30.9	29.5	15.6	1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7	156	19.9	31.9	26.3	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8	10	180.0	68.3	20.0	48.3
단순노무 종사자	3,625	3,382	7.2	66.3	55.5	10.8
사무종사자	1,271	1,166	9.0	49.3	44.8	4.5
서비스 종사자	370	316	17.1	32.2	32.2	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18	547	-5.3	36.2	29.6	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26	375	13.6	35.3	25.2	10.1
판매종사자	105	99	6.1	62.1	39.0	23.1
군인	0	0	-	0.0	0.0	0.0
미분류	1,578	1,980	-20.3	0.0	0.0	0.0
계	8,197	8,099	1.2	63.4	56.4	7.0

주 1)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2)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기준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들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 환경에 따라 장애인들도 취업률이나 근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위의 조사에서는 15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경제활동 실태와 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어 성인발달장애인만의 특이점이나 연구에 필요한 유의미한 부분을 따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근로가 가능한 만15세 이상 성인발달장애 인구 대비 취업률이 20% 안팎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은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찾아보고 이것이 단지 당사자의 장애 때문이지 가정환경이나 개인별 직업에 대한 인식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취업 및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2. 제언

현재 복지관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 별로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별 운영방법으로 진행되어 장애인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나 고용 관련 시스템이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직업지원팀에서는

1. 취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17세부터 복지관 직업훈련 이용연령인 34세까지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전 교육에서부터 직업훈련, 취업준비, 외부기관 취업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2.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인식 및 환경 등을 교육하여 분야를 막론하고 자녀들이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을 해야 하며,
3. 성인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왜 취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취업 전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안정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도 좀 더 능동적 마인드와 적극적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정적 행동지원이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문화여가지원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조작적 정의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 장소 및 기간
3. 연구 설계 및 절차

III. 분석결과 및 제언

부록

1. 설문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며 발달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실천현장의 여건을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도전적 행동이 사회활동 제약, 자기결정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지원자의 대응방법은 혐오자극, 타임아웃, 과잉교정, 혐오자극 형식으로 제공되는 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수정을 통한 중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효과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의 재해석과 인간존중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효과가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행동수정의 문제점 때문에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의 기능을 분석하고 그 기능에 따라 중재를 계획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었다.

이용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복지관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나이, 환경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며 개별목표가 아닌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공통적 특성을 기준으로 공통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개성에 대한 존중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용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무언의 압박이 형성된 억압된 환경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도전적 행동 빈도는 더욱 증가한다.

이효신(2004)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도전적 행동의 원인으로 자기자극, 과제거부, 관심 끌기, 요구관철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으로 표현되고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도전적 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자해행동, 타해행동, 기물파손, 울기, 소리지르기 등의 목적은 의사표현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도전적 행동 대응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지원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발달장

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개별적 사례연구를 통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인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한다면 도전적 행동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조작적 정의

가. 도전적 행동

자신의 신체에 상처가 나도록 하는 자해행동과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덜미를 잡거나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히는 타해행동, 분노표현의 방법으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소리지르며 우는 행동을 말한다.

나. 긍정적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도전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예방할 뿐 아니라, 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회적, 학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별화 전략으로, 대체행동기술의 지도와 생활습관 중재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선호하고 잘하는 것을 선행환경 중재와 후행중재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를 일컫는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H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성인발달장애인 남성 1명(대상자A), 여성 1명(대상자B)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 특성	행동적 특성	사회적 특성
대상자A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함 *이름을 불러도 자신의 의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음 *거부의 표시로 혼잣말을 하거나 고개를 저음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오전에 있을 때는 지각이 잦음 *원하는 대화가 아닐 때에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	*특정 그룹원에게 “오빠”라고 부르거나 머리냄새를 맡음 *다른 그룹원들과는 인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음 *가족구성원과도 대화가 거의 없으며 혼잣말이 많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검색하거나 복지관 직원에게 요청함
대상자B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함 *이름을 부르면 쳐다보거나 “네”라고 대답함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아, 아”라고 이야기하거나 “싫어”라고 대답함	*뇌병변으로 인해 걸음이 불안하고 계단을 무서워함 *이동 시 이동을 거부하는 일이 잦음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아, 아”라고 하며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함 *화를 참을 때 몸을 떨고 알 수 없는 말을 크게 소리침 *화를 참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던지거나 타인의 손을 세게 물고 놓지 않음	*강사, 담당자, 보조담당자 등 비장애성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함 *또래의 장애인과는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자신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먼저 다가감 *다정하게 대해주며 자신을 어린 아이처럼 달래주는 성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경향이 있음

2. 연구 장소 및 기간

가. 연구 장소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나. 연구 기간 : 2018년 8월 1일부터 10월 29일

3. 연구 설계 및 절차

가. 연구 설계

기본설계(A-B)을 사용하였다. 기초선(A1)이 안정된 후 중재(B1)을 진행하였다.

나. 연구 절차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기록 검토, 직접 관찰 및 기록, 보호자 상담을 진행한 뒤 문제행동

에 대한 원인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1) 기록 검토

생활기록부 및 프로그램 일지, 상담기록을 토대로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A의 도전적 행동은 혼잣말 심취, 지각 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고 대상자B의 도전적 행동은 신발 던지기, 소리지르기, 물기(타해), 몸 떨기, 이동거부 등이었다.

2) 직접 관찰 및 기록

기록은 아침 등교부터 수업시간, 휴식시간, 하교시간까지 실시되었다. 대상자A는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원하는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대화를 제지당했을 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다.

대상자B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당했을 때, 강사나 담당자의 관심이 다른 이용자에게 향했을 때 도전적 행동이 나타났다.

3) 보호자 상담

대상자A의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 보호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중학교 때 신경정신과 약을 잘못 복용한 뒤 도전적 행동이 나타난 것 같아 보호자의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가정 내에서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무관심, 형의 간헐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도전적 행동에 기여했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B의 보호자와 상담한 결과 평소에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거나 하고자 하는 행동을 제지했을 때 물려고 입에 손을 가져가거나 “아, 아”라고 이야기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동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소리지르는 행동이 발생했다고 한다.

4) 선호활동

대상자A의 직접 관찰 및 보호자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선호활동을 규명하였다. 대상자A는 다정하게 인사하기, 대화로 궁금증 해소하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기, 핸드폰 사용 허용하기를 선호하고, 대상자B는 이야기 들어주기, 존댓말로 차분하게 대화하기, 좋아하는 노래 같이 따라부르기, 칭찬하고 관심 보여주기를 선호하였다.

5)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 및 가설 설정

표적 행동	원인	가설설정
대상자A의 회피행동	1. 가정 내 무관심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있었으나 종일 프로그램 이용 후 의지와 상관 없이 해야 하는 일과로 인해	1. 대화를 통해 현재의 과제를 “왜”해야 하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납득하면 회피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대상자B의 공격행동	1. 과제 수행 후 강사 또는 담당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때 2. 상대방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여 자신의 의지를 좌절시켰을 때	1. 과제 수행 후 칭찬과 격려를 하면 공격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2.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른 뒤 차분히 이야기하면 공격행동이 감소할 것이다.

(1) 기초선

대상자A와 B의 회피행동, 공격행동 발생률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찰하였고, 언어적 지시 외에는 중재하지 않았다.

(2) 중재

① 선행조건 중재

대상자A 1번 원인 선행사건 중재 :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고 앉아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함.

대상자B 1번 원인 선행사건 중재 : 과제 수행 후 강사 또는 담당자, 보조 담당자가 이름을 호명하고, 과제수행을 칭찬함.

대상자B 2번 원인 선행사건 중재 :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하며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함.

② 대체기술 교수 중재

대상자A 대체기술 교수 중재 :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준 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라고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함.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해서 혼잣말을 할 때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라고 물어봄.

대상자B 대체기술 교수 중재 : “아, 아”라고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 진정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린 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로 얘기해주세요”하고 부드럽게 존댓말로 “선생님~하고 부르면 제가 이야기 들으러 갈게요.”라고 이야기함.

③ 후속결과 중재

대상자A 후속결과 중재 :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줌.

대상자B 후속결과 중재 :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때요?”, “지금 과제를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걸 하고 싶어요?”,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함. “소리 질러서 목 아프지 않아요? 다음에는 소리지르기 전에 선생님~하고 불러주세요”, “많이 속상했죠?” 등 위로와 대체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듣거나 따라부름.

Ⅲ.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도전적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입력한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가. 대상자A

대상자A는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을 기준으로 (10월 1일~10월 30일) 지각이 8월 22회, 9월 17회에서 10월 5회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혼잣말의 지속시간 및 빈도가 감소하고 프로그램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나. 대상자B

대상자B는 긍정적 행동지원 개입을 기준으로 (10월 1일~10월 30일) 소리 지르는 횟수가 8월 20회, 9월 13회, 10월 5회로 감소하였고, 무는 행동은 8월 2회, 9월 0회, 10월 0회로 소거되었다.

2. 제언

가. 변수통제의 한계

대상자A의 경우 긍정적 행동지원과 함께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더욱 빠르게 생활이 안정되고, 회피행동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정신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와 상담 후 필요 시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회피행동의 감소가 약물 때문인지 긍정적 행동지원 때문인지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대상자A와 B 모두 가족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대상자A의 가족구성원은 대상자에게 무관심,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간헐적으로 행사하였으나 담당자와 상담 및 통화 이후 대상자A에게 칭찬을 하는 등 애정을 종종 표현하였다. 대상자B의 보호자는 “안돼”, “이렇게 하면 엄마 창피해”, “너 때문에 엄마 힘들어” 등 자신의 힘들음을 호소하거나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잦았으나 점차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칭찬하는 횟수가 늘었다. 이처럼 담당자가 가족구성원과 일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에 어려움이 있다.

나. 연구결과를 통한 중점사항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소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물리적인 환경, 주변인의 대처방식, 개별적인 특성 존중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제와 규칙, 지원자의 일관적이고 일방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한계를 찾아 변화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부록 1. 대상자A 체크리스트 3부
- 2. 대상자B 체크리스트 3부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년차 사업정리 및 사례집

엮은이 지역연계팀
김 형 준 사회복지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경험적 배경

II. 본론

1. 1년차(2017년)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 2년차(2018년)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III. 결론 및 제언

1.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결과
2.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성과
3.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관점 정의
4. 한계점 및 제언

IV. 사례집

1.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르는 유니버설 디자인단
(장진영사회복지사)
2. 두려움을 안고 지역주민을 만나다 (신수련사회복지사)
3. 따뜻한 팔빙수(양현석사회복지사)
4. 절망속의 인연을 만나다.(윤성일사회 복지사)
5. 양천물놀이 축제(양천서포터즈단 3기 송민정회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1년차에는 ‘마을·마을만들기·마을지향·주민조직화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2년차에는 중간관리자들 대상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만의 마을지향관점으로 바라보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각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마을지향관점으로 바라보는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안에서 ‘마을지향관점’을 녹여내는 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터디에 참여한 직원은 전체를 대변할 정도의 수가 되지 못하고 중간관리자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 대상으로 합의하는 고장과 내재화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이직과 출산휴가 대체로 인해 새로운 직원이 발생하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마을지향관점’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사례연구를 통해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2. 경험적 배경

가. 2016년 이전 마을지향관점 사업

연도	구분	사업명	내용	비고
2013	마을공동체 사업알기	외부교육	서울시복지재단 2013 「지역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기초과정 수료	
	외부공모사업 지원	외부공모	행동(행복한 공동체 만들기)프로젝트 +One 하나 더 나누기	선정X
	지역활동가 조직	지역조직화	신월2동 주민과 함께하는 행동(행복한 공동체 만들기)프로젝트	신월2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조직화		신월2동 주민(직능 단체위주)
2014 ~ 2015	지역주민과 관계 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복지사업 중 자원봉사활동 요청과 함께 행사 진행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복지사업’을 알림. - 지역사회 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주민과 관계 맺음 		

연도	구분	사업명	내용	비고
2016 (2월)	함께 진행해보기	절기행사	- 목4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떡국잔치 열렸네 진행 -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와 함께 진행함. - 이 행사로 목4동 통/반장과 지역복지협의체 주민들과 관계를 맺음.	
2016 (9월)	함께 진행해보기2	절기행사	- 전부달일(전부치기 달인 대회) - 공공기관(목4동 주민센터)+민간기관(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주민조직(목4동 주민자치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반장 모임 등) - 이 절기행사는 양천구 특화사업으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	

II. 본론

1. 1년차(2017년)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분류	내용
1. 마을공동체지향 관점 갖기 및 내재화	직원전체교육
	1차 소그룹 교육
	2차 소그룹 교육
2. 마을지향관점 갖고 사업해보기	지역상가 방문하기
	지역주민 만나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전부달인)

① 직원전체교육

- 일시 : 2017년 5월 17일 18:30~20:30
- 장소 : 복지관 강당
-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34명
- 주제 : 마을공동체 지향복지관의 이해 및 경험 “사람이 마음입니다.”
/ 나부터 우리부터 / 마을의 재미

- 교육방식 : 그룹(6~8명)으로 조를 나누어 진행
- 교육 후 소감 발췌

- 소그룹으로 모여 활동을 하면서 마을지향활동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모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사소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대화에서부터 마을지향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음.
- 마을 주민과 처음 만날 때 이런 방식으로 퍼실레이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퍼실레이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음.
- 직원들 간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음.
- 유쾌한 강사님을 통해 교육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음. 마을관계의 기본은 소통에서 시작한다는 조언, 그리고 기관에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음. 앞으로 관차원에서 직원들 간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음(제가 말하는 소통...은 대화입니다. 형식적 모임이 아닙니다.)
- 이번 교육은 마을지향이라는 개념등의 이해뿐만 아니라 관계와 소통의 의미로 직원들 간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생각됨. 강사의 진행방식의 매우 편안했기에 집중도가 높았다고 평가됨.
- 토론형태의 교육을 좋아하지 않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직원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좋았음. 강사님도 재미있으셨고 전반적으로 만족함!

② 직원심화교육(상반기)

- 9. 일시: 2017년 7월 6일 ~ 8월 10일(총 5회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오후 8시(매주 4시간)
※ 1회차(7/6), 2회차(7/13), 3회차(7/20), 4회차(8/3), 5회차(8/10)
- 9. 장소 : 복지관프로그램실
- 9.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12명 ※ 참여도를 높이고자,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진행함.

순번	이름	담당부서 / 직위	주요업무
1	김오택	기획운영지원팀 /사무국장(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복지관 사업 전체 총괄
2	조현서	가족지원팀 /팀장(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가족지원사업 총괄,
3	김형준	지역연계팀 /팀장(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지역연계사업 총괄, 마을만들기 사업
4	전선이	지역연계팀 /팀원(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마을만들기사업, 홍보 ※사업담당자
5	윤성일	지역연계팀 /팀원(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마을만들기사업, 후원
6	홍혜정	지역연계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자원봉사자, 장애인해교육 사업
7	고은실	사례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복지관 접수 상담 및 사례관리
8	나주연	사례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사례관리,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9	양수현	가족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청소년사회성지원사업
10	양현석	사례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사례관리, 자립생활지원사업
11	최원정	직업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직업적응훈련사업, 학교연계전환교육
12	최지원	직업지원팀/팀원 (사회복지사)	◦ 주요업무 -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사업

9. 진행방법

※ 교육주제에 따라 전체 또는 2개 그룹(6~7명)으로 조를 나누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합 교육을 진행함.

- 주차별 주제

1주차 : 강의를 신청한 각자의 생각나눔, 교육의 내용 합의하기

2주차 : 마을공동체 사례공유(스페인몬드라곤, 흥성생태마을 등), 정보제공(서울시청, 연구소, 센터 등 도움이 되는 사이트 공유)

3주차 : 퍼실리테이션이란? 기획과 계획에 대해 알기

4주차 : 과정평가 방법, 마을공동체 기획하기(직원워크숍, 추석행사 등)

5주차 : 마을지향 사업계획 및 실천하기(아이디어 스케치, 발표, 작성하기), 롤링페이퍼 등

□ 직원교육 후 소감 및 기타 의견

- 함께 참여하는 사람의 열정이 눈부셨다. 함께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장소, 그리고 마음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이 좋았다.
- 과정평가에 대한 내용, 담당자 중심에서 딱딱한 평가가 아닌 이용자중심으로 효과적인 과정평가를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할지 고민할 수 있었음.
-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순간순간이 좋습니다. 친숙하지 못했던 직원과의 교류, 지루하지 않았던 교육이었다.
- 퍼실리테이션 기법,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대상자의 참여도나 의미전달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계획이 아닌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

③ 직원심화교육(하반기)

9. 일시 : 2017년 12월1일~12월15일(총 3회기)

매주 금요일 오후5시 ~ 오후7시(매주 2시간)

※ 1회차(12/1), 2회차(12/8), 3회차(12/15)

□ 장소 : 복지관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4명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진행함

9. 진행방법

※ 전체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함께 자료를 찾고, 스터디하는 방법으로 “참여형 직원교육”

- 주차별 주제

- 1주차 : ‘왜 마을인가’에 대한 각자의 생각 정리 및 발표, 공유 알기
- 2주차 : 마을공동체 정보 스터디 및 공유(서울시청, 연구소, 센터 등 도움이 되는 사이트)
- 3주차 : 마을공동체 사례 스터디 및 발표 공유(서울시마을정책등 도움이 되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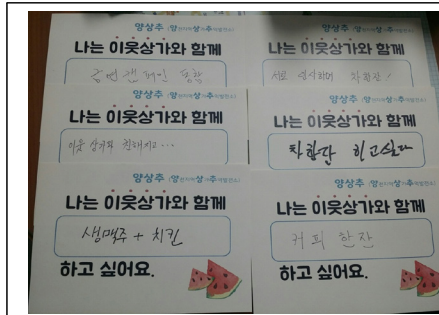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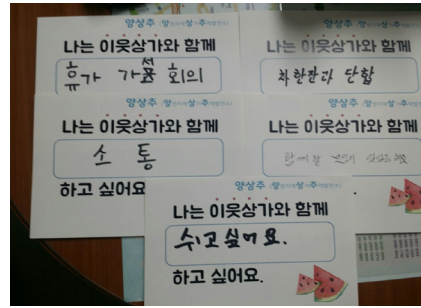
④ 마을지향관점 갖고 사업해보기

9. 지역상가 방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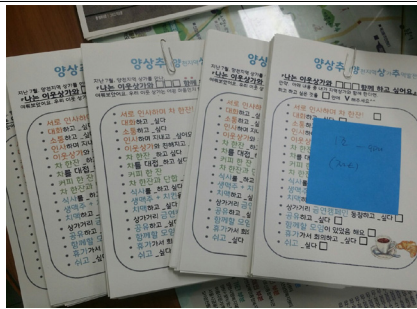
분 류	내 용
사업명	지역상가 방문하기
기획의도	<p>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지역의 상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네 골목 상가와 인사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기 ○ 우리 동네 골목 상가와 상가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하기 ○ 지역상가 & 지역주민에게 복지관을 알리고, 복지관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하기 ○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보기
추진과정	<p>추진실적 : 2017년 4월 ~ 12월까지 매월 진행함.(총 9회기)</p> <p>실인원 / 연인원 : 50개 / 450곳</p> <p>진행방법 : 매월 50개 지역상가/복지관TF10명(2명씩 5개조)구성하여 방문</p>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부터 진행한 지역상가 방문하기는 복지관 홍보에서 머무르지 않고, 2016년부터 마을과 마을의 지역상가(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지역상가의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 등 많은 고민들이 있음을 알았으며, 지역상가라는 '특수성 = 먹고 살기위한 생계를 잘 이해하고, 상가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상가의 어려움을 알고, 작게나마 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음. ○ '지역상가와 000를 함께 하고 싶다' 는 앙케이트를 통해, 상가를 잇는 징검다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음. 특히, 이웃상가와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한 상가들의 의견이 있어,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 보는 것에 대해 계획하고 있음. 복지관이 주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상가의 리더를 찾는 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복지관의 방문이 반갑고, 정겨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밝은 미소'와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상가 방문 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특히, 지역상가 방문시 단순히 비용이 높은 좋은 질의 선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무엇을 전해드리며 지역상가, 지역주민들이 '복지관이 함께 하고 싶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음. 지역상가도 복지관의 방문을 친숙하게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상가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p>※ 사진자료</p>



[지역상가 의견 묻기1]



[지역상가 의견 묻기2]



[지역상가 의견 묻기3]



[T.F.Team 정기회의]



[장애인식개선 포어 나눔]



[지역상가방문]



[명절음식 나눔]



[기념품 나눔]

[활동기록지]

양천마을 '지역상가 인사나누기' 방문기록지	
조명	1조(임소연, 전선이) 방문회차 11월 방문
방문일시	2017. 11. 28(화) 15:30~16:00
상가명	상가반응
세븐일레븐	우리복지관에서 직접 준비한 김장김치, 수육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감동한 듯함. 9월에 드렸던 한가위 음식배달 만큼 감동한 듯한 반응을 보이셨음. 우리의 정성이 보인 푸짐한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즉각 나타난 것으로 보임
모닝아트	예전에 무뚝뚝했던 모습이 아니라, 웃으며 반갑게 맞아줌. 오늘은 혼자서 근무하는데, 맛있게 혼자서 다 먹어야겠다~며 장난스럽게 얘기나눔.
강수정해어떡	여자사장님은 후자로 자리에 없고, 남자사장님과 이야기나눔. 손님이 있어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고 좋아함.
복을커피	직접 준비한 김장김치와 수육 외에 엽서도 전달해드렸을 때 바로 카운터 앞 쪽 엽서 보관하는 곳에 끼워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던 엽서 보관대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음.
파리바게뜨	사장님 잠시 부재중이나, 사전에 전할 것이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그 의미를 잘 전달해달라고 얘기함.
두리부동산	늘 이야기 나누면 여자장님이 아닌, 남자직원분과 이야기나눔. 다소 무뚝뚝하고 어색해지는 모습으로 받으시고, 잘 먹었다고 하심.
숯불닭갈비	월 1회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을 할 때마다 '벌써 한달이 지났네요' 라는 반응과 함께 '매번 받기만 하네요' 라는 대화가 오고 감. 이러한 대화 속에서 반가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낄 수 있고, 방문 초반보다 점점 방문하는데 어색함이 줄어들고 있음
육대장양천구청점	김장김치와 수육을 드리자 같이 마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요청할 정도로 어색함이 풀어지고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기타의견	확실히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전달해드릴 때 '정'과 함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음. 단순한 과자 또는 음료수가 아닌 계절 또는 그 달의 맞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포장용기까지 신경써서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높은 반응을 받게 되는 것 같음. 그 음식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음. 그래서 방문 시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음.

평가/제언	<p>○ 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하면, 처음 반응은 '후원' 또는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의 방문이 도움적인 방문이 아닌, 마을만들기, 마을지향 복지관으로 지역상가와 함께하기 위함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현재 인사 나누는 상가가 많아지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함.</p> <p>○ 이제는 복지관을 알리고 인사나누기에서 지역상가의 리더를 찾고 지역상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8년에는 보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p> <p>○ 지역상가 방문은 마을만들기,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초석적인 활동으로, 현재 방문하는 지역상가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복지관 주변 인근 상가의 그 범주를 넓혀보고자 함.</p>
-------	--

9. 지역주민 만나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행사 함께하기

분 류	내 용
사 업 명	지역주민 만나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
기획의도	복지관 이용자, 지역주민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내 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마을의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p>주민주도의 마을축제를 함께하고자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인사 나누며 양천 이웃 알기 ○ 지역 사회 내 복지관을 알리고, 복지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 함께하기
<p>추진과정</p>	<p>1) 지역주민만나기 추진실적 : 2017년 4월 ~ 11월까지 매월 진행함.(총 8회기) 실인원 & 연인원 : 1,600명(회기별 200명) 진행방법 : 매월 셋째주 화요일, 복지관 인근 골목에서 진행함.</p> <p>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 '전부달인(전설의부침개달인)' 추진실적 : 2017년 9월 30일(토) / 실인원 & 연인원 : 500명 ※ 2017년 연구사업 보고서 '지역주민과 함께한 명절잔치 이야기' 참고</p>
<p>주요성과</p>	<p>1. 지역주민 만나기 ○ 날씨가 무더워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여 한잔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인사나누었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식'을 준비하여, 복지관뉴스레터 '양천행복메아리'를 QR코드 업서를 전해드리며, 소식 안내해드림. 업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며 '양천행복메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며 물어주셔서 복지관 뉴스레터이며, 지역주민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년 4회 발송하였음(분기별 1회로 3, 6, 9, 12월 / 총 4회기), 환하게 웃으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아이, 어른 모두 즐겁게 받아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며, 복지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관심을 가졌다고 사료됨.</p> <p>○ 지역주민만나기의 시간 및 장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특히, 아파트와 상가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골목과 골목이 있는 곳이 지역주민을 더 가깝게 다가가기 좋았음.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됨.</p> <p>○ 만나기에 앞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여 준비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의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음.</p> <p>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 '전부달인'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마을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참여, 진행하였음. 담당자(=복지관)이 모두 기획하고 지역주민이 와서 참여만 하는 행사로 진행하지 않음. 함께 고민하고 물어보고 역할을 부여하여 진행하였음.</p> <p>○ 주민을 비장애인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이용자 / 장애인/ 자원봉사자 모두가 주민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확대됨.</p> <p>○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업은 즐거운 일이다. 복지관이 모든 일(기획, 계획, 진행, 홍보, 후원 등)을 다 할 수 없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니 다양한 생각과 경험들로 내용이 풍성해졌으며 지역주민들의 역량 또한 높아져 복지관(기관)의 일이 줄어들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었음.</p>
<p>평가/제언</p>	<p>○ 지역주민 만나기는 단기성이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며 시간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만나는 방법의 다양성(인사나누기 캠페인, 나눔 활동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활동도 함께 고민하여 준비할</p>

	<p>계획임.</p> <p>○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잔치는 현재 목4동과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신정2동, 신정6동 지역주민과 꾸준히 관계를 맺는 활동들을 진행함. 또한, 지역(동)의 특색, 직능단체, 자조모임, 주민 조직 등 조사하고 정리해 놓음.</p>
--	--

⑤ 의미있는 변화

분류	변화내용	
	마을지향관점 적용 전	마을지향관점 적용 후
3-1. 기관 (사회복지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주도의 기획을 하고 진행하였으나,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줄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을 가짐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특성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치료프로그램)에 제한적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지향관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민 주도적 일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중요함을 알게 됨 복지관의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모두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으로 확대됨. 2018년 사업계획수립시, 전직원 팀별 회의를 통해 '마을지향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3-2.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다소 거리가 있는 이용시설이라고 인식하는 주민이 많았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외에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해도가 낮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관도 지역에 한 이용시설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마을잔치, 겨울김장, 도시텃밭꾸리기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함께 진행하여 그 가능성을 경험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 개방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계획하고 있음.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이것 기획자로 제안하고 지역 내 자원을 함께 탐색하여 기획 및 진행하는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
3-3.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지향복지관 관점에 대한 이해, 서울시복지정책,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 공공기관(동주민센터), 주민조직(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상인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이 연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⑥ 평가 및 제언

11. 마을공동체지향 변화복지관 개념과 마을만들기사업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됨.

- 전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만들기사업의 중요성’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인지함.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번의 소그룹교육으로 주민만남과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자발적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았음.

11. 중간관리자 이상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

- 2번의 소그룹교육에 평직원 위주로 참여하다보니 중간관리자와 의견이 상이하여 관점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중간관리자와 비슷한 관점으로 마을지향을 바라보기를 희망함.
- 복지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중요하다는데 왜 평직원만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며, 마을지향 /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슈퍼비전을 원함.

2. 2년차(2018년)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분류	내용	
1. 마을공동체지향 관점 갖기 및 내재화	직원전체교육	
	직원역량강화 팀 스터디(5개팀 참여)	
	중간관리자 스터디 & 워크숍	
	소그룹 심화교육 - 주민조직화(11월예정)	
2. 마을지향관점 갖고 사업해보기	팀스터디에 스터디한 사업으로 결정	2-1. 행복한 이웃만들기[사례지원팀] / 진행 중
		2-2. 취업자여가문화활동[직업지원팀] / 진행 중
		2-3. 장애/비장애 청소년통합 인권교육[가족지원팀] / 진행 중
		2-4. ‘드림빙버스킹’[기능향상지원팀] / 진행 중
		2-5. 재활운동실 ‘자조모임 및 활동’[문화여가지원팀] / 진행 중

① 직원전체교육

- 일시 : 2017년 3월 15일 17:30~19:30
- 장소 : 복지관 강당
-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39명

- 주제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이해 및 적용
- 교육방식 : 그룹(6~8명)으로 조를 나누어 진행
- 교육 후 소감 발췌

- 신규사업을 고민하기 보다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을 마을지향으로 녹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음. 지금 현재 팀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과정이 조금 더 심화 된다면 좋겠음.
- 팀장님들의 별도 교육이 필요해보임 관장님이 교육에 참여했으면 함.
- 기존에는 마을만들기, 공동체라는 말이 먼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내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고 함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바라보면 화려하거나 거창하게 아니고 내 가까이부터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 조별로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교육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교육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물어보고 요청하고 기록하면서 수업에 더 집중 할 수 있었고 2시간이라는 시간 다른 선생님들과 토론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마을지향 교육을 통해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 직원역량강화 팀 스터디

- 9. 일시: 2018년 3월 13일(화) ~ 8월 2일(목)(총 12 회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 2회 16:00~20:00 교육진행
※ 1회차(3/13), 2회차(3/27), 3회차(4/12), 4회차(4/26), 5회차(5/2), 6회차(5/16), 7회차(6/20), 8회차(7/4), 9회차(7/11), 10회차(7/18), 11회차(7/25), 12회차(8/2)
- 9. 장소 : 3층 소회의실
- 9.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8명 ※ 참여도를 높이고자,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진행함.

6.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년차 사업정리 및 사례집 ❶

순번	이름	담당부서 / 직위	주요업무
1	고은실	사례지원팀/팀원(사회복지사)	사례지원활동, 지역자원연계
2	김계형	기능향상지원팀/팀장(특수체육교사)	문화여가지원사업 총괄
3	김형준	지역연계팀/팀장(사회복지사)	지역연계사업 총괄, 마을지향자원연계 및 자원개발
4	양수현	가족지원팀/팀원(사회복지사)	성장멘토링, 청소년사회성PG
5	윤성일	지역연계팀/팀원(사회복지사)	마을만들기, 후원사업
6	전선이	지역연계팀/팀원(직업재활사)	마을만들기, 주민조직화, 홍보사업
7	정미선	기능향상지원팀/팀장(작업치료사)	기능향상지원 총괄
8	최지원	직업지원팀(직업재활사)	지원고용, 직업적응훈련

10. 사전자문 내용(※ 스터디 운영 방안 및 사업 진행내용에 따른, 자문)/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

첫째,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둘째, 당사자가 지역주민가 더 교류하는가?
 셋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각 사업별로 점검하며, 사업별로 이루려는 궁극적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볼 수 있음.
 이후, 큰 그림을 단계별로 나누어, 1단계는 어느것부터 2단계는 다음것.. 이런식으로
 논의하여, 정리하면 좋을 듯 조금씩 부담안되는 수준으로

9. 진행방법

- ※ 1가지 주제로 2회 진행 1차 회의 사업공유 및 이해 / 2차 회의 사업방향 및 적용 방법 토론
- 주차별 주제

-
- 1회기 :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역량강화 ‘팀스터디’ 진행일정 논의
2회기 : [사례지원팀] ‘행복한 이웃만들기’ 사업공유 및 이해
3회기 : 사업방향 및 적용 방법 토론
4회기 : [기능향상지원팀] 음악활동 ‘드리밍버스킹’ 사업공유 및 이해
5회기 : 사업방향 및 적용방법 토론
6회기 : [가족지원팀] 청소년통합지원 ‘장애·비장애 청소년통합 인권교육’ 사업공유 및 이해
7회기 : 사업방향 및 적용방법 토론
8회기 :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공유 및 이해
9회기 : 사업 방향 및 적용 방법 토론
10회기 : [문화여가지원팀] 재활운동실 ‘자조모임 및 활동’ 사업공유 및 이해
11회기 : 사업 방향 및 적용 방법 토론
12회기 : 사업 총 정리 및 마을지향관점 사업 계획서 작성
-

□ 스터디 후 소감 및 기타 의견

- 팀 스터디를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음.
- 처음에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마을지향관점으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만 해야 하고,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 주민을 만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문을 받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상과 범위를 서로 합의하였고, 방향을 함께 설정하여 좋았음.
- 모든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함.
- 내부적으로 팀내 사업에 대해 마을지향관점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못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함께 고민한 내용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함.

③ 중간관리자 스터디 및 워크숍

9. 일시: 2018년 6월 14일(목) ~ 7월 7일(토)(총 4회기)

매주 목요일 오후 15시 ~ 18시(1박 2일 워크숍)
 ※ 1회차(6/14), 2회차(6/21), 3회차(6/28), 4회차(7/6~7)

9. 장소 : 3층 대회의실 & 월평빌라

9.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9명 ※ 참여도를 높이고자, 자발적 신청자에 한해 진행함.

순번	이름	담당부서 / 직위	주요업무
1	김경환	-/관장(사회복지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총괄
2	김오택	-/사무국장(사회복지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총괄
3	김형준	지역연계팀/팀장(사회복지사)	지역연계팀사업 총괄
4	김은혜	사례지원팀/팀장(사회복지사)	사례지원팀사업 총괄
5	정미선	기능향상지원팀/팀장(작업치료사)	기능향상지원팀사업 총괄
6	김계형	문화여가지원팀/팀장(특수체육교사)	문화여가지원팀사업 총괄
7	신사임	직업지원팀/팀장(사회복지사)	직업지원팀사업 총괄
8	김원종	사회서비스팀/팀장(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팀사업 총괄
9	나주연	기획운영지원팀/팀장(사회복지사)	기획운영지원팀사업 총괄

9. 진행방법

- 1회기 :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만들기 이야기 /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윤경국장
- 2회기 : 마을지향복지관 변화에 의미와 실천하기 /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
- 3회기 : 화곡마을살이 만드는 과정과 이야기 / 前 화곡마을살이 한수미대표
- 4회기 : 월평빌라 기관견학 및 월평빌라 마을지향관점 사업듣기 / 월평빌라 박시현원장

□ 스터디 후 소감 및 기타 의견

1. 교육의 효과

- 마을지향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알게된 계기가 됨.
- 제한된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과정과 사례들이 가슴에 와 닿았음.
- 마을지향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해소되었고,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줌
- 양원석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강점관점으로 복지사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트렌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마을지향관점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지향사업이야기' /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윤경 국장

2-1. 배울점은?

- 같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확장시킬수 있구나. 우리가 너무 안일했었다 라는 자아성찰의 시간
- 직접서비스팀에서 마을지향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을 느낌.
- 사업담당자들이 지역주민들을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하는 과정
- 장애인복지관도 마을지향 사업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사업 제시
- 지역주민모임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사업계획서에 나온 일의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존경스럽다.

2-2. 팀 사업과 접목시켜 진행할 부분

- 팀사업과 접목시킬 부분은 차지 못함.
- 지역연계팀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원(인적/물적)을 직접서비스팀과 공유 및 연계를 통해 접목 가능할 것으로 봄
- 지역 내 체육 시설의 장애인 개방과 문화사업(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
- 실적 위주의 업무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자의 지지가 필요
- 각 종 위원회 구성시 이용자 참여유도
- 억지로 시켜서 지역주민모임에 가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에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본인이 만나고 싶은 지역주민모임에 대해 탐색한 후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함. 모임은 만들기보다는 기존 모임에 일원으로 들어감.

2-3. 접목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의 한계가 있나요?

- 지역주민들을 만나러 나가고 함께하고....조직화사업을 하기에는 팀 성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함.
-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장애인에 대한 관점 및 인식 전환)
- 사업의 이해 및 참여의지 부족
- 사례관리 대상 장애인의 모임의 기회 마련
- 업무의 과중도가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고, 워라밸이 중요한 이 시기에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로 생각할 수 있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마을지향관점 변화에 의미와 실천하기 /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

3-1. 배울점은?

- 마을지향관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음. 관점의 변화 / 너무 좋았음.
- 마을지향복지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음.
- 우리복지관 사업들마다 마을지향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음.
-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분석해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작은부분에서 시작
- 기존의 사업에서 대상자(이용자)를 주체적으로 세울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중에 많은 사업들이이미 마을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배웠다.

3-2. 팀 사업과 접목시켜 진행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 이용자에게 권을 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좀 더 해야겠다는 점. 너무 우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반성을 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음. 또한 분기별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보다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지지해주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사료됨.
- 팀 사업 전방에서 마을지향관점을 가지고 사업이 운영 방법 및 내용에 접목 시킬 필요성이 있음.
-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자의 욕구를 접목하여 자활 증진
- 행복한 이웃만들기
- 팀원들에게 마을지향관점 사업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그 부분을 함께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해볼 예정이다.

3-3. 팀접목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의 한계가 있나요?

- 접목이 어려운점이 없었음.

4. 화곡마을살이 만드는 과정과 이야기 / 前 화곡마을살이 한수미대표

4-1. 배울점은?

- 제대로된 조직화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음.
- 장애인복지 기관의 한계점(관내 서비스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움직일 수 있게하는 원동력(장애인복지 기관의 정체성 재확립)
- 표적지역에서 소소한 생활부터 주민과 함께하며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마을을 만들어가는 것

4-2. 팀사업과 접목시켜 진행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 이용자분들이 보다 즐겁게 복지관을 이용하고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음. 또한 복지관도 외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됨.
- 직접서비스팀에서 주민 조직화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직접서비스를 매개로한 이용자와 보호자의 유대감을 기반으로한 자조모임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이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 있음.
- 지역주민들(장애인과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마련(ex. 휠체어 마라톤대회)
- 지역조사부터 단계별로 접근 필요

4-3. 접목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이 한계가 있나요?

- 조직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적인 어려움.... 본관에서 진행해야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화의 진정한 의미(휠체어를 밀고 달려야하는 이유)를 깨닫는 부분
- 팀 업무상 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짐.
- 중간단계부터 진행하고 있음.

5. 월평빌라이야기 / 월평빌라 박시현원장

5-1. 배울점은?

- 새로운 거주시설의 모델을 본 것 같음.
-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직원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진정성, 가족애) 우리복지관 직원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
-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감
- 3가지 장애인복지관에서 접근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참여확대
- 나는 장애인생활시설은 변두리에 있고, 거기에서만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월평빌라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활동하는 영역을 마을전역으로 생각한 부분이 배울점인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혼자가 아닌 같이할 동료와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배울점인 것 같다.

5-2. 팀 사업과 접목시켜 진행할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 지역사회중심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면...목욕탕..이미용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체육관 문화여가 시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활동지원 이용자의 자립생활 지지와 지원
- 복지관내에서 하기보다 지역 나가서 하는 사업확대 필요
- 월평빌라에서 한 것처럼 사회복지 근본적인 철학,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치관과 철학이 기관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5-3. 접목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의 한계가 있나요?

- 이용자 안전, 편의를 감안하면...현실적으로..음...
- 직접서비스를 하는 팀에서 접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타팀에서도 인력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표면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하나 편의시설, 배려,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들이 팽배,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라 마인드
- 지역의 자운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다.

6. 본인이 생각하는 마을지향관점사업에 대해 작성해보세요

- 당사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업
-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기존에 중요시 하면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와 소통 동의 개념이 보다 발전한 형태와 관점이라고 봄.
-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이며 지역주민임. 장애인복지 종사자부터 지역주민과 장애인으로 분류하려는 심리가 있음(ex.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000) 마을지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는 것 그것이 마을지향관점임.
- 사업의 실패와 실적을 떠나 작은것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면 된다.
- 당사자가 참여해서 활동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것.
- 마을지향.. 항상 부담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에서부터 마을지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사가 기획/계획/홍보/준비/진행/결과보고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

□ 사진자료

1	1회차 스터디	2	2회차 스터디
			
3	3회차 스터디	4	중간관리자워크숍 (월평빌라이야기듣기)
			

④ 마을지향관점 갖고 사업해보기

- 사업이 각 팀별로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어 스터디를 통해 변화된 관점과 기재함.
- 각 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 사업에 대해 알고 싶으면 각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12 [사례지원팀] '행복한 이웃만들기'

사례지원팀 '행복한 이웃만들기' 사업공유 및 이해

1. '행복한 이웃만들기'란?

1) 목적 : 이용자들간의 친목도모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내의 공동체 의식을 높임.

2) 세부내용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수행시기
밥상모임	- 절기에 맞는 저장음식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나누도록 함.	5,8,11월
즐거운명절	- 재가장애인들과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눠 먹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	2,9월
작은품앗이	- 기관과의 연계하여 다양한서비스(문화여가 등)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제공	연중(월1회)
이웃만들기	- 장애가정과 자원봉사자간의 1:1매칭하여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월1회

2. 사업진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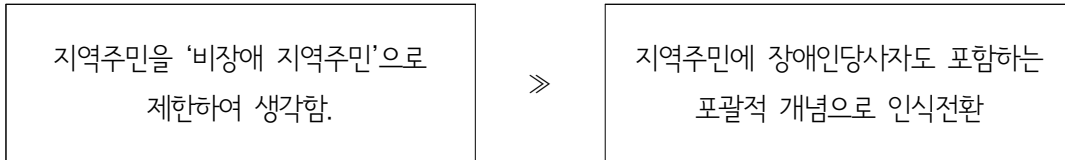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사진자료
즐거운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명절실시 - 일시: 2018.2.12(월) 10:00~13:00 - 장소: 목동이용자 가정 - 참여인원 : 재가장애인 3명, 지역주민 4명 - 활동내용 :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눔 	
작은품앗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품앗이 - 일시 : 2018.01.31(수) 14:00~17:00 - 장소 : 현대백화점 목동점 - 활동내용 :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준비하는 재가장애인가정 자녀 학용품들을 함께 구입함. 	

3. 함께 고민이 필요한 주제

- 품앗이의 의미는 힘든일을 서로 거들며 서로 돕는 것을 말함. '작은 품앗이'에 품앗이의 의미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 작은 품앗이를 통해 이용자가 지역사회의 소통 및 참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

‘행복한 이웃만들기’ 사업관련 브레인스토밍

1. 지역주민(이웃주민) 의 인식전환



2. 세부프로그램 관련 사항

프로그램명	논의 내용
밥상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반찬서비스 종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함. - 정기적인 실시하여 이용자들간 자조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들이 반찬메뉴, 재료구입등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진행시 내부자원과 연계 : 맛깔손(레시피 공유 및 초청강사 초빙), 식자재납품업체(쉐프초빙 및 특가), 이마트 문화센터
즐거운 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와 이웃주민들간 관계를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마련하여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미니 체육대회 등)
작은 품앗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들이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이용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웃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만들기’의 사업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명을 변경하여 ‘행복한 이웃만들기’ 단위사업 내 명확하게 구분 - 사전에 이웃만들기 시작할 때 지원내용 및 활동내용에 대한 공유 - 참여하는 장애가정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 참여가정 및 자원보야자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니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

* 공통사항

- 행사성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맺어 서로 이름을 알고 인사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형성하도록함.
- 많은 인원보다는 2~3명 소소하게 시작하며, 기존 계획된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음.
- 단위사업당 동담당자가 1명씩 배치하여 해당동에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함.

(ex. 밥상모임-고은실(신월동), 즐거운 명절-양현석(신정동), 작은품앗이-박해나(목동))

‘행복한 이웃만들기’ 사업 스터디 결과

	실행계획수립과정	
	기존 사업진행방향	스터디 후 사업진행방향
①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할 음식메뉴를 담당자가 선택 - 이용자는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모임 실시 - 참여자들이 메뉴선정 - 직접 역할 분담 - 추후 재료구입까지 확장
② 당사자가 지역 주민과 더 교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번 새로운 이용자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대상이 참여 - 당사자 및 지역주민들(자원 봉사자)과 인사 나눔부터 시작 - 친밀한 관계 형성 및 교류 기회 증가
③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가정 혹은 복지관 내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가정 - 지역사회 내 기관과 연계 ex. 주민센터 - 먹거리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여 참여도를 높임.

9. 기능향상지원팀 “드리밍 버스킹”

기능향상지원팀 “드리밍 버스킹” 사업공유 및 이해				
1. 2018년 사업 계획				
성과목표	활동 (수행방법)	수행 시기	수행 인력	시행 횟수 시간
이용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 및 지역 사회 교류와 장애인식 개선	- 합창, 악기연주 공연 및 장애인식 개선활동 실시 - 유동인구 많은 지역사회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	6월, 9월	팀원 9인	연2회
2. 세부내용				
1) 버스킹 공연				
- 행복한 악기연주단(000외 2명) 20분, 신나는 합창단(000외 9명) 20분 공연				
- 지역주민 참여 위해 합창 시 악기(과일쉐이커&마라카스) 및 순서지(가사 포함) 배포				
2) 장애인식 개선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의 프로그램 취지소개				
- 응원 메시지 판넬 비치 및 장애인식개선 물품(하트하트재단 제공) 배포 100부				
3. 사업경과				
평가	반영내용			
공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악기(과일쉐이커&마라카스) 및 순서지(가사 포함) 배포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 필요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및 장애인식개선 위해 응원 메시지 판넬 비치			
공연의 질 향상 및 보다 주도적이고 잘 하는 모습 보여서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악기연주단이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노래 부르기, 대중적인 곡 준비, 합창시 간단한 율동을 함께)	2018년 프로그램시 반영하여 진행 예정			
4. 논의 사항				
1) 장애인식개선 활동시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역할 방안?				
2) 지역주민과의 보다 다양한 교류 방안?				
3) 기능향상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와 사업의 방향성?				

기능향상지원팀 “드리밍 버스킹” 마을공동체지향 사업 방안

1. 2018년 사업 계획

성과목표	활 동 (수행방법)	수행 인력
이용자의 사회적 기능 향상 및 지역 사회 교류와 장애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창, 악기연주 공연 및 장애인식 개선활동 실시 - 유동인구 많은 지역사회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6/26) - 복지관 옥상에서 옥상달빛음악회 진행(9/18) 	팀원 9인

2. 세부내용

1) 버스킹 공연

- 행복한 악기연주단(000외 2명) 20분, 신나는 합창단(000외 9명) 20분 공연
- 지역주민 참여 위해 합창 시 악기(과일쉐이커&마라카스) 및 순서지(가사 포함) 배포

2) 장애인식 개선활동

- 발달장애 청소년의 프로그램 취지소개
- 응원 메시지 판넬 비치 및 장애인식개선 물품(하트하트재단 제공) 배포 100부

3. 사업방안

논의 사항	사업 방안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역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지에 이용자 글씨 & 그림 넣기 - 이용자가 순서지 배포하기
지역주민과의 보다 다양한 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이커 흔드는 법, 따라 부를 부분 등 미리 알려주기 - 곡선정시 누구나 아는 가요 포함 - “옥상달빛음악회”를 옥상이 아닌 복지관 주차장에서 진행하여 지역주민 참여 늘리기, 음악회 후 문화팀 문화공연과 협연하여 영화 관람 등 기획
기능향상지원 프로그램의 한계(공연의 질 & 인식개선 기여도)와 사업의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지에 프로그램 취지 넣기 - 타팀 협조 의뢰 * 지역연계팀 화색리본 나누기, 인식개선, 서포터즈 등 * 문화여가팀 오케스트라, 난타 등 * 지역사회 동아리(통기타, 우쿨렐레) 연계 공연 & 연습(지역연계팀 협조) * 스토리텔링 가능한 사회자 섭외 & 대본 협조
기타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설치시 지역연계팀 트러스 대여

기능향상지원팀 “드리밍 버스킹-달빛음악회” 스터디 결과

	실행계획수립과정	
	기존 사업진행방향	스터디 후 사업진행방향
①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준비된 큐시트를 읽는 것으로 사회를 봄. - 이용자가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공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지에 이용자 그림, 글씨 넣기 - 이용자가 직접 친구 및 가족에게 초대장 작성하여 초대 - 이용자가 큐시트를 읽는 것으로 사회를 봄.
② 당사자가 지역 주민과 더 교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과일쉐이커&마라카스) 및 순서지(가사 포함) 배포 -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만 공연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쉐이커 흔드는 법, 따라 부를 부분 등 미리 알려주어 주민 참여유도 - 곡선정시 누구나 아는 가요 포함 - 이용자 뿐 아니라 친구, 가족들 간 협연독려
③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옥상에서 가족과 친지초청하여 “드리밍버스킹-옥상달빛음악회”진행 - 복지관 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옥상이 아닌 지구촌 교회 앞에서 진행 - 공연 전 공연 장소에 현수막 게시하여 지역사회 홍보

9. 가족지원팀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인권교육”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인권교육

1.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 통합인권교육을 통한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및 비장애청소년 인권감수성 향상
- 내용
 -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 프로그램 진행
 - 월1회 인권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장애청소년 사회성 향상 및 지역주민 역할 기회 제공
 - 비장애청소년 장애 이해, 인권에 대한 교육 및 경험을 통해 인권감수성 향상

2. 계획 내용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장애·비장애 통합 인권교육	○ 수행방법 : 장애·비장애청소년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실시(그룹활동, 토론, 캠페인 등) ○ 활동일자 : 월1회 4시간 (총 5회기) ○ 수행인력 : 사회복지사1명, 강사1명 ○ 프로그램 세부	3월~7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회기</th> <th style="width: 15%;">주제</th> <th style="width: 45%;">세부 내용</th> <th style="width: 30%;">담당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형성 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관계형성, 활동목표설정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 복지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 청소년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장애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노동자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 노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사</td> </tr> </tbody> </table>		회기	주제	세부 내용	담당자	1	관계형성 나	관계형성, 활동목표설정하기	사회 복지사	2	청소년	- 청소년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3	장애인	- 장애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4	노동자	- 노동자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5	노인	- 노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회기		주제	세부 내용	담당자																					
	1		관계형성 나	관계형성, 활동목표설정하기	사회 복지사																					
	2		청소년	- 청소년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3		장애인	- 장애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4	노동자	- 노동자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5	노인	- 노인 인권 주제 교육 - 그룹·토론활동	강사																							
우리가 함께 즐기는 : 인권 워크숍	○ 수행방법 : 참여자의 사기증진·친목도모 및 향후 프로그램 진행방향 논의를 위한 당일 연수 진행 ○ 수행인력 : 사회복지사1명	8월																								

2. 계획 내용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 인권 학교	○ 수행방법 : 통합인권교육 참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인권워크숍에서 선정된 주제와 내용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동아리 형태로 스스로 계획 및 구성 ○ 대상 : 참여 청소년 10명 지역사회 청소년 15명			
	회기	주제	세부 내용	담당자
	1	인권학교 준비	-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주제에 대한 심화체험 학습 진행 - 인권학교 실행 내용장소 선정	강사, 사회 복지사
	2	인권학교준비	- 인권학교 사전 준비활동 - 인권학교 물품 만들기	사회 복지사
	3	인권학교 실시	-인권학교 진행	사회 복지사
◆ 위와 같이 구성되나 참여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함.				
수료식	○ 수행방법 : 1년 동안의 활동 마무리 활동 소감 발표, 수료식 진행, 프로그램 평가, 설문조사 ○ 수행인력 : 사회복지사 1명			12월
부모 인권교육	○ 수행방법 :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비장애 통합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대상 : 참여 청소년 학부모 10명 ○ 수행인력 : 사회복지사 1명			3월 (연1회)

3. 현재 진행 상황

-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장애청소년 4명과 비장애청소년의 경우 면접을 통하여 8명 선정
- 총 10회기 중 3회기 진행 (5월 기준)
- 사전 계획 내용을 변경하여
 - 1회기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활동(명칭만들기, 다양한 이야기 상황 경험해보기)
 - 2회기 인권에 대한 기본이론, 학교에서 기쁠 때,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야기나누기
 → 변경사유 : 첫 진행부터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움
 인권은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인권감수성향상이 먼저

4. 고민내용

- 계획된 10회기 동안 어떤 내용의 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고민
- 인권에 대해 함께 배우고 다른 지역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기획하는 인권 학교를 계획하였으나 짧은 회기 진행으로 방향성 고민

<가족지원팀 '장애·비장애통합인권교육' 사업관련 논의내용>

□ **활동내용**

- 청소년 인권 선언문을 읽어보고 현재 현실에 비교해보는 활동
- 소수인권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 자신들이 해당되는 청소년 범위 안에서 진행
- 다른 나라의 장애에 대한 사례비교하는 활동
- ebs등 사례 영상이나 영화를 이용하여 이야기하는 활동

□ **활동방법**

- 교류 vs 교육
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친목활동 진행필요(ex 토론, 이야기, 액티비티 활동)
- 인권학교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려움이 있어 학교가 아닌 다른 명칭과 형태 고민필요
ex)지역주민 만나기 기획→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나 배운 것을 알려주는 캠페인
- 3개조로 인원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상호작용 항상 필요
- 활동 주제를 청소년이 선정(브레인스토밍 진행)하는 것도 방법
- 활동이 끝난 후 직접 활동일지 작성하는 것도 방법

□ **향후 고민내용**

- 월1회 진행하는 것(횟수, 기간 고민필요)
- 활동 진행을 통해 계절학교 진행 연계
- 후년에도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활동 진행
- 장애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법 고민 ex) 직원

문화여가지원팀 “장애/비장애청소년통합인권교육” 스터디 결과		
	실행계획수립과정	
	기존 사업진행방향	스터디 후 사업진행방향
①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사전에 구성하여 소수인권(청소년, 장애인, 노동자, 노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그룹활동, 토론,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 사전에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욕구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된 환경에서 통합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제공 - 활동내용에 대해 참여자들이 사전에 논의하여 선정 - 활동주제/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 제공
② 당사자가 지역 주민과 더 교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인권학교라는 통합인권교육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한 내용으로 지역사회청소년 대상 인권 교육 프로그램 진행예정 이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학교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려움이 다른 명칭과 형태에 고민 - 하지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면 좋은 기회가 되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참여자들이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 - 올해는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참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합의가 되었을 때 기회를 제공하고 진행을 할 때에도 결과물이 아닌 함께 경험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 1차로 마을지향스터디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2차로 교육적인 내용으로 진행할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 중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함께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진행 예정임.
③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	- -

9. 직업지원팀 “장애/비장애청소년 통합인권교육”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공유

1.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직업유지
- 내용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 여가활동 진행 시 취업후적응지도 (담당자상담, 동료상담, 정보공유, 회의)
 - 자치회의를 통한 독립성 강화
 - 타 기관과 연계하여 자치회의 진행

2. 사전 계획 내용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취업자 여가문화활동	○수행방법 : V기준: 관내 중증장애인 취업자 10명/담당자와 함께 회의 진행 V계획: 관내 중증장애인 취업자 10명/그 외 단체 1팀(5명~10명) 함께 자치회의를 통해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진행 ※ 단체 1팀은 장애유무 상관없음, ex)대학교동아리팀, 양천서포터즈팀, 발 권연 임원팀, 타 복지관(센터) 취업자팀 ※ 담당자는 조력자 역할,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기 상황 시 개입, 문화활동 전 모든 과정 두 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일자 : 8월, 10월, 12월 (총6회/회의 3회, 문화활동 3회) ○ 수행인력 : 직업재활사1명 ○ 참여인원 : 관내 중증장애인취업자 10명. 그 외 단체 총 3팀 모집(8월, 10월, 12월 1회기씩) ○ 프로그램 세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회기</th> <th>주제</th> <th>세부 내용</th> <th>담당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문화활동 1팀 회의</td> <td>관계형성, 자치회의</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문화활동 1팀 진행</td> <td>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문화활동 2팀 회의</td> <td>관계형성, 자치회의</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문화활동 2팀 진행</td> <td>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문화활동 3팀 회의</td> <td>관계형성, 자치회의</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문화활동 3팀 진행</td> <td>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td> <td>직업재활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2018년도 평가회</td> <td>취업자여가문화활동 평가회 진행 회의를 통한 2019년도 활동계획</td> <td>직업재활 사</td> </tr> </tbody> </table>	회기	주제	세부 내용	담당자	1	문화활동 1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2	문화활동 1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3	문화활동 2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4	문화활동 2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5	문화활동 3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6	문화활동 3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7	2018년도 평가회	취업자여가문화활동 평가회 진행 회의를 통한 2019년도 활동계획	직업재활 사	3월~ 7월
회기	주제	세부 내용	담당자																															
1	문화활동 1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2	문화활동 1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3	문화활동 2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4	문화활동 2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5	문화활동 3팀 회의	관계형성, 자치회의	직업재활 사																															
6	문화활동 3팀 진행	문화활동 진행, 평가회의, 평가지 작성	직업재활 사																															
7	2018년도 평가회	취업자여가문화활동 평가회 진행 회의를 통한 2019년도 활동계획	직업재활 사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공유

3. 현재 진행 상황

- 총 8회기(여가문화활동 6회, 발권연 2회) 중 4회기 진행 (6월 기준)
 ,1회기 발권연참여로 진행되며 나머지 3회기(8월, 10월, 12월) 여가문화활동으로 진행
- 담당자 1명과 취업자 10명~15명(평균 참여인원)이 함께 회의를 통하여 진행
- 프로그램 종료 후 활동의견조사지를 통해 만족도 파악 및 의견 반영

4. 고민내용

- 관내 취업자 팀 외 단체팀 모집 시 장애유무 상관
- 단체팀에게 장애관련 교육이 필요한가? (프로그램 설명 이외)
- 문화여가활동 진행시 약간의 주제는 제공해 주어야하는가?
 ex) 실내/실외, 놀이공원 이용
- 담당자의 개입정도
- 예산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방안

1.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 문화여가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직업유지
- 내용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
 - 여가활동 진행 시 취업후적응지도 (담당자상담, 동료상담, 정보공유, 회의)
 - 자치회의를 통한 독립성 강화

2. 사업방안

논의사항	사업방안
타 기관과 연계하여 자치회의 진행	타 기관과 연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준비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관내복지관 취업자 대상으로 자치회의 진행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방안

논의사항	사업방안
담당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원활한 자치회의가 어려움 (자치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적 논의)	회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필요 : 회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왜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육, 회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
	담당자의 역할 축소 : 취업자 역할 배분/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홍보, 사무 등 회의를 통해 역할 배분하여 권력을 나누고, 본인도 하나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 역할이 부족할시 2달씩 돌아가면서 진행
	회의진행방식, 의사소통의 다양성 추구하고 시도 : 대화, 단독방, 글쓰기 등 소극적인 취업자를 위한 배려필요
	규칙정하기 : 이용횟수, 시간, 단체톡방 이용시간, 존칭사용, 회의진행 방법, 지각, 예고 없는 불참 등
	담당자의 제시, 개입 :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의순서를 칠판에 적은 후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의견이 없을시 투입하여 의견(보기)제시
문화여가활동의 한정성	담당자가 개입하여 다양한 방식(시각적 자료 활용, 경험 이야기하기 등)으로 몇 가지의 의견 제시 및 의견 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
취업자간 관계형성 미흡	편안한 자리에서 본인의 애로사항을 주고받는 시간이 없었음.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회식 진행
취업자 교육(모임 진행하기, 기획홍보방법(카페 및 밴드 운영), 예산관리, 스피치 교육 등)	취업자 교육에 담당자들이 바로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담당자들의 교육 참여, 스터디모임 진행, 타 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담당자의 역량 강화 후 교육 진행 예정

직업지원팀 “취업자여가문화활동” 사업 스터디 결과

	실행계획수립과정	
	기존 사업진행방향	스터디 후 사업진행방향
<p>①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1회 회의 진행하여 연간계획 수립 - 월마다 sns에서 간단한 의견 제시, 투표 진행하여 활동 진행 - 사후 평가 없음. 만족도조사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회의 진행하여 다음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진행 - 각 역할을 분담하여 회의 및 활동 진행 - 활동 끝난 후 자치회의를 통한 평가(만족도조사지 포함)
<p>② 당사자가 지역주민과 더 교류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활동 진행 시 담당자의 역할이 큼(계산, 예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의를 통해 지역 내 활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p>③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에서 문화여가활동 하며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을 스스로 찾아보고 계획하며 문화여가활동 이용 방법 습득

9. 문화여지원팀 재활운동실 - 자조모임

문화여가지원팀 “재활운동실” 사업공유

1.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목표 : 개인에게 알맞은 자가운동방법을 익히고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운동기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 및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일조함.

□ 내용

- 주5회 50주 운동기구를 이용한 개인별 자가운동
- 개인별, 장애유형별 적합한 운동방법 및 스케줄 관리 지도
-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원과 연대감을 형성을 유도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용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조모임으로의 역할을 극대화

2. 사전 계획 내용

프로그램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재활운동실 (자치위원회)	○수행방법 : 재활운동실 내부 투표를 통하여 자치회장을 선발 자치회 임원진은 회장의 권한으로 구성하고 재활운동실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발의 및 조율을 함. ○ 활동일자 : 매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 ○ 수행인력 : 재활운동실 담당자 1명 ○ 참여인원 : 재활운동실 자치위원회장 1명외 임원 5명 ○ 프로그램 세부 : 월1회 자치위원회의 실시 , 나들이 장소 선정 및 이용자 의견 대변, 복지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 실시	1월~12월

3. 현재 진행 상황

- 2016년 4월 기점으로 재활운동실 자치위원회 구성 보류
- 당시 회장의 건강상 활동 불가 사유로 차기회장 선출 불가
- 재활운동실 자치위원회의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4. 문제점

- 재활운동실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 불가
- 자치위원회와 이용자들의 갈등 발생
- 자치위원회 역할 수행에 대한 의문점 발생
-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문화여가지원팀 “재활운동실” 마을공동체 지향 사업 방안

1. 2018년 사업 계획

성과목표	활동 (수행방법)	수행 인력
개인에게 맞는 자가 운동법을 익히고 활용공간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운동기능을 유지 및 향상	- 운동기구를 이용한 개인별 자가운동 - 재활운동실 이용등록 - 운동지도방법에 따라 자가운동 - 장애별 적합한 운동방법과 기구사용 지도 - 1:1 면담 및 운동기능 상담 - 기구사용방법과 안전수칙 안내	팀원 4인
장애인의 건강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 자존감 향상	- 재활운동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근교로 나들이 진행	

2. 세부내용

- 1) 운동기능 향상 및 재활의식 고취
 - 주5회 50주 운동기구를 이용한 개인별 자가운동
 - 개인별, 장애유형별 적합한 운동방법 및 스케줄 관리 지도
- 2) 이용자들의 정서 및 자립지원
 -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지원과 연대감을 형성을 유도
 -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용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조모임으로의 역할을 극대화

3. 사업방안

논의 사항	사업 방안
자치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웃음치로나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시. 단합도모를 통한 자연스러운 구성 - 리빌딩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계기 마련
자치위원회와 이용자들의 갈등 발생	- 자치위원회와 이용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 마련 *담당자 개입은 불가*
자치위원의 역할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유도	- 자치위원 임원을 당사자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보호자나 활동지원사로 구성하는 방안 * 팀 회의 결과 당사자 및 보호자와 활동지원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함. 자치 활동지원사의 관점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 우려됨.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 M.T와 같이 자치위원들의 단합을 통하여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 리더십 교육 및 타 유형에 대한 장애이해교육(발달장애인 등)을 통한 역량강화

문화여가지원팀 “재활운동실-자조모임” 사업 스터디 결과

	실행계획수립과정	
	기존 사업진행방향	스터디 후 사업진행방향
① 당사자(이용자)의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 재활운동실 자치회 운영 미비	- 재활운동실 이용자들의 단합을 도모한 후 자치회 구성
② 당사자가 지역주민과 더 교류하는가?	- 기존 자치회 구성은 당사자위주로 구성하였음.	- 향후 자치회는 당사자와 보호자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③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 재활운동실내에서 활동함	- 지역주민과의 활동 추진

Ⅲ. 결론 및 제언

1.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사업진행

1년차	2년 차
<p>[마을공동체지향 이해 및 내재화]</p> <p>1. 마을공동체 / 마을만들기 사업 공유 - 주제 : 마을공동체 지향복지관의 이해 및 경험 '사람이 마을입니다.' - 참여인원 : 복지관직원 34명</p> <p>2. 마을만들기사업 이해 1차 소그룹 교육 - 주제 : 마을만들기사업이해, 퍼시실테이터 역할 및 방법 등 - 교육기간 : 2017. 7. 6~8. 10 - 참여인원 : 총11명(김오택, 김형준, 윤성일, 전선이, 홍혜정, 나주연, 고은실, 양현석, 조현서, 양수현, 최지원, 최원정)</p> <p>3. 마을만들기사업이해 2차 소그룹교육 - 주제 : '왜 마을인가?', '마을공동체 정보 스터디 및 공유' 등 - 교육기간 : 207. 12. 01 ~ 15 - 참여인원 : 총4명(김은혜, 임소연, 김소진, 전선이)</p> <p>[마을지향관점 사업해보기]</p> <p>1. 지역상가 방문하기 - 사업기간 : 2017년 4월~12월(9회기) - 방문가게 : 50곳 - 방문자 : 지역상방문 T.F.T위원 10명 - 방법 : 회의를 통해 지역상가와 소통할 주제 및 방법 논의 : 2인 1조로 1달에 1번 방문</p> <p>2. 지역주민 만나기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11월(8회기) - 만난주민 : 총 1,600명(회기별 200명가량) - 진행방법 : 매월 셋째주 화요일 복지관 인근 골목에서 진행</p> <p>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행사 - 사업기간 : 2017년 8월 ~ 9월 - 방법 : 지역주민과 축제 기획회의(5회기) : 목4동 '전부달인' 진행</p>	<p>[마을공동체지향 이해 및 내재화]</p> <p>1. 직원전체교육 - 주제:마을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이해와 적용 - 참여인원 : 복지관 직원 39명</p> <p>2. 직원역량강화 팀 스터디 - 주제 : 사업별 마을지향관점 적용 - 기간 ; 2018년3월~8월(12회기) - 참여인원: 총8명(고은실, 김계형, 김형준, 양수현, 윤성일, 전선이, 정미선, 최지원)</p> <p>3. 중간관리자 스터디 및 워크샵 - 주제 : 각 기관별 마을지향관점사업 학습 - 기간 : 2018. 6. 14~7.7(4회기) - 참여인원 : 9명(김경환, 김오택, 김형준, 김은혜, 정미선, 김계형, 신사임, 김원종, 나주연,</p> <p>4. 직원심화교육 - 시기 : 11월 중순 예정(3회기) - 주제 : 주민조직화 이해 및 과정 학습</p> <p>[마을지향관점 사업해보기] 직원역량강화 팀 스터디에서 나온 사업으로 진행해보기</p> <p>1. [사례지원팀] '행복한 이웃만들기' 2. [기능향상지원팀] 음악활동 '드리밍버스킹' 3. [가족지원팀] '장애-비장애 청소년통합 인권교육' 4. [문화여가지원팀] 재활운동실 '자조모임 및 활동'</p>

2.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성과

	1년차	2년 차
직원들의 인식	1. '마을',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 조직화'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 2. 사례/지역팀만 가능 3. 주민은 '비장애인 주민'으로 생각 4. 마을만들기는 대도시에서 어렵고 지방에서만 가능 5. 기관 조도의 기획 및 진행	1. '마을',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에 대한 개념 정리 2. 모든 팀에서 가능 3. 주민은 내가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 4.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힘'을 참가하는 이용자들에게 배분 과정
사업의 변화	1. 마을만들기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사업탐색 2. 참여자에게 권력(=권한) 이양	1. 마을만들기개념으로 사업 진행 2. 참여자 혹은 이용자가 기획 및 진행 3. 주민조직화사업 증가 4.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마을만들기 사업 정의
사업 진행의 방향성	팀원부터 마을공동체지향 관점 갖기	중간간과리자부터 최고관리까지 마을공동체지향 관점 갖기 양천장복의 마을만들기사업 정의 및 실행해보기

3.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공동체지향 변화 정의

[마을지향관점사업]

첫째. 당사자(이용자)이 주체가 되는 영역이 늘어나는가?

둘째. 당사자가 지역주민과 더 교류하는가?

셋째.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는가?

[주민조직화]

첫째. 소소하게 진행(2명~3명도 상관없다.)

둘째. 촌스럽게(화려한 계획서, 형식등에 억압되지 마라)

셋째. 성과를 기대하지마라!

4. 한계점 및 제언

[한 계 점]

1. 이직과 출산대체 직원으로 교체로 신규 직원에게 마을공동체변화지향 사업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사업에 숙지하기까지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자료 또한 부재한 상황임.
17. 담당자가 홀로 기획, 계획, 예산편성부터 진행까지 하면 협의과정이 없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하지만 마을지향관점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기획, 계획, 예산편성 등 다양하게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겪어 현재보다 시간과 담당자의 에너지를 기울어야 함.
17. 지역연계팀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지역주민단체와의 교류가 증가하고 또한 각 동에서 진행하는 마을잔치 기획에 초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월 / 10월에 행사가 많아지고 이는 업무의 과중도가 높아진다.
15. 지역연계팀에서 마을주민과 만남을 통해 동의 직능단체 장, 통반장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벤트 행사로 만나고 있어 관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연계팀 자원에서 머물러 있음.
17.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타팀과 속도의 차이가 있으며, 마을과 관계된 일은 지역연계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언]

16. 신입직원교육의 시스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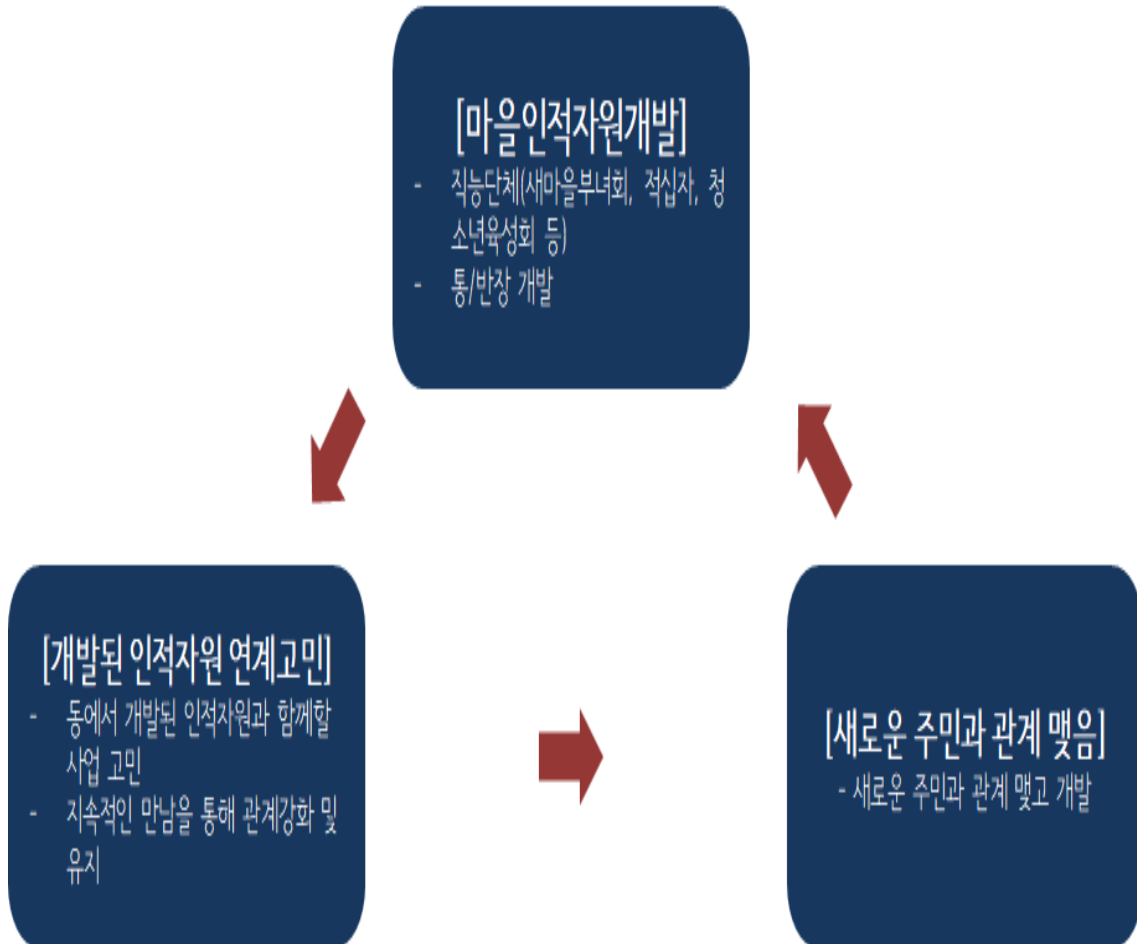
- 1일 8시간 -> 4시간 1주일로 변경 요청
- 현재하고 있는 각 팀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요일별로 테마별 진행하여 '마을지향관점'에 대해 공유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ex. 1일 - 양천장복 인재상 / 2일 - 문서, 회계 처리등 / 3일 - 각 팀 사업의 이해 / 4일 - 자원개발 및 마을만들기 이해 / 5일 - 정리 등

16. 집중 / 유지 / 폐지 사업에 대한 정리

- 새로운 사회문제에 발빠른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사업비중을 80% 유지
- 기관차원에서 집중사업 / 유지사업 / 폐지사업을 공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진행
- 일이 한쪽 팀에 치우치지 않게 일의 배분 혹은 인력 배분

16. 순환적인 구조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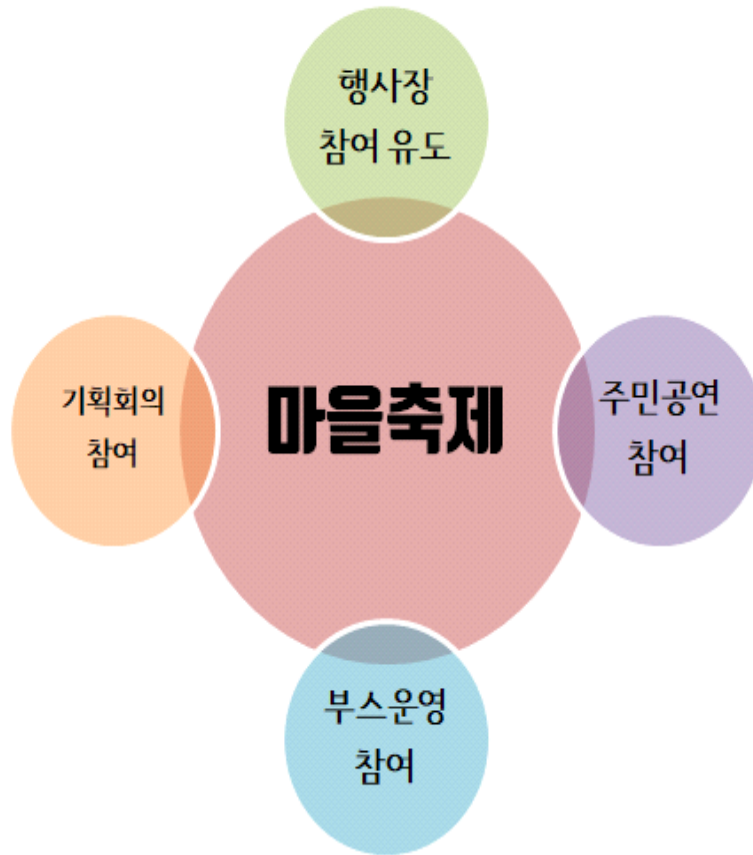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



□ 지역연계팀에서 마을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면 주민들과 함께 고민 하는 팀에서 주민과 연계할 사업을 고민하고 지역연계팀의 이 자원에 대해 연계해주는 역할을 함.

□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는 해당 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관계가 강화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 이라고 사료됨.

[마을의 행사]



▣ 지역주민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8개 팀의 고유의 역할에 관심이 없다.(그건 오로지 기관 종사자만 구분함) → 주민의 인식은 사회복지사, 치료사가 아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만 기억한다.
- 그래서 큰 기관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주민에게 변명으로만 들린다.
-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역할에 기울어야 지역주민도 장애인과 양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업무의 분배

- 현재 마을축제에 한 팀은 기획회의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고, 다른 팀은 해당 동에 사시는 장애가 있는 주민에게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팀은 본인이 운영하는 자조모임 혹은 문화여가프로그램 모임에서 참여하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나타낼 수 있다.

IV. 사례집

사례1.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르는 유니버설디자인단”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 모두를 위한 디자인

지역연계팀 장진영사회복지사

이 사례는 유니버설디자인단을 진행하면서 장애당사자, 활동지원사들과 함께 활동한 내용 중 에피소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단 발대식]

‘10cm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은 우리 기관을 포함한 총 3개 기관이 양천구를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양천구를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상가 주출입구에 경사로 발판을 설치하고, 개방화장실에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진행 중이다. 우리 기관에는 이 사업에 앞서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단’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단은 장애당사자 4인과 활동지원사 3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우리동네 길 다니기 좋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지역상가에 경사로발판의 필요성을 어필한다.

직접 휠체어를 끌고 입구 앞에 서서 ‘이렇게 턱이 있으면 휠체어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경사로를 설치하는건 어떨겠냐’ 라는 말로 업주를 설득하고, 신청을 받는다.

유니버설디자인단에게는 하나씩 변화되어가는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4개월째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나에게 항상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단원 중 장애당사자의 활동지원사분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이는 남매가 모두 지체장애가 있어 부모님이 외식하기 매우 어려워해요. 생일에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기가 어려운데, 유니버설디자인단이 만나는 날은 바깥에서 밥을 먹으니까 전날부터 ‘내일은 뭐먹지?’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먹는 밥 한 끼도 ○○이한테는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 참 고마워요.”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동네를 돌고나서 먹었던 육개장 한 그릇에 정말 잘 먹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을 들었던건지 모르겠다.

그냥 밥 한 끼 먹는 일이라 단순히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가마솥처럼 뜨겁던 올해 여름날,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



[유니버설디자인단 활동모습]

더운날엔 다 같이 땀흘리고 추운 날엔 덜덜 떨면서 노는 게 더 좋다, 걱정하지마라’ 라고 활동 내내 말하던 단원들의 토닥임과, 활동이 끝나고 나면 말로는 전하지 못해도 밝게 웃으며 손 흔들어 주던 단원들의 모습이 참 고마웠다.

유니버설디자인단은 ‘우리 동네 길 다니기 좋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 무엇 인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단이 우리 동네, 양천구를 유니버설디자인 지역으로 만드는 데에 큰 힘을 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례2.

“두려움을 안고 지역주민을 만나다”

지역연계팀 신수련사회복지사

이 사례는 입사 4개월된 신입직원이 처음으로 주민을 조직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새롭게 ‘장애인색개선사업’이 나에게 왔다.

신입직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해하기도 전에, 장애인식개선에 대해 공부해 보기도 전에 시간에 쫓겨 밀린 서류를 처리하기 바빴다.

[장애인식개선전문강사양성 교육 중]

‘세상을 바꾸는 1시간’ 또한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 보다는 수정계획서나 정산서 등 서류와 관련된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서류와 관련된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한 교육 첫째 날, 당연하게도 참여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될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참여자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의 시간이 나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다.

유인아님(가명) : “장애부모로서 나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애인식개선강사가 되고 싶어요”

배정옥님(가명) : “유치원에 장애이해교육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요청이 아닌 내가 직접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원님(가명)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아이의 인권을 위해 직접 사회에 나가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싶어요”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는 하나하나 사연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담당자인 나에게 ‘세상을 바꾸는 1시간’은 그저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이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 스스로 참여자들의 동기와 목표를 항상 되새기면서 더 나은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참여자들보다 장애와 장애인식개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없던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채 내가 생각한 답은 ‘나도 함께 배우자’라는 생각이었다.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해나가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다.

먼저 담당자로서 이 프로그램과 그 안의 사람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게 첫 번째로는 다과였다. 누군가는 다과를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했지만, 나에게도 그것도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기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명함이 있으면 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가 너무 어려워요” 등 흘러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그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하고자 했다.

내가 이 사업을 처음 맡았고 경험이 부족하기에 당연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나 혼자가 아닌 참여자들이 함께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내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처음의 걱정과 불안을 이겨내고 다행히 모든 참여자들이 수료하게 되었다. 계속 홍보사업만 맡아왔다면 세상을 바꾸는 1시간의 참여자들을 만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내가 사회복지사가 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조금은 얻게 되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이 기관의 입사했을 때의 나는 ‘일을 잘하자’ 보다는 ‘내가 마주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실수도 많고 느리기도 하지만, 항상 이용자와 동료에게 정직하고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고 싶다.

사례3.

“따뜻한 팔빙수”

사례관리지원팀 양현석사회복지사

이 사례는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는 작은 품앗이 사업에서 재가장애인 주민 모임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현대백화점 봉사자, 이용자와 함께 보양식을 먹기로 했던 날 ‘백OO님’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날이면 꼬박꼬박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마주칠 때면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는 인상 푸근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삼계탕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연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민망할 만큼 인사하시는 백OO님이 팔빙수를 드셔본적이 없을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삼계탕 식사가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다른 이용자와 함께 팔빙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널찍한 가게 안, 교복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학생들, 시원한 에어컨바람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백OO님을 모시고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여드리자 “저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골라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는 기본 팔빙수가 나오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잠시 고민하시는 듯 하다 비벼드리자 한 숟갈 드시고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 입맛에는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이용자분들과 헤어지고 복지관으로 걸어오는 길에 백OO님이 하신 한마디에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 나이 70에 팔빙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선생님께서 초대해주지 않으셨다면 죽기전에 팔빙수를 구경이나 해봤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나는 당연히 팔빙수를 드셨다고 생각했을까. **“별 말씀은요.”**라고 말씀드리자 환하게 웃으신다. 속으로 생각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례4.

“절망속에 인연을 만나다”

후원개발을 위한 후원담당자의 좌충우돌 이야기

지역연계팀 윤성일사회복지사

이 사례는 자선골프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원자와 함께 한 내용 중 에피소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선골프대회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목동제일교회(푸른선교회)와 공동 주최로 저소득장애인 겨울나기 기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자선골프대회 단체사진]

매년마다 상승하는 물가로 인해 겨울 난방비와 제대로 된 방안용품이 없어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 힘겨워하는 저소득장애가정을 위해 모금이 필요하였고 여러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 때마침 목동제일교회에 푸른선교회라는 골프모임이 있어 관리자의 의견으로 자선골프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선골프대회는 골프대회 대여, 참여자, 참여경품 등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 복지관에서 골프대회를 진행하는 곳은 없다. 이전 성민복지관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18홀 대회는 아니었다. 대회진행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다. 골프를 잘 모르는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인적자원, 물적자원이 하나도 없었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 심지어 대회진행을 위한 자원개발에 관리자들도 하나도 협조하지 않았기에 팀원들의 고통은 엄청났다. 노력 끝에 대회장을 선정하였지만 참가자모집부터 후원 개발하는 일은 절망적이었다. 푸른선교회 쪽에 참가팀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진행하였으나 참가자 모집이 수월하지 않았다. 후원품 개발은 거의 제로였다. 양천구 인근 골프와 관련된 업체 100여개를 방문하여 자선골프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나중에 복지관 팀장님의 지인이 아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용권을 후원 해준 것이 유일한 후원 개발품이었다. 복지관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바뀌는 그들의 냉소적인 표정과 태도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폭염에 시달리며 골프대회 후원개발을 진행하다보니 담당자도 팀원도 모두 지쳐갔다.

‘외근 나가서 돌면 모하나 이렇게 다급하게 후원이 될 일이 없지’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개발 시도가 무섭고 싫어졌다.

“무슨일인데 그래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신○○님이 내게 말을 걸었다.

“자선골프대회를 준비 중인데 아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대로는 대회를 못할 거 같아요”

“내가 예전에 골프 좀 쳤었는데.....내 처남이 골프협회랑 일하는데 소개해줄까요?”

절망적 상황에서 한줄기 빛이 내리는 것 같았다.

신○○님 소개로 만나게 된 후원자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쪽에서 선수들을 코치하는 분이였다.

김○○소장으로 불러 달라 하셨다. 처형(신○○)의 부탁으로 복지관에 온 것이고 자선골프대회에 후원을 약속하는 것에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 코치로써 프로선수의 친척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후원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담당자로서 후원자를 설득해야했다. 첫 미팅 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커피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친해지기 위함이었다. 가끔은 신○○님의 핑계를 대며 복지관에 오시라고 연락을 드렸다. '너무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계속 연락을 했다. 그렇게 여러번 차를 마시고 골프대회의 취지를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김○○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다.

“사실 예전 사업을 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생활시설에 방문하며 음식도 하고 후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봉사와 후원활동을 하지 못했어. 당신 같은 조카뻘이 친구같이 다가와서 계속 설득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다시 봉사와 후원을 하라고 주신 기회 같아.”

이후 김○○님과 함께 골프대회장을 방문하고 여자 프로골퍼, 골퍼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후원개발이 시작되었다. 1회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개도 개발하지 못하여 대회 진행을 포기하려던 절묘한 타이밍에 갑자기 나타난 1명으로 이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많은 후원품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자선골프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비록 참가팀은 부족하였지만 말이다.



[제1회 자선골프대회 경품(후원품)]

1회 대회가 끝나고 김○○님은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였다.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대회사진과 기념품을 후원자에게 전달하니 후원한 선수, 선수부모님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예전 생활시설에서 봉사하던 것과 다른 방식이지만 자신의 삶에서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사하다고 내년에는 더 후원품을 구해줄테니 대회를 더 크게 하자고 했다.

2회 대회준비에는 김○○님과 함께 실제 골프대회장을 갤러리로 참석하면서 골프대회 이벤트부스도 관람하고 경기위원장, 골프대회 운영업체 관계자, 선수매니저를 만나는 등 더 많은 골프관계자들을 만나고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고 더 다양하고 질 높은 후원품 개발이 이루어졌다.

후원개발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담당자의 절실함이 후원을 개발 성공요인일 것이다.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급하지 않게 커피 한잔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다가간 것이 성공요인으로 판단된다. 복지관에서는 많은 후원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후원담당자는 명확한 후원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후원을 요청할 때가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노력을 쏟기 힘들다. 후원의 필요성은 그 사업의 담당자가 제일 잘 안다. 후원은 담당자 1명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가 개발하고 노력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례5.

“양천물놀이 축제”

양천서포터즈단 3기 송민정회장

이 사례는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는 작은 품앗이 사업에서 재가장애인 주민 모임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체샷]

양천서포터즈 3기 단원들과 약 4개월 간 준비하여 진행한 "2018 양천물놀이축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직접 꾸려나간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색했던 단원들과의 첫 만남을 지나 무더운 여름을 함께할 마을 축제를 기획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더불어 이번 3기에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모인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축제를 기획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축제 주제 선정부터 부스 운영, 후원, 홍보, 진행 등 행사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하나하나 배우며 계획을 짜다보니 어렵기도 하고, 막막함도 많이 느꼈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조언들을 통해 조금씩 틀이 만들어졌다.

또한 행사 현수막과 참가자들을 위한 팔찌 제작 등 디자인에도 참여해보고, 기획안까지 우리의 손으로 작성해보는 쉽지 않은 일들을 양천서포터즈단을 통해 경험해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후원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는 부끄러움이 크다보니 너무 조심스럽게만 접근했던 탓에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나하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후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무조건 '을'이 되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조금은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여러 준비과정들을 거치면서 행사 당일까지 미숙하다고 생각된 부분도 꽤 많았고, 과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까 걱정이 앞섰음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풍선 게임부스와 페이스페인팅, 먹거리 부스, 아이스버킷 챌린지까지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없다보니 모든 일정들이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고, 부족했던 부분들도 대처해나가면서 그 역시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다.

<연구사업 2차 양식>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년차 사업정리 및 사례집

엮은이 지역연계팀
김형준 사회복지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경험적 배경

II. 본론

1. 1년차(2017년)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2. 2년차(2018년)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III. 결론 및 제언

1.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결과
2.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변화지원사업
성과
3. 마을공동체지향복지관 관점 정의
4. 한계점 및 제언

IV. 사례집

1.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르는 유니버설
디자인단(장진영사회복지사)
2. 두려움을 안고 지역주민을 만나다
(신수련사회복지사)
3. 따뜻한 팔빙수(양현석사회복지사)
4. 절망속의 인연을 만나다.(윤성일사회
복지사)
5. 양천물놀이 축제(양천서포터즈단 3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향 모색

사회서비스팀 사회복지사
이 인 행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요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대상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출발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법으로 출발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본 제도는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장애인서비스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 초기 1급 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3급 장애인에게 까지 서비스 폭을 대폭 넓혀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정수급, 열악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문제, 여전히 부족한 이용자의 급여량은 양적인 성장에는 한참 못미치는 질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선 기관의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요

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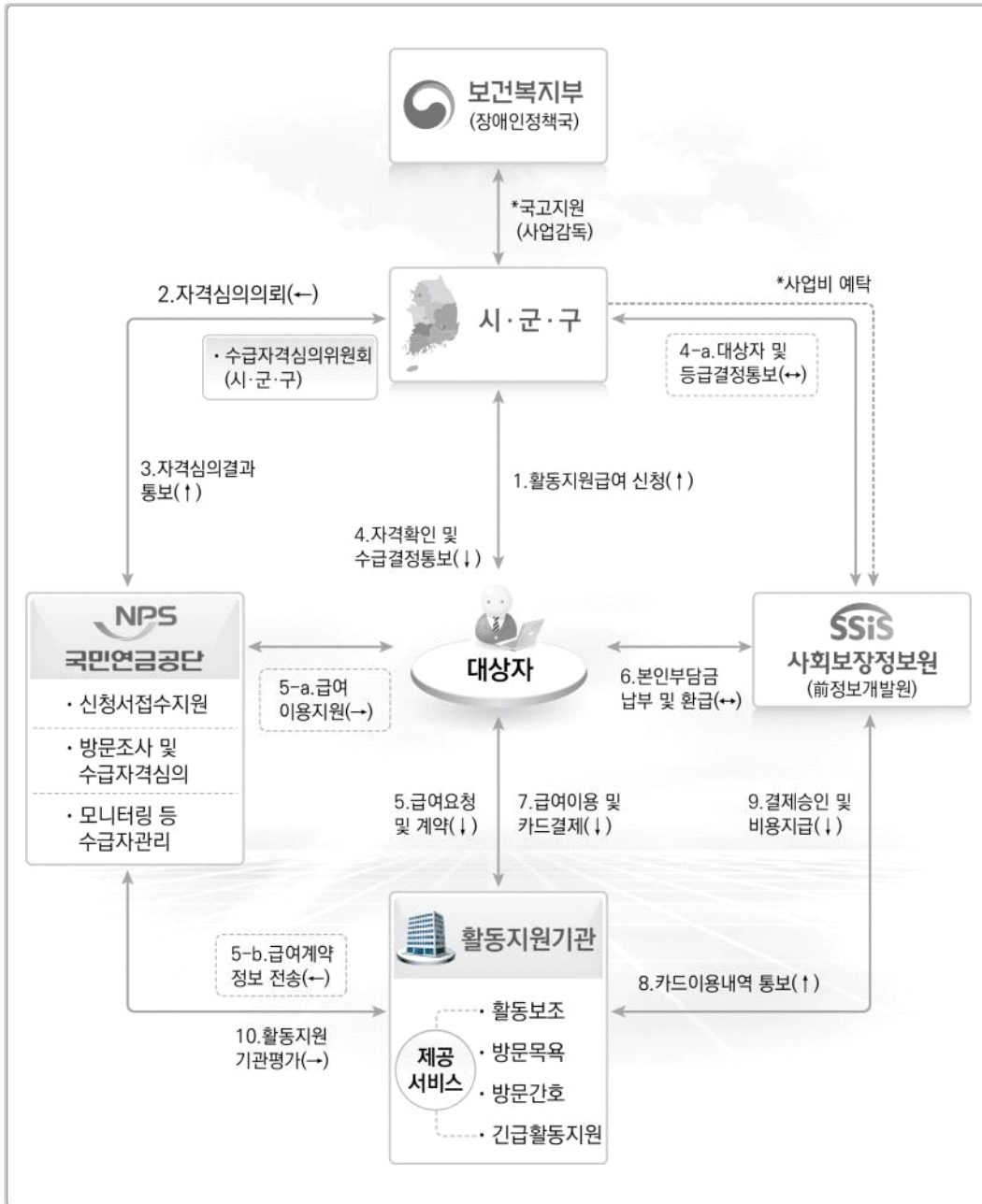
2007년 7월부터 실시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바뀌고, 급여와 대상자가 확대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 방식 사회서비스제도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제도이다.

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궁극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 가능지원
-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가능 지원
- 장애인가족의 부담 경감 지원



7.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향 모색 ❶



사업추진 체계도

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다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 비영리, 민간기관이다. 해당 지자체에 법인, 단체, 기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비영리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에 따라 지정된다.

① 일반원칙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재고를 위하여 1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당 2개 이상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다만,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제공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여 지정한다.

② 법률에 기초한 지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모 및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한다.

③ 공공, 비영리기관 우선 지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 비영리 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④ 지자체별 개발 신청 :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단체)가 신청할 경우 해당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신청한다.

⑤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과 중복 지정 가능 : 다른 사회서비스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기관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⑥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정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지자체단위에서 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지정절차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⑦ 기관간 사업의 양도 불가능 : 활동지원기관은 권리의무주체가 다른 기관에게 사업의 양도가 불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이양하는 기관은 신규 지정받아야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발전

장애인활동지원의 역사는 1990년대에 자립생활의 이념과 원칙을 가져오면서부터 변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미국 및 일본과 닮아있는데,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전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우리이웃장애인자립센터다. 하지만 그 이전에 1997년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직원들을 미국의 버클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을 방문한 직원들이 자립생활과 관련된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었다. 1998년도에 정립회관에서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 휴먼케어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 이념과 서비스에 대한 강의와 연구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립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인 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 체험홈과 같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확산시켜나갔다. (이승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쟁점사항 연구, 보건복지부, 2011)

이후 활동지원서비스는 2001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정립동료상담학교에서 더욱 더 체계적인 발전을 해 나갔다. 이 동료상담학교의 수료생들은 동료상담 서포터라는 지지모임을 만들었고, 정립회관의 자체예산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 2,000원의 쿠폰의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였다.

2002년 11월에는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 4,500만원을 제공하여 공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 5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7개의 자립생활센터에 각각 2년 간 4,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하여 2005년 5월 까지 전국 11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익섭 외 중증장애인실태조사)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한 공적인 지원은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센터 당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4천만원을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장애인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발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두고 있으며,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의 관계 정립을 계기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본격화 되었다. 국회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는데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되, 2009년에 장애인장기요양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시범사업모형은 전국 6개 지역에 대하여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모형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통합모형 2가지 방식을 채택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모형에 대하여 3개 지역(서울 서초, 경기 이천, 전북 익산) 대상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나머지 3개 지역(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 부산 해운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07년 4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할당하여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입하였다.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국민연금공단이 선정되었다. 그 후 국민연금공단이 주체가 되어 2차 시범사업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10년 12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명칭을 변경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 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행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안 통과 시 별도대책 마련토록 부대결의
대통령 공약사항 및 100대 국정과제 선정 (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설치운영
1차 시범사업 실시 (2009년 7월~2010년 1월)	서초구 등 6개 시, 군, 구에서 539명 대상으로 실시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제도모형 확정, 국회보고 (2010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명칭 변경,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선정
2차 시범사업 실시 (2010년 9월~2011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등 7개 시, 군, 구에서 만 6세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중 희망자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급여의 내용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 법률 공포 (법률 제10426호 / 2011년 1월 4일)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서 ‘주간보호’가 삭제되어 법 개정 (2011년 3월 30일)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2011년 8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1년 10월 5일)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2급을 추가하여 시행령 개정 (2012년 12월 27일) 및 시행 (2013년 1월 1일)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3급을 추가하여 시행령 개정 (2015년 2월 26일) 및 시행 (2015년 3월 1일)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의 일반적인 운영과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연구 논문과 학위 논문,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2018년도 현재 기준 활동지원사업 중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근지역 활동지원 기관과 인근 타 지역 기관 중 무작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광범위한 조사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조사하

는 정량분석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표적대상을 두어 심층 인터뷰 형식을 취하는 정성분석 방식의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를 위한 계획 설정은 다음과 같다.

활동명	실행기간	실행결과	비고
연구사업 1차 계획안 작성 및 제출	2018.03		
연구방법 및 대상 선정	2018.03.19.~03.30	총 4개 기관 선정	
연구대상 인터뷰 실시	2018.04.02.~09.14		
연구보고서 작성	2018.10.1.~10.26		

2.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인근 지역 수행기관과 타 지역 수행기관을 고르게 설정하였으며 민감한 사안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조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익명처리를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항목 중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각 기관별 특징은 다음을 참조하도록 한다.

인터뷰 주제는 공통현황 파악과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집중주제로 설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관명	인터뷰 기간	인터뷰 주제	비고
A기관	2018.03	이용자 부정수급 및 환수처리로 인한 기관부담 과중	
B기관	2018.03	활동지원사 - 기관 간 급여문제 발생	
C기관	2018.05	이용자 급여량 부족으로 인한 기관, 제공인력 부담 발생	
D기관	2018.06	경찰수사로 인한 인력 손실 및 인권 침해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조사결과

가. A기관 “부정수급 적발로 인한 환수처리로 인한 기관부담 과중”

A기관 현황 (2018년 2월말 기준)

구분	내용
사업수행기간	7년 7개월
소속 이용자 인원 수	121명
소속 활동지원사 인원 수	108명
전담인력 인원 수	중간관리자 1명, 팀원 2명
월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9,680시간

A기관은 현 제도의 전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이용자 121명, 활동지원사 108명이 소속되어 있다. 얼마 전,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한 가족관계였던 것이 발각되어 지자체로부터 서비스 초기부터 현재까지 급여량 전액을 환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활동지원사로부터 급여금액을 환수하려 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삼아 환수가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중 부정결제가 발생되어 환수가 결정될 경우 기한 내에 기관 차원의 전액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상 기한 내에 기관 부담으로 환수금액을 납부하고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활동지원사에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 활동지원사가 납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활동지원기관의 몫으로 남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A기관의 경우 기관차원에서 환수금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해당 활동지원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금액 또한 상당하여 기관의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였다. 계속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환수납부를 지시하고 있으나 정작 활동지원사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로 인하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연락이 두절될 경우 환수금액을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수처리를 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환수금을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다고 하였다.

환수금액 추징에 대한 법적인 대응 체계와 추징에 대한 법적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부정수급과 환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나의 사건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엔 지엽적이라 할 수 있으나 활동지원사업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큰 원인은 활동지원기관의 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매칭의 수준에

이르는 약한 권한은 활동지원기관의 감시자의 역할에 보탬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불법적인 이용 형태가 양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본 기관에서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계약을 맺게 될 경우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을 은폐할 경우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력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B기관 “기관 - 활동지원사 미지급 급여 지급 분쟁”

B기관 현황 (2018년 2월말 기준)

구분	내용
사업수행기간	5년 6개월
소속 이용자 인원 수	92명
소속 활동지원사 인원 수	79명
전담인력 인원 수	중간관리자 1명, 팀원 2명
월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7,300시간

B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한 차례 겪은 경험이 있었다. 지역 내 타 기관 중 제수당을 100%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동료 활동지원사와 급여 금액을 비교하던 중 B기관에 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할 노동지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 미지급 수당을 전액 지급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지역 내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급여 현실화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해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가로 인하여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의 급여 문제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사업 초창기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양적인 성장으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으나 동일 지역 내 신규 기관이 생기고 수익구조가 무너지게 되면서 기관 내에서 활동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어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다.

B기관 역시 현실적인 활동지원수가 없이는 사업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용장애인의 수가 많고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할 기관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 조정, 잉여금 사용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신규 기관인 경우 수익 운영은커녕 기관의 경제적, 인적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 C기관 “이용자 급여량 부족으로 인한 기관, 제공인력 부담 발생”

C기관 현황 (2018년 5월말 기준)

구분	내용
사업수행기간	4년 2개월
소속 이용자 인원 수	73명
소속 활동지원사 인원 수	64명
전담인력 인원 수	중간관리자 1명, 팀원 1명
월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6,200시간

C기관은 소속 이용자 중 중증독거 이용장애인인 해당이용자는 타인의 도움없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나 갱신 기간 중 급여량이 감소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용자가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외면할 수 없던 담당 활동지원사가 1일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4~5시간을 무급 노동으로 서비스 공백을 메꾸고 있었다고 한다. 무급 노동으로 일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었던 활동지원사가 C기관의 전담인력에게 사실을 알렸고 결국 활동지원기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이용자의 추가 서비스 제공을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인근 기관에서 몇 해 전 활동지원사의 공백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사망했던 사건이 있어 독거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기약없는 지출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의 급여량 증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도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급여량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용자의 일상생활환경은 각 개인별로 상이한데 현재 활동지원 급여를 결정짓는 인정조사는 그러한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현재 시행 예정인 등급제 폐지가 진행될 경우 상당 수의 이용자의 급여량 감소가 걱정된다는게 기관의 입장이었다.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이 사실상 1시간 늘게 되며, 활동지원 수급자 7만명 중 1만명 정도가 급여 하락 내지는 탈락의 위험을 안게 될 수 있다.

또한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 결과,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 1886명 중 개인별 급여탈락 13.52%로 246명이나 탈락했다는 점.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은 기존보다 급여가 증가된 반면, 시각장애인은 감소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급여 '뚝' 공포 - 이슬기, 에이블뉴스, 2018.07.25)

이용자의 개별적인 환경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합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활동지원사업의 우선 과제이며 그에 맞는 급여량 현실화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라. D기관 “경찰수사로 인한 인력 손실 및 인권 침해”

D기관 현황 (2018년 6월말 기준)

구분	내용
사업수행기간	5년 6개월
소속 이용자 인원 수	61명
소속 활동지원사 인원 수	49명
전담인력 인원 수	중간관리자 1명, 팀원 1명
월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	5,000시간

D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2년 전,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것보다 활동지원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해당관할 경찰에게 활동지원사 및 장애인 당사자 600여 명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종료일, 계약기간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지역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전수 600명의 개인정보를 조사해 지난 4월 30여 명을 부정수급 혐의자로 검찰에 송치 및 부정결제 분 환수까지 진행되었다.

실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D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 활동지원사들은 임의수사 대상이 되어 마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를 국가 보조금을 탐내는 범죄자로 만들어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들을 좌절,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자들은 "여성인 당신이 어떻게 남성 이용자의 대소변도 받고, 목욕도 시킬 수 있느냐"거나, "(발달장애인 자녀의 엄마가) 그렇게 바쁘면 아이를 시설에다 보낼 것이지 왜 데리고 있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한다.

관련사건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활동지원사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것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항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와 노동감시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에 활동지원사로 일하고자 지원하는 사람들도 겁감하여 아직까지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사명감으로 활동지원사를 선택한 분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점검 체계가 수립되어야 다른 지역의 활동지원사도 안심하고 이용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제언

4개 기관의 전담인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주제는 불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점이었다.

최저임금이 낮았던 2011년~2013년에는 활동지원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으로 불리며 대단한 수익사업처럼 표현되곤 했다. 이때까지 기관은 지침대로 시급을 단가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의 수수료로 기관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기관의 수수료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렵고, 지침대로 75%만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범법기관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2018년 활동지원 단가는 10,760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9,036원으로 활동지원 단가 대비 84%이다. 과연 나머지 16%로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의 퇴직 적립금, 사회보험료, 전담인력 등 간접 인건비 및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3년 전, 활동지원사의 미지급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근로감독이 전국 단위로 실시된 적이 있었다. 무작위로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수검기관의 상당수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내려졌고 3년치 미지급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정부가 활동지원사업 단가로 책정한 10,760원이 합당한 근거에 의해 책정된 것이라면 정부는 최저임금 지급 가능 문제에 대해 회피한 채 기관에만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금액이 정말 합당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활동지원사 시급을 단가의 84% 이상 주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기관의 운영수수료는 어떤 기준에서 25%에서 16%로 변경되었는지, 정부는 그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가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기관은 방치된 채, 사업 반납과 불법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다. 현실에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주고 난 뒤의 수수료 16%로는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이 수수료를 많이 남겨가기 때문에 단가를 높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나 — 25% 수수료를 온전히 가져갔던 2013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16%의 수수료로 운영할 능력 없으면 기관을 폐쇄하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기관들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체 운영비를 투입하여 적자로 운영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운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업 반납이다. 사업 반납의 경우, 자체 운영비를 투입해 적자로 운영하다가 더는 감당하기 힘들 때 기관이 선택하는 선택지이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활동지원사업을 포기하면 기관 운영비 부족으로 기관 존립에 문제가 생기니 사업 반납조차 택하기 쉽지 않다.

활동지원사업의 불안정적인 운영은 결국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불안정한 노동형태는 빈번한 이직과 서비스 공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최악의 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한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게 될 경우 이용자는 다시 새로운 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정화 방안 (정용주, 2014)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 불법과 '사업 반납'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 - 최저임금과 활동지원 단가 (최재선, 비마이너, 2018. 09. 21)
- '부정수급 수사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최한별, 비마이너, 2018. 09. 21)
-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동조, 2016)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평판지수 연구

기획운영지원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1. 평판의 개념 정의
2. 평판과 공중관계성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 사회복지시설 평판지수 결과분석

V. 결론 및 제언

부록

1. 설문지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은 설립배경과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각 시설의 유형별 특징과 목적에 맞는 사업을 준비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 관점은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1999년 이후 지속되어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중아평가제도는 기본적 관리영역 즉, 재정, 조직, 인력,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가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시설 재위탁이나 감사과정 등을 통해서 매번 확인되는 사항으로 중복적인 작업으로 업무적 소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기관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이용 만족도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평판개념의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 뒤 2016년 서울형 시범평가에 참여한 3종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네가지의 목적을 이루고자하였는데 첫째, 서울형 평가지표 중 평판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둘째, 평판 측정을 위한 응답 대상은 기관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기존 중앙평가의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넘어서 기관의 지역사회 관계나 운영 전반에 대한 평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셋째, 평판 척도는 이용자 만족도를 넘어서 지역사회 관계를 포함한 기관의 종합적인 평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평판척도 개발과 적용,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긍정적인 지역사회관계 형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서울형 시험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중 170개소(노인28, 사회97, 장애인45)의 이용자, 자원봉사자, 관련 지역사회유관기관 담당자를 조사 총 5,100여명의 표본으로 현장조사와 온라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결과와 기관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나아가야하는 바에 대해서 점검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중 조직의 신뢰성, 상호공존성, 상호통제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의 4가지 영역에 따른 세부 척도에 해당하는 질문을 2018년 이용자만족도조사 진행시 함께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평판의 개념 정의

평판은 한자어로는 “평하다”와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고려대 한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된다.(한은경.이보영, 2013) 평판은 명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객체에 대하여 공감하는 인식을 의미한다.(최승범.박홍식, 2007)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보면 평판은 공중들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과 관련된 사건, 현상, 행위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하는 의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은경.이보영, 2013)

평판은 첫째, 공간적 측면에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 연결 뿐 아니라 이야기와 소문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간접적인 연계를 통해 형성된다. 둘째, 시간적 측면에서 평가적 정보는 한 무리의 구성원 사이에 집합적 기억으로 저장되고 전파된다. 셋째 평판은 시간을 두고 조직이 반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근거하여 조직의 전체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넷째, 평판에 대한 정보는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보다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이렇듯 평판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들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평판을 직접 형성해나가는 주체인 이해관계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평판 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조직은 다소 생소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범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조직의 평판지수를 측정해내기 위해서 접근해야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으로서 조직 환경 개념이 더욱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과업환경은 기관이 하는 일에 이해가 걸려있는 개인이나 집단 및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한 조직의 서비스 생산을 돕거나 혹은 경쟁하는 외부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해관계자 개념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의 과업환경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는 물론, 그 가족과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운영위원, 재정공급자와 규제자, 각종 지역사회집단, 경쟁기관 관계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복지조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 평판과 공중관계성

공중관계성(Public Relations, PR)은 일반적으로 홍보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개념과 관련된 최근 경향은 상호호혜적인 공중과의 관계성을 근원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PR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 관리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관리로서의 PR의 한계를 넘어, 조직과 공중 간의관계성을 중시하는 개념이다.(이수범.신성혜.최원석,

2004) 즉, PR은 관계 공중을 목표로 이런 공중과 호혜적 관계 또는 상호 이해의 창조를 목적으로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흡수하여 공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쌍방향적 제반 커뮤니케이션 활동(심영주, 1997)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공중 간의 관계성이 증진되면 결국 조직의 평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이다.(차희원, 2004) 이러한 공중관계성과 평판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측정도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설문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포괄한 신뢰성, 친밀성(상호공존성), 소통성(상호통제성), 기여성(사회적기여) 등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있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설문 중에 기관의 청결에 대한 사항은 시설 환경적인 부분에서 점검하고 있어 청결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밀성 부분을 추가하여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 진행하였다.

<표 1, 복지관 평판지수 측정 척도>

신뢰성	전문성	1. 우리 복지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우리 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다.
	책임성	3. 우리 복지관은 건전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투명성	4. 우리 복지관은 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솔직하다. 5. 우리 복지관은 운영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다. 6. 우리복지관에 등록된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친밀성 (상호공존성)		7. 우리 복지관은 가족 같이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8. 우리 복지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9. 우리 복지관 이용자 간 상호존중 및 질서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통성 (상호통제성)	10. 우리 복지관은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11. 우리 복지관은 주요한 의사결정에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기여성 (사회적기여)	12.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우리 복지관은 실제로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2. 조사 방법

2018년 이용자욕구 및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343명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설문기간은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였으며,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자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전체, N=343, 단위 : 명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87	54.5
	여	135	39.4
	유효/결측값	21	6.1
연령	학령전기(0세~7세)	30	8.8
	학령기(8세~19세)	75	21.9
	청년기((20세~29세)	54	15.7
	장년기(30세~45세)	35	10.2
	중년기(46세~64세)	80	23.3
	노년기(65세 이상)	46	13.4
	유효/결측값	23	6.7
장애유형	지체장애	61	17.8
	뇌병변장애	73	21.3
	시각장애	2	2.6
	청각장애	2	0.6
	언어장애	12	3.5
	지적장애	74	21.6
	자폐성장애	34	9.9
	정신장애	4	1.2
	신장장애	4	1.2
	호흡기장애	1	0.3
	미등록	10	2.9
	기타	2	0.6
	해당사항 없음	15	4.4
	중복장애(2개이상 선택)	24	4.8
	유효/결측값	25	7.3
장애등급	1급	62	18.1
	2급	119	34.7
	3급	72	21.0
	4급	16	4.6
	5급	12	3.5
	6급	5	1.5
	미등록	9	2.6
	해당사항 없음	25	7.3

복지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87명(54.5%), 여성 135명(39.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응답자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중년기(46세~64세)가 80명(23.3%)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학령기(8세~19세) 75명(21.9), 청년기(20세~29세) 54명(15.7), 노년기(65세 이상) 46명(13.4%) 순으로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복지관 응답자의 장애명 및 등록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지적장애가 74명(21.6%)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뒤이어 뇌병변장애가 73명(21.3%)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지체장애 61명(17.8%), 자폐성장애 34명(9.9%), 중복장애 24명(4.8%)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복지관 응답자의 장애등급은 '2급'이 119명(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급' 72명(21%), '1급' 62명(18.1%) 순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복지관 이용 특성

전체, N=343, 단위 : 명

		빈도	퍼센트
이용기간	1년 미만	64	18.6
	1년 이상 ~ 2년 미만	56	16.4
	2년 이상 ~ 3년 미만	46	13.4
	3년 이상 ~ 5년 미만	56	16.4
	5년 이상	103	30.0
	유효/결측값	18	5.2
방문횟수	매일	70	20.4
	주 1~2회	139	40.5
	주 3~4회	90	26.2
	월 1회	5	1.5
	월 2~3회	11	3.2
	기타	12	3.5
	유효/결측값	1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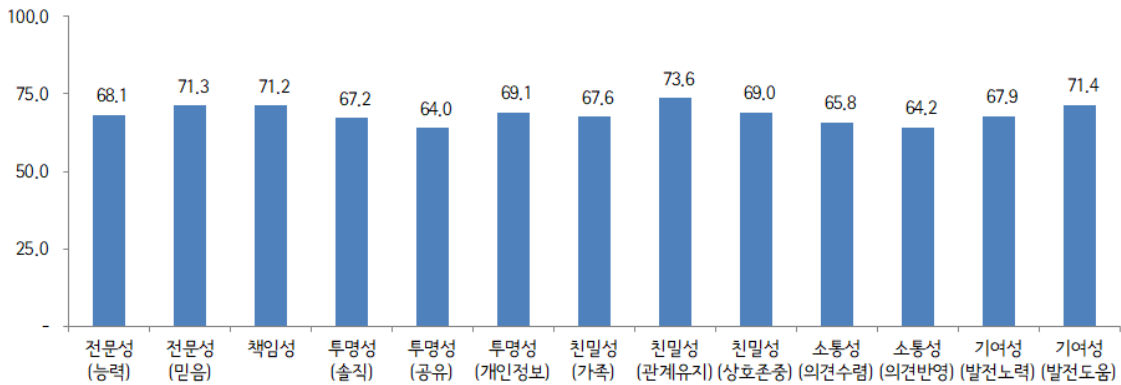
복지관 이용특성을 조사한 결과 이용기간은 '5년 이상'이 103명(30.0%)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1년 미만' 64명(18.6%), '1년 이상 ~ 2년 미만' 56명(16.4%), '3년 이상 ~ 5년 미만' 56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방문횟수는 '주 1~2회'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139명(40.5%)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주 3~4회' 90명(26.2%), '매일' 70명(20.4%), '월 2~3회' 11명(3.2%), '월 1회' 5명(1.5%)의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2. 사회복지시설 평판지수 조사결과 분석

전체응답자 343명 중 설문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 37명을 제외하고 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하였다.

가. 평판지수

평판지수 13문항의 100점 평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으며 총 평균은 **68.5점**으로 나타났다. 친밀성 중 지속적 관계 의향도가 7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여도 중 지역사회 도움정도가 7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평판지수 분석

1) 전문성-전문적능력도

전문성 중 전문적 능력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8.1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와 월 1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1~2년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전문성-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0	2	0	19	31	8	67.9	.321
1년~2년	52	2	0	16	26	8	62.3	
2년~3년	44	0	1	13	26	4	68.8	
3년~5년	51	0	0	16	28	7	70.6	
5년이상	84	1	6	26	38	13	66.7	
매일	60	1	2	21	26	10	67.5	2.250*
주1~2회	128	2	2	36	68	20	70.0	
주3~4회	81	1	3	23	45	9	67.9	
월1회	5	0	0	1	3	1	75.0	
월2~3회	8	1	0	6	1	0	46.9	
기타	11	0	0	3	8	0	68.2	

2) 전문성-서비스 신뢰도

전문성 중 서비스 신뢰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71.3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년이용자와 3~5년 이용자와 월 1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1년미만 이

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전문성-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믿을 수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1	1	1	16	35	8	69.7	.577
1년~2년	52	1	1	11	27	12	73.1	
2년~3년	44	0	1	14	24	5	68.8	
3년~5년	53	0	1	9	36	7	73.1	
5년이상	87	0	5	17	50	15	71.6	
매일	63	1	1	18	31	12	70.6	.845
주1~2회	131	0	7	25	79	20	71.4	
주3~4회	81	1	0	18	48	14	72.8	
월1회	5	0	0	1	3	1	75.0	
월2~3회	8	0	1	3	4	0	59.4	
기타	11	0	0	2	8	1	72.7	

3) 책임성-건전한 원칙 노력도

책임성 중 건전한 원칙 노력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71.2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년 이용자와 기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2년~3년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책임성-건전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0	17	35	9	70.6	.226
1년~2년	52	1	3	8	27	13	73.1	
2년~3년	44	0	2	9	29	4	69.9	
3년~5년	52	0	1	11	35	5	71.2	
5년이상	87	1	2	18	52	14	71.8	
매일	62	1	0	17	33	11	71.4	2.344*
주1~2회	132	0	7	25	86	14	70.3	
주3~4회	81	1	0	16	48	16	74.1	
월1회	5	0	0	1	3	1	75.0	
월2~3회	8	1	1	2	4	0	53.1	
기타	11	0	0	2	6	3	77.3	

4) 투명성-운영 투명성정도

투명성 중 운영 투명성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7.2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년이

용자와 3~5년 이용자와 기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3년~5년 미만 이용자와 월 1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투명성-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솔직하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1	1	0	20	35	5	67.6	.696
1년~2년	52	2	1	11	28	10	70.7	
2년~3년	44	1	3	8	27	5	68.2	
3년~5년	53	1	1	22	23	6	65.1	
5년이상	85	0	6	32	35	12	65.6	
매일	63	1	3	22	29	8	65.9	.254
주1~2회	130	3	5	37	69	16	67.3	
주3~4회	81	1	2	27	40	11	67.9	
월1회	5	0	1	1	2	1	65.0	
월2~3회	8	0	0	3	4	1	68.8	
기타	11	0	0	3	6	2	72.7	

5) 투명성-공개와 공유정도

투명성 중 공개와 공유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중 1~2년이용자와 월 1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투명성-운영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0	2	0	27	26	5	63.3	.382
1년~2년	52	1	3	14	28	6	66.8	
2년~3년	44	1	3	13	22	5	65.3	
3년~5년	53	1	2	22	23	5	63.7	
5년이상	85	4	9	27	31	14	62.4	
매일	64	4	5	21	25	9	61.7	1.799
주1~2회	128	2	9	46	58	13	63.9	
주3~4회	81	2	1	26	42	10	67.6	
월1회	5	0	0	2	1	2	75.0	
월2~3회	8	1	1	4	2	0	46.9	
기타	11	0	1	4	5	1	63.6	

6) 투명성-개인정보 보호정도

투명성 중 개인정보 보호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9.1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와 월 2~3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와 주1~2회와 월 1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투명성-등록된 나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2	0	18	38	4	66.9	1.328
1년~2년	52	2	2	9	29	10	70.7	
2년~3년	43	0	2	11	25	5	69.2	
3년~5년	53	0	1	10	32	10	74.1	
5년이상	84	1	7	21	44	11	67.0	
매일	64	2	3	17	34	8	66.8	.608
주1~2회	129	2	5	27	84	11	68.8	
주3~4회	81	1	3	22	38	17	70.7	
월1회	4	0	0	1	3	0	68.8	
월2~3회	8	0	0	2	3	3	78.1	
기타	10	0	1	1	7	1	70.0	

7) 친밀성-따뜻한 느낌 정도

친밀성 중 따뜻한 느낌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7.6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와 주3~4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5년이상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친밀성-가족 같이 따뜻한 느낌을 받는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1	18	36	6	68.1	1.746
1년~2년	52	2	3	9	29	9	69.2	
2년~3년	43	0	2	10	29	2	68.0	
3년~5년	54	0	2	11	32	9	72.2	
5년이상	86	2	8	28	38	10	63.4	
매일	64	2	2	17	35	8	67.6	.634
주1~2회	130	2	10	31	74	13	66.5	
주3~4회	81	1	1	22	44	13	70.7	
월1회	5	0	1	1	2	1	65.0	
월2~3회	9	0	2	2	4	1	61.1	
기타	10	0	0	4	5	1	67.5	

8) 친밀성-지속 관계 의향도

친밀성 중 지속 관계 의향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73.6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 및 기타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1년미만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친밀성-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0	16	37	8	70.6	2.441*
1년~2년	52	1	0	7	28	16	77.9	
2년~3년	44	0	1	10	26	7	72.2	
3년~5년	54	0	0	9	29	16	78.2	
5년이상	86	1	2	17	54	12	71.5	
매일	64	2	1	6	42	13	74.6	.295
주1~2회	131	0	2	29	78	22	72.9	
주3~4회	81	1	0	17	45	18	74.4	
월1회	5	0	0	1	3	1	75.0	
월2~3회	9	0	0	4	3	2	69.4	
기타	11	0	0	2	6	3	77.3	

9) 친밀성-상호 존중정도

소통성 중 상호존중정도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9.0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1~2년 이용자와 월 1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5년이상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친밀성-이용자 간 상호존중 및 질서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2	12	40	7	70.2	1.261
1년~2년	51	1	3	5	32	10	73.0	
2년~3년	42	0	4	10	24	4	66.7	
3년~5년	54	0	1	13	35	5	70.4	
5년이상	85	2	4	27	41	11	66.2	
매일	63	2	2	19	33	7	66.3	1.060
주1~2회	129	1	8	23	79	18	70.3	
주3~4회	79	1	3	16	49	10	70.3	
월1회	5	0	0	1	3	1	75.0	
월2~3회	9	0	1	4	4	0	58.3	
기타	10	0	0	4	4	2	70.0	

10) 소통성-주민 의견 수렴도

소통성 중 주민 의견 수렴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5.8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2~3년이 용자와 주 3~4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5년미만 이용자와 월 1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소통성-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2	18	36	5	66.9	.902
1년~2년	52	1	3	16	26	6	65.9	
2년~3년	44	0	3	11	23	7	69.3	
3년~5년	52	0	2	16	31	3	66.8	
5년이상	85	3	9	25	38	10	62.6	
매일	64	2	4	13	39	6	66.8	
주1~2회	128	1	9	41	64	13	65.4	
주3~4회	81	1	3	25	41	11	67.9	
월1회	5	1	0	2	2	0	50.0	
월2~3회	9	0	2	3	3	1	58.3	
기타	10	0	1	2	6	1	67.5	

11) 소통성-주민의견 반영도

소통성 중 주민의견 반영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4.2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이 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5년이상 미만 이용자와 월 1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소통성-주요한 의사결정에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1	25	29	6	65.3	.909
1년~2년	51	1	4	13	29	4	65.2	
2년~3년	41	0	2	16	19	4	65.2	
3년~5년	51	0	1	18	28	4	67.2	
5년이상	86	2	11	29	35	9	61.0	
매일	63	2	4	21	31	5	63.1	
주1~2회	126	1	8	48	61	8	63.3	
주3~4회	81	1	3	28	40	9	66.4	
월1회	5	0	2	1	2	0	50.0	
월2~3회	8	0	2	2	2	2	62.5	
기타	10	0	0	2	5	3	77.5	

12) 기여성-지역발전 노력도

기여성 중 지역발전 노력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67.9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와 월 1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5년이상 이용자와 월 2~3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기여성-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1	17	35	8	69.4	1.350
1년~2년	52	1	2	13	27	9	69.7	
2년~3년	44	0	3	15	22	4	65.3	
3년~5년	53	1	0	10	36	6	71.7	
5년이상	83	2	6	27	37	11	64.8	
매일	63	2	3	20	33	5	64.3	1.057
주1~2회	130	2	5	33	75	15	68.5	
주3~4회	81	1	3	22	40	15	70.1	
월1회	4	0	0	0	3	1	81.3	
월2~3회	9	0	1	4	2	2	63.9	
기타	10	0	0	3	6	1	70.0	

13) 기여성-지역 발전 기여도

기여성 중 지역발전 기여도를 묻는 문항에는 평균 71.4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3~5년 이용자와 기타 이용자에서 가장 좋게 평가하였으며, 2년~3년미만 이용자와 월 1회 이용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하였다.

<기여성-실제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F값 (유의수준)
1년미만	62	1	0	16	32	13	72.6	.983
1년~2년	50	2	0	10	27	11	72.5	
2년~3년	44	0	0	14	27	3	68.8	
3년~5년	52	0	0	8	36	8	75.0	
5년이상	82	2	2	22	42	14	69.5	
매일	63	2	1	13	37	10	70.6	1.630
주1~2회	129	1	1	30	76	21	72.3	
주3~4회	79	1	0	17	48	13	72.8	
월1회	4	1	0	2	0	1	50.0	
월2~3회	8	0	0	5	2	1	62.5	
기타	10	0	0	3	4	3	75.0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제언

1) 평판지수가 낮게 평가된 요인 -소통성(의견수렴), 투명성(공유)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참고한 자료인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연구]를 살펴보면 복지관 이용자와 동일하게 소통성과 투명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경우 운영에 전반적인 경우를 직접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소통성의 경우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ex-프로그램 대기기간 축소, 이용기간 확대, 운동실 기구관리 등)에 대한 것은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2) 평판 지수의 유의미한 결과

지역사회 평판지수는 총 68.5점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참고한 자료인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연구] 89.3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성(서비스신뢰도), 책임성, 친밀성(지속관계 의향도) 기여성(지역발전기여도) 등 비슷한 문항에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구성요소는 많지 않았다. 전문성(능력도), 책임성, 친밀성(지속관계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3) 평판 지수에 대한 향후 기관 준비사항

평판이란 결코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려우며 또한 여러 대내외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설문 결과 값으로 기관 평판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아닌 기관의 이미지를 묻고 향후 나아가야하는 바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설문문항에 따라 결측값이 있어 정확한 비교는 하기 어려웠으며 요인별로 동일하게 분산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 (능력)	전문성 (믿음)	책임성	투명성 (솔직)	투명성 (공유)	투명성 (개인 정보)	친밀성 (가족)	친밀성 (관계 유지)	친밀성 (상호 존중)	소통성 (의견 수렴)	소통성 (의견 반영)	기여성 (발전 노력)	기여성 (발전 도움)
1년 미만	67.9	69.7	70.6	67.6	63.3	66.9	68.1	70.6	70.2	66.9	65.3	69.4	72.6
1년 ~2년	62.3	73.1	73.1	70.7	66.8	70.7	69.2	77.9	73	65.9	65.2	69.7	72.5
2년 ~3년	68.8	68.8	69.9	68.2	65.3	69.2	68	72.2	66.7	69.3	65.2	65.3	68.8
3년 ~5년	70.6	73.1	71.2	65.1	63.7	74.1	72.2	78.2	70.4	66.8	67.2	71.7	75
5년 이상	66.7	71.6	71.8	65.6	62.4	67	63.4	71.5	66.2	62.6	61	64.8	69.5

	전문성 (능력)	전문성 (믿음)	책임성	투명성 (솔직)	투명성 (공유)	투명성 (개인 정보)	친밀성 (가족)	친밀성 (관계 유지)	친밀성 (상호 존중)	소통성 (의견 수렴)	소통성 (의견 반영)	기여성 (발전 노력)	기여성 (발전 도움)
매일	67.5	70.6	71.4	65.9	61.7	66.8	67.6	74.6	66.3	66.8	63.1	64.3	70.6
주 1~2회	70	71.4	70.3	67.3	63.9	68.8	66.5	72.9	70.3	65.4	63.3	68.5	72.3
주 3~4회	67.9	72.8	74.1	67.9	67.6	70.7	70.7	74.4	70.3	67.9	66.4	70.1	72.8
월1회	75	75	75	65	75	68.8	65	75	75	50	50	81.3	50
월 2~3회	46.9	59.4	53.1	68.8	46.9	78.1	61.1	69.4	58.3	58.3	62.5	63.9	62.5
기타	68.2	72.7	77.3	72.7	63.6	70	67.5	77.3	70	67.5	77.5	70	75

전반적으로 3~5년동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월 1회 방문하고 있는 이용자가 가장 높은 평판을 나타냈다. 하지만 5년 이상 복지관을 이용하고 월 2~3회 방문하는 이용자에게서는 월등하게 낮은 평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관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그룹이 5년이상 장기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1년 미만 이용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기 기간에 대한 상황으로 평판이 낮다고 사료되며 2~5년까지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고 3~5년 이용자에서 평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보아 점차적으로 상승된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5년 이상이 된 경우 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민조직화 관점에서 바라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역량이 강화 된 후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조모임, 소그룹 모임등을 활성화하여 복지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즐기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성

1) 유관기관 조사 미진행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판지수를 살펴보기 위해 유관기관,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평판지수를 분석했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만 설문을 받아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값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 도출의 어려움

자율적으로 이용자분들에게 설문을 받고 수거하다보니, 항목별로 골고루 이용자가 분산되지 않았으며, 설문의 일관성 및 응답률이 낮아 유의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추후 연구를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되었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 중간에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진행시에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연구사업 보고서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김경환

발행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9

(신정6동 319-13)

Tel. 02-2061-2500

Fax. 02-2061-2525

www.yesupport.or.kr
